중앙일보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3 제 6826호

Monday, December 11, 2023 A

VA, 고학력 전문직 이탈 심각

VA, 대학 졸업자 순유출 "10년째 증가세"

버지니아가 2013년 이후 순유출인구가 순유입인구를 넘어서고 있으며, 탈출 러쉬의 중심에 고학력 전문직 청년 계층이 자리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북버지니아와 햄튼 로드 등 도심지역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

연방센서스국 발표에 의하면 2022년 버지니아를 떠난 인구는 28만1589명으로, 2021년의 27만5557명보다 많았다. 반면 버지니아로 유입된 인구는 2022년 26만7168명으로, 2021년의 27만6111명에 비해 줄어들었다. 유출인구는 늘어나고 유입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같은 현상이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버지니아 유출 인구의 상당수가 25-34세 연령대라는 점이다. 2021년 이들 연령대의 유출인구는 6만488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만7221명으로 증가했다. 이들 대부분 상당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버지니아 대신 타주의 직장을 얻어 떠난 인구다.

자료에 의하면 2012년까지는 청년 계층의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많았으나, 2013년을 고비로 이같은 현상이 역전됐다. 전체적으로 버지니아를 떠나는 24-64세 연령층의 60.2%가 4년제 대학 졸업 학력을 지니고 있었다. 2022년 이들 연령대 중 5만8770명이 버지니아를 떠나고 5만1805명이 버지니아로 들어왔다. 대학을 졸업한 고학력 계층이 버지니아의 고용시장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밖에도 45-64세 연령층의 순감소 인구가 80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노동생산성과 자산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세대가 유출됨으로써 버지니아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17세 연령층의 순감소 인구도 8282명에 달했다. 버지니아를 떠난 고학력 계층의 종착지는 주로 텍사스, 노스 캐롤라이나, 조지아, 플로리다 등이었다. 반면 대학 중퇴, 고졸 학력자는 순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김옥채 기자

오타니, 10년 7억달러 '홈런' MLB 수퍼스타 쇼헤이 오타니(29)가 미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액인 7억달러에 LA 다저스로 이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도류'로 유명한 오타니는 주전투수 겸 홈런 타자로 현재 MLB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있다. 사진은 올해 시즌에서 LA에인젤스 유니폼으로 타석에 들어선 오타니. » 관계기사 6면 [로이터]

여당, TK 빼고 전 지역이 험지 됐다

총선 4개월 앞, 지지율 내리막 "강서구청장 때보다 민심 더 싸늘"

내년 4·10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총선 120일 전인 오는 12일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여야의 사활을 건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제3지대 출범과 여야 비주류의 이탈로 인한 정계 개편, 선거 구도 재편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치권이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그런데 꼭 두 달 전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와신상담을 벼르던 국민의힘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뚜렷한 성과 없이 오는 11일 조기 해체하기로 함에 따라 당 안팎에선 "입으로는 '혁신'을 외쳤지만, 여당을 향한 민심은 '강서 참사' 때보다 더 싸늘하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여권을 향한 냉랭한 민심은 당장 여론조사로 나타났다. 지난 8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5~7일)에서 총선 때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답변은 35%, '현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답변은 51%로 각각 나타났다. 정부 견제론이 16%포인트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10월 10~12일) 9%포인트(지원론 39%, 견제론 48%)보다 7%포인트나 더 격차가 벌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정부 지원론(66%)이 견제론(20%)을 크게 앞선 대구·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견제론이 더 높았다. 인천·경기에선 견제론(57%)이 지원론(30%)보다 27%포인트나 높았다.

김준영·전민구 기자

» 12면 '총선' 으로 이어집니다

트럼프 47% vs 바이든 43%

'트럼프 우위 여론' 굳어지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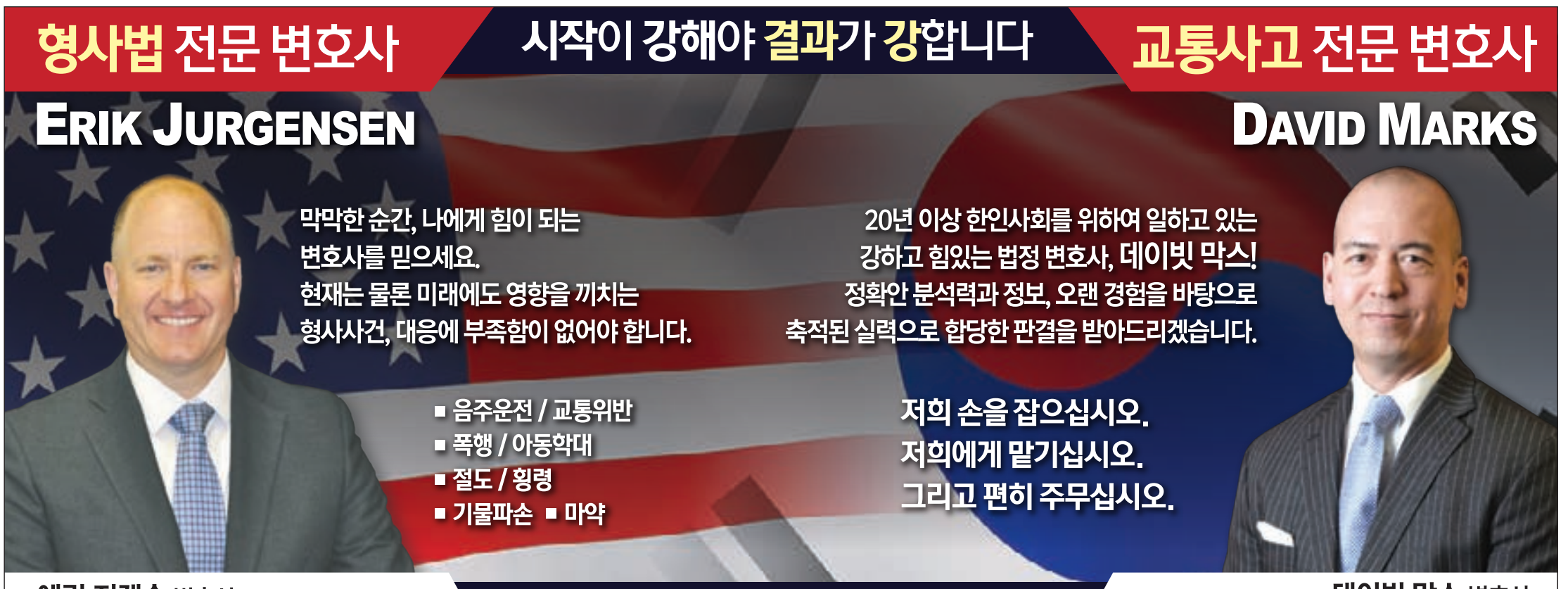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현상이 고착하는 분위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1천50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늘 대선이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7%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꼽았다고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43%에 그쳤다. 특히 무소속이나 소수당으로 출마하겠다는 다른 대선 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격차가 오차범위 바깥으로 벌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7%로 선두를 달렸고, 바이든 대통령은 31%에 그쳤다. 이어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8%, 무소속 코넬 웨스트와 조 맨친 연방 상원 의원이 각각 3%, 녹색당 질 스타인 후보는 2%를 기록했다.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바이든 대통령을 추격하는 입장이었지만, 이후 역전에 성공한 뒤 최근에는 격차를 조금씩 벌리고 있다.

지난달 중순 유권자 1천4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에머슨대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도는 47%로 바이든 대통령(43%)을 4%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 2면 '트럼프 우위 여론'으로 이어집니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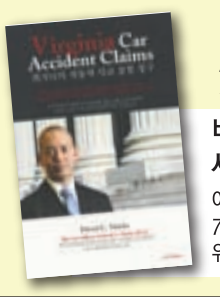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Super Lawyers
Martindale-Hubbell NOTABLE 2019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BEST LAWYERS
THE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검찰, 송영길 영장청구 방침 … "돈봉투 마련·전달책 모두 구속"

송 전 대표, 소환조사서 진술 거부
검찰 '송 묵인·인지하에 살포' 판단

검찰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조만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자금 조성 및 전달 역할을 한 피의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여서 '최종 수혜자' 격인 송 전 대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 8일 송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 등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 4월 윤관석 의원 등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 검찰 내부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연루된 사건인 만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연내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송 전 대표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추가 소환도 없을 거라고 한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포함해 오래 시간을 끌었으니 구속 시도를 할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에서 변론 전략을 노출하지 않고, 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은 ▶정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민주적 헌법질서를 오염시킨 중대 범죄라는 점 ▶강래구(보석), 박용수, 윤관석 등 자금 마련책과 전달책이 모두 구속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송 전 대표가 지난 4월 프랑스에서 귀국하기 전에 국내에서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 등을 구속 사유로 검토 중이다.

앞서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은 지난 7월 법정에서 "윤관석 의원에 돈을 제공했다"고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씨 역시 지난 9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에게 6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했고, 11월엔 "300만원이 든 봉투를 10개씩 두 차례 준비해 전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송 전 대표의 '스폰서' 역할을 했던 사업가 김모씨는 지난 4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래구로부터 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5000만원을 박용수 보좌관에 전달했다"면서 "(송 전 대표가 당선 이후)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검찰은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의 묵인 또는 인지하에 조직적인 돈봉투 살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살포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거나 송 전 대표에 보고했다는 증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윤 의원 역시 "각 봉투당 30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었고 돈봉투를 보관만 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외부에서 보기에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곧 수사 결론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도 구속 필요성에 무게를 더하는 요소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만으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 기획 수사에도 저에 대한 증거 조작이 제대로 안 되니 주변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허위 사실로 구속했다"는 입장이다. 평소 쓰던 휴대전화를 해외에서 폐기한 것도 "외국에선 국내 회선을 유지할 필요가 없고 기기를 버린 것도 지난해 12월"이라며 증거인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철웅 기자

윤 대통령 "네덜란드 ASML 방문, 반도체 동맹 전환점"

국빈 방문 앞두고 AFP 인터뷰

윤석열(얼굴) 대통령은 "반도체는 한국-네덜란드 협력관계의 중심축"이라며 "세계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은 양국 모두의 핵심 이익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하루 앞두고 10일 보도된 AF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반도체 협력은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ASML 방문은 '한국-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ASML은 초미세 공정에 필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기업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12일(현지시간) 외국 정상 중 최초로 ASML '클린룸'을 직접 둘러보고 내년에 출시될 최신 노광장비 생산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산업·기술·안보 측면에서 전략자산으로 부각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체계적인 제도적 틀이 마련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11~15일 한국의 유럽 제2 교역국이자 반도체 강국인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빌럼 알렉산더르 국왕 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및 왕궁 리셉션, 친교 오찬 및 국빈 만찬뿐 아니라 마르크 뤼터 총리와의 단독 면담 및 정부 오찬 등을 소화할 예정이다. 헤이그 리더잘에 있는 이준 열사 기념관도 찾는다.

현일훈 기자

한미일, 대북공조 강화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왼쪽부터)이 지난 9일 한·미·일 안보실장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국 안보실장은 북한 위협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1면 '트럼프 우위 여론'에서 이어집니다.

온라인 뉴스매체 메신저가 지난달 말부터 등록 유권자 2천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 47%·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40%라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다.

이 같은 현상은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에 대한 불안감뿐 아니라 직무수행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SJ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개인적인 삶에 도움이 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유권자는 23%에 불과했다.

53%의 유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자기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집권 시절 각종 정책이 내 삶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응답자는 49%에 달했다.

트럼프의 정책이 자기 삶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고 답한 유권자는 37%에 그쳤다.

경제와 인플레이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어떤 후보가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와 정치 문화 분야에서만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워싱턴 날씨 (°F)

12월 11일(월) 47~28

12일(화)	49~32	15일(금)	52~36
13일(수)	47~29	16일(토)	53~36
14일(목)	43~29	17일(일)	53~37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MAX EXECUTIVES
12001 Lee Jackson Memorial Hwy, 2nd Fl Fairfax, VA 22033 (T. 703-318-0067)
벤돈 메트로 옆 타운홈 특점 RENT $2,850/m 방3, 화장실2½, 차고2, 새 부엌, 그리나잇,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헤이마켓 콘도 특점 $440,000 Under Contract End Unit!!!
그레이트폴스 싱글홈 $1,500,000 SOLD 방4, 화장실 차고3 1에이커, 멋진 골로니얼!

단 10초면 따뜻해지는
닥터스 탄소사 매트
20년 경험의 의료기기 제조 전문 회사에서 만든 신소재 제품! 국내 관련 특허 29개의 한국 제품!
60,000 가닥의 100% 탄소 실로 만들어낸 국내 최초의 탄소사 초슬림 온열 매트!!
매트 안에 구리 열선이 없이 탄소사만을 열선으로 사용하여 가볍고 안전하고 배김 없이 따뜻함이 최고!!!
#1 2021 CSBA 탄소매트 부분 소비자 만족 브랜드 대상 1위 (중앙일보 브랜드 시상식)
PATENTED 의료기기 전문회사 관련특허 29개 특허받은 리얼 탄소사
(탄소사 특허: 제10-1675321호)
▶ 탄소 매트 → 5단계 온도 조절, 3단계 안심 타이머, 자동 온도 OFF 센서 (원터치 LED 컨트롤)
▶ 전자파 (전기장+자기장) 완전 차단 (EMF 인증서 받음)
▶ 원적외선 테스트 결과, 국내 (한국) 매트에서 최대 90.3% 원적외선 방출
▶ 온돌방의 개운함 → 원적외선으로 세균을 없애고 혈액순환 증진시켜 만성피로, 성인병 예방에 도움 (한국 원적외선 협회 검증 완료)
▶ 사이즈 → 싱글 매트, 퀸 매트, 스몰 패드 (3종류)
4세대 탄소사 매트로 추운 겨울, 따뜻한 아침을 시작하세요!!
압도적 초경량 / 전자파 완벽차단 / 걱정없는 워셔블 / 얇아서 간편한 수납
Product Review
★★★★★ 5
sara**** 23.10.25
사이즈: 더블 / 컬러: 라이트 그레이
프리 볼트로 해외 가져가려고 세 개째 구매합니다. 너무 따뜻하고 전자파 안 나온다니 믿고 구매 했어요.
★★★★★ 5
polo**** 23.10.02
사이즈: 슈퍼 싱글 / 컬러: 라이트 그레이
두 번째 구매입니다. 제일 좋은 점은 아침 기상 시 찌뿌둥함이 없다는 거예요. 얇아서 침대에 올려도 부드럽고 이질감이 없고 빨 수 있다는 거, 금방 따뜻해진다는 거, 한가지 더 말하자면 2단계 온도 정도만 되어도 잘 때 기분 좋은 따뜻함이라 여름 빼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Drs CARESYS
7300 Maple Pl. #200, Annandale, VA 22003
(703) 798-7270

“인·의·예·지 갖춘 인성교육 실행”

WAKS, ‘제 35회 교사의 밤’ 행사 성료

재미한국학교워싱턴지역협의회(WAKS, 회장 정광미) 주최 ‘제 35회 교사의 밤’ 행사가 9일 와싱톤중앙장로교회(담임목사 류응렬) 다목적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한 해동안 차세대 한국어 교육에 헌신한 교사들을 위한 감사의 시간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우수교사 시상식과 감사패 증정, 교사 장기자랑, 경품추첨 등의 다양한 순서로 진행되며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류응렬 목사는 개회기도에서 “교사들의 한민족 문화와 성경적 가르침으로 차세대들이 아름다운 역사를 잘 계승하고 하나님의 자녀 다운 기품으로 세상에 견고하게 서는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정광미 회장은 “35주년이 되기까지 다음세대 뿌리교육을 위해 희생해 온 선배들과 후원자들이 있어 오늘에 이르렀다”며 “한민족의 인성 교육까지 감당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은 학생들에게 산 교육이 되어 차세대 리더가 되는 중요한 표본이 된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 행사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워싱턴통합한국학교 VA캠퍼스 한연성 교장은 “교육을 통해 사람을 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생님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독립투사이며, 선교사”라고 말했다. 이청영 이사장은 “인(仁)의(義)예(禮)지(智)를 갖춘 네가지 덕성을 갖춘 올바른 인성교육을 실행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전효정 홍보의 진행으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김선화 전회장과 한연성 교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26명의 교사들이 5년 이상 장기 근속 교사상을 받았다. 더불어 10년 이상 근속 교사에게 수여하는 최우수 교사상의 올 해 주인공에는 임수진(빌립보), 남궁신(벧엘) 교사가 선정됐다.

최우수교사상을 수상한 남궁신(왼쪽 두번째), 임수진(왼쪽 세번째) 씨

임수진 교사는 독창적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 수업에 활용하며 컨텐츠 강의를 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남궁신 교사는 저학년 학생들의 기초 실력을 다지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행사는 WAKS와 학교소개 영상 시청에 이어 축하공연 무대 및 탤런트쇼, 레크레이션, 경품추첨 시간을 가지며 교사들의 일년간의 노고를 치하하는 유익한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주미대사관의 강병구 교육관과 강경탁 워싱턴한국교육원장이 참석해 ‘35회 교사의 밤’ 행사를 축하했다.

김윤미 기자

‘상록대학 합창단’이 공연을 펼치고 있다.

“행복 부른 시니어 합창단의 열정”

상록대학 합창단 공연 성황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메릴랜드 상록회(회장 이광운) 부설 ‘상록대학 합창단’의 노랫소리는, 그들이 이날 함께 부른 ‘행복’이라는 곡 가사의 소절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고, 진솔하며 청아했다. 9일 오후 메릴랜드 락빌 소재 ‘세계로 교회’에 모인 200여명 청중들은 그들의 목소리에 함께 행복했다.

워싱턴 최초의 한인 시니어 혼성 합창단 ‘상록대학 합창단(지휘 이낭우, 반주 이성미)’은 ‘세상 끝까지 함께 노래하자’는 주제로 그들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무대에서 선보였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혼성합창, 남-녀 중창, 관악4중주(혼 허인수, 트럼펫 황규섭, 트롬본 이종관, 트럼펫 이찬희) 등 순서를 펼쳐 프로 못지 않은 실력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이날 모인 청중들 중 합창단의 가족과 지인들은 큰 소리로 환호하며 공연을 즐겼다. 그렇게, 아들, 손주, 며느리들에게 선사한 합창단원들의 목소리는 한없이 자애롭고, 아름다웠다.

박세용 기자

성 김 전 주한 미 대사 현대차 자문역에 위촉

현대자동차가 미국 정통 외교관 출신 성 김(사진) 전 주한미국대사를 자문역으로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성 김 전 대사는 최근까지 미국 주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겸직 수행한 정통 외교관이다. 국무부 한국과장(2006년), 6자회담 수석대표 겸 대북특사(2008년) 등을 거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주한미국대사 등을 역임한 ‘한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 실무회담 대표단을 이끌기도 했다. 국무부 은퇴 후 내년 1월 현대차에 합류할 계획이다.

성 김 전 대사는 현대차그룹의 해외 시장 전략, 글로벌 통상·정책 대응 전략, 대외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 블록화 등 불확실성이 고조된 경영 환경에서 신시장 진출 등 주요 경영 현안을 풀어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임주리 기자

동원그룹, 스타키스트 신임 CEO에 최영조 CFO 선임

동원그룹은 미국 계열사 스타키스트(Starkist) 신임 최고경영자(CEO)에 최영조(사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최 신임 CEO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맨체스터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수료했으며 한국·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스타키스트 CFO로 영입된 최 CEO는 딜로이트를 거쳐 테스코(TESCO)에서 아시아 내부감사팀장과 재무기획 본부장을 지낸 뒤 SPC그룹의 미주 법인장과 글로벌 CFO로 재직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미국 내 소비 침체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최 CEO가 경영 효율화를 통해 스타키스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키스트는 미국 가공 참치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지난 2008년 동원그룹에 피인수된 지 반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 현재 연 매출 1조원을 거두는 핵심 계열사로 자리 잡았다.

한인 OC 판사 임용 준 안 법원커미셔너

개빈 뉴섬 주지사가 한인 법조인을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판사로 임용했다.

주지사실은 준 안(June Jee An·사진)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커미셔너를 해당 법원 판사로 임용한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LA법원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OC 법원에서 각각 연구 법관으로 일해온 안 판사는 2022년부터 커미셔너로 일해왔다. 그는 UCLA를 졸업하고 로욜라법대를 마쳤으며 2003년 변호사 시험을 통과했다.

최인성 기자

납치 및 성폭행 혐의 40대 한인남성 체포

뉴욕시경(NYPD)이 지난 6일 공개수배했던 플러싱 한인 노래방 인근 성범죄 사건의 용의자 한인 남성 박명(40·사진)이 검거됐다.

8일 NYPD는 퀸즈 베이사이드에서 박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시경 관계자는 이날 검거된 인물이 앞서 공개수배한 박씨와 동일인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일 오전 5시 15분께 노던불러바드 161스트리트 H노래방 건너편 식당 인근에 서있던 43세 아시안 여성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골목으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범행 당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시경은 박씨에 대해 납치 및 성범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사건이 일어난 곳은 한인이 밀집해 있으며 룸살롱 등 유흥상점이 모인 곳이다. 새벽 시간대 유동인구는 적다. 시경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인 지난 5일 인근 H노래방을 찾아 폐쇄회로 TV(CCTV) 영상 화면을 제공받았다.

H노래방 관계자는 "뉴욕시경이 사건 설명을 해주지 않았다. 인근에 주취자가 많은 곳이라 폭행사건이 일어난 건가 추측했다"며 "우리 손님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민혜 기자

송강호 회고전 개막 7일 아카데미영화박물관에서 송강호의 주요 작품 13편을 상영하는 회고전이 개막했다. 박물관은 오는 7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 기간 2020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인 '기생충'(2019)을 비롯해 '사도'(2015), '공동경비구역 JSA'(2000), '박쥐'(2009), '택시운전사'(2017), '반칙왕'(2000), '괴물'(2006), '살인의 추억'(2003), '밀양'(2007) 등 송강호의 대표작을 상영한다. 첫날인 7일 박물관을 방문한 송강호 배우가 팬들에게 사인해주고 있다. [연합]

한인타운서 위장결혼 영주권 사기

LA한인타운 윌셔가에 사무실을 차리고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 사기를 벌인 이들이 기소됐다. 연방 검찰은 사기 주범과 공범들이 이민자 최소 600명 이상을 모집해 결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LA한인타운 소재 한 업체가 주도한 결혼 영주권 사기 수사 결과 지난주까지 10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결혼 영주권 사기(marriage fraud) 혐의가 적용돼 징역 최대 5년형과 벌금 25만 달러 선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번 대규모 결혼 영주권 사기 전말은 매사추세츠주 거주 이민자 등의 신고로 이뤄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LA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와 카탈리나 스트리트 인근의 빌딩에 입주한 '캐리어 에드 매니지먼트(CAM LLC)'사 대표와 직원들이 영주권이 필요한 이민자와 돈이 필요한 시민권자를 모집해 결혼 영주권 사기를 벌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2016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이민자 최소 600명 이상의 결혼 영주권 청원서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이민자 상당수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당 업체 대표 마르시알리토 베니테즈(49)를 체포해 지난해 4월 기소했다. 필리핀 국적인 베니테즈는 지난 9월 결혼 사기 및 이민서류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베니테즈에게 고용돼 일했던 필리핀계 직원 잉길버트 울란(53)도 결혼 영주권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베니테즈는 결혼 영주권 사기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했다. 그가 고용한 직원들은 영주권 취득을 원하는 이민자와 돈이 필요한 시민권자를 모집해 USCIS에 결혼 영주권 청원서 등을 제출했다. 베니테즈와 직원들은 USCIS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가짜 결혼식과 결혼사진 촬영 등도 진행했다.

또한 이들은 영주권을 받은 이민자가 시민권자 배우자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신고하도록 조장했다고 한다. 이후 시민권자 배우자를 상대로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하고, 피해를 주장한 이민자는 가정폭력 방지법(VAWA)에 근거 시민권자 배우자 도움 없이 영주권을 유지하도록 조장했다.

한편 검찰은 해당 업체에 결혼 영주권을 의뢰한 이들은 대부분 브라질 국적 이민자로 해당 업체에 1인당 2만 5000달러에서 3만 달러를 냈다고 전했다. 베니테즈와 직원들은 이 중 1만 5000달러 이상을 챙겼고, 혼인신고에 서명한 시민권자에게는 1700달러 정도를 대가로 지불했다.

김형재 기자

'클린 미트'로 주목받던 대체육 "첨가제 범벅 가짜고기" 비판론도

미국 뉴욕의 한 마트에서 파는 비욘드미트의 대체육 패티와 소시지. [AP=연합뉴스]

기후 위기와 식량 부족을 극복할 '클린 미트'로 주목받던 대체육이 탄소 배출량 감축이 확인되지 않는 식품계의 '그린 워싱(Green Washing, 위장 환경주의)'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부 국가에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기존 농업 시스템을 망친다며 규제 도입에 나서고 있다.

대체육은 콩·채소 등 식물을 가공해 고기 맛을 내는 '가짜 패티'와, 동물에서 세포를 채취해 실험실에서 키우는 '재배육'으로 나뉜다. 이중 재배육은 동물 세포를 배양액 속에서 키운 뒤 콩 등 식물성 단백질을 첨가하고 조미 등 가공을 거쳐 3D 프린팅으로 고기와 같은 모양과 질감을 구현한다.

이탈리아 하원은 지난달 17일 재배육의 생산·판매·수출입을 금지하는 '대체육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대체육 개발을 기후 위기의 대안이자 신성장 산업으로 보고 수년간 예산을 지원한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과 상반된 입장이다.

앞서 미국은 싱가포르(2020년)에 이어 지난 6월 재배육의 상업적 판매를 승인했다. 그런데 지난달 텝 피셔 미 상원의원(공화당·네브래스카)은 재배육의 포장에 '모방'이라는 단어를 표시하라는 내용의 '진짜 고기법'을 발의했다.

대체육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으로 전환하자는 취지로 개발됐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축산 농가는 매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8%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내뿜는다. 대체육 전환을 주장하는 환경단체 리프프로젝트는 "육식 위주 식단의 1인당 하루 온실가스 배출량은 10.47kg으로, 채식(2.47kg)의 세 배가 넘는다"고 강조했다. FAO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고서에서 "대체육이 육류보다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빌 게이츠, 영화배우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등 유명인의 투자가 이어지며 대체육 산업은 급속히 성장했다.

그러나 대체육 시장은 최근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은 "고기 없이 고기의 맛과 식감·모양을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첨가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화학적으로 정제된 코코넛 오일과 팜유를 다량 투입해 고기의 부드러운 맛을, 화학첨가제인 메틸셀룰로스로 고기 특유의 씹는 느낌을, 유전자조작 콩에서 추출한 효모 추출물인 레그헤모글로빈으로 육즙까지 만들어낸다.

미국 버클리대 대체육연구소는 BBC에 "축산업에서 얻는 일반 고기와 같은 양의 재배육을 실험실에서 배양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면서 "재배육이 일반 고기보다 이산화탄소를 4~25배 더 배출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바코드 바꿔치기' 기프트카드 신종사기 기승

연말연시 쇼핑시즌에 기프트카드 사기가 기승을 부려 경찰 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최근에는 바코드를 바꿔치기해 충전된 돈을 탈취하는 신종 수법까지 나타났다.

북가주 새크라멘토카운티셰리프국(SAC셰리프)은 '베드 엘프 작전(Operation Bad Elf)'으로 명명된 단속을 시행하면서 주 전역에서 수천개의 위조된 기프트카드를 적발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에는 진열대에 놓인 기프트카드에 가짜 바코드를 부착하고 카드에 든 돈을 가로채 가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비영리 소비자보호단체 '기업개선협회(Better Business Bureau·BBB)'의 다니엘 스티너는 "고객이 계산할 때 캐시어가 카드의 바코드를 통해 고객이 말한 금액을 충전시켜주는데, 돈은 고객이 들고 있는 카드가 아니라 사실상 범죄자들에게 가는 것"이라며 "고객이 카드를 사용하는 순간 돈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SAC셰리프국은 최근 주 전역 12개 카운티, 54개의 소매점에서 조직적인 사기 범죄조직에 의해 위조된 5739개의 기프트카드를 발견하고 회수했다.

장수아 기자

17세 한인, 최연소 검사임용 화제

"나는 역사상 최연소 캘리포니아 변호사 시험 합격자다."

피터 C 박(18)의 소셜미디어 자기소개는 이렇게 시작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지난 7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워싱턴포스트(WP)·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부터 영국 가디언까지 9일(현지시간) 피터 박의 스토리에 주목했다. 월반을 거듭해 13세 때 로스쿨에 진학한 그는 변호사 시험도 한 번의 시도 만에 독학으로 합격했다. 이후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부(副)검사로 재직 중이다.

WP는 "또래가 아직 8학년(중학생)일 때, 피터 박은 로스쿨에 들어갔다"며 "변호사 시험에 단번에 합격함으로써 또래보다 10년 앞선 삶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18세에 현역 법조인이 된 한국계 미국인"(가디언) 등의 기사도 쏟아졌다.

피터 박은 보도자료를 내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힘든 과정을 이겨낼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나 변호사가 되는 방법과 나이는 다양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법조인을 꿈꾼 건 아니었다고 한다. WP는 아버지, 박병주 씨의 역할이 컸다고 전했다. 특허 관련 일을 하는 아버지가 어느 날 '21세 변호사 시험 합격자'라는 기사를 보고, "우리 아들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검사 임용 선서하는 피터 박(오른쪽) 캘리포니아주 최연소 변호사 시험 합격자.

[사진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 페이스북]

생각을 떠올려 권유했다는 것. 피터 박은 WP에 "처음엔 솔직히 법 지식이 '제로'였기 때문에 무서웠다"며 "법조인으로 가질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을 열게 됐다"고 전했다. 미국 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과정을 이수한 이들에게 수험 자격이 주어진다. 그가 17세에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였다. 관심사는 기술과 경영, 형법 등이다. 그는 WP에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엮어내는 조직과 같은 것으로 모든 이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며 "법조인으로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그에겐 멘토가 한 명 있었으니,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이다. WP가 그에게 "밤에 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데도, 또래보다 앞서 법조인이 되는 데 속도를 낸 이유가 뭐냐"고 묻자, 그는 방에 걸린 링컨의 사진을 가리켰다고 한다. 링컨은 중동부 켄터키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변호사가 됐다. 피터 박은 WP에 "수학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도 법학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주변에선 "10대는 놀기도 해야 한다"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한다고 한다. 그는 WP에 "사람들이 재미와 즐거움을 좇아가지만 나는 대신 로스쿨을 다니며 많은 경험을 쌓은 것"이라고 말했다.

피터 박은 검사로 선서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고 한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을 터다. 그는 WP에 "앞으로 갈 길이 멀다"며 "17세인 나에게 기회를 준 검찰에 감사하며, 이제 나의 가치를 법정에서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전수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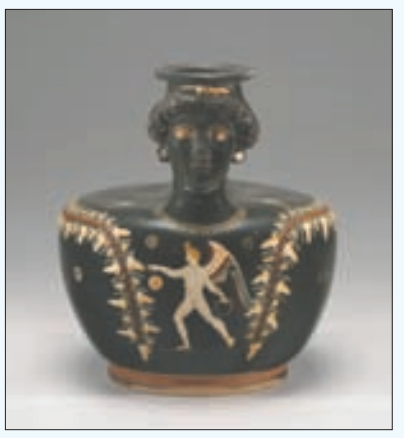
VA 미술관 약탈문화재 44점 반환

버지니아 미술관(VMFA)이 해외 약탈 문화재 44점을 반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치몬드에 위치한 VMFA는 주정부 산하기관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소장품을 보유한 미술관으로 정평이 높다. VFMA는 연방국토안보부, 버지니아 주립경찰국 등과 함께 약탈 혹은 도난 사실이 명백한 문화재를 검증하는 작업을 벌여왔으며 1차적으로 확인된 44점의 반환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반환 문화재는 뉴욕 맨하탄지역 연방검찰청으로 보낸 후 이탈리아, 이집트, 터키 등 원 소유국으로 일괄 발환할 예정이다. 이들 문화재는 주로 1천년 이상된 고대 유물로 알려졌다.

고대 에스트리아 전사의 청동상이 대표적이다. 이 청동상은 1963년 이탈리아 볼로냐의 한 고고학 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20년 후 경매를 거쳐 VMFA가 소장하게 됐다.



대부분의 반환 문화재는 국제적인 박물관 전문털이 조직이나 약탈 문화재 밀매조직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왔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에는 공개적인 경매절차를 거친 것도 있다.

이들 문화재는 대부분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 사이 미국으로 건너온 것으로, 약식 감정가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미 기자

소셜 미디어 당첨 사기 극성

FTC 경고, 수많은 피해자 양산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각종 경품과 복권 추첨 행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부분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년 이후 사기피해를 당했다며 FTC에 신고한 국민 4명 중 1명 꼴로, 소셜 미디어에 의한 사기를 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단체 NACA의 아이라 레인골드 변호사는 "누가 다가와서 1천달러 복권에 당첨됐다고 말한다면 경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말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속는다"고 밝혔다.

FTC는 이메일이나 디렉트 메시지 중 의심되는 것은 아예 링크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품을 준다고 속이는 글의 링크 속에 랜섬웨어가 숨겨져 있어, 클릭을 하는 순간 각종 신용정보가 범죄 일당에게 넘어가게 된다.

경품과 복권 당첨을 이유로 노골적으로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일도 잦다. 이러한 사기 과정에서 크레딧 카드와 은행계좌 정보가 통째로 넘어가 엄청난 피해를 양산하게 된다.

FTC는 많은 사람들이 범죄 일당의 사기 수법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상황에 닥쳤을 때 중심을 잃고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김윤미 기자

DC 범죄센터 만들어 실시간 정보공유

워싱턴지역의 강력범죄가 급증해 통제 불능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지역 단위를 넘어서 광역 단위의 예방책이 등장하고 있다.

워싱턴DC 경찰국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알링턴 카운티, 메릴랜드 몽고메리,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국, 연방의회 경찰국, 메트로공사 경찰국, 연방비밀경호국(SS), 암트랙 경찰국 등 지역 경찰국의 범죄센터를 연계해 실시간 발생하는 범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 연방마샬국(USNS), 연방담배무기폭발물국(ATF)와도 연계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각 지역 센터가 공유하는 데이터는 각종 감시카메라 동영상과 긴급전화 등을 모두 포함한다.

바우저 시장은 "다면적인 범죄 억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면서 "범죄 발생율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우저 시장은 작년 초부터 모두 40여 차례나 범죄를 줄이겠다는 밝혀왔으나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옥채 기자

오타니 '10년 7억달러' 잭팟
"북미 최고 몸값 받고 다저스 간다"

메이저리그(MLB)에서 투타를 겸업하는 '수퍼스타' 오타니 쇼헤이(29)가 북미 프로스포츠 사상 최고액인 7억 달러에 LA 다저스행을 확정했다.

오타니는 10일(한국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나의 다음 소속팀으로 다저스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MLB닷컴과 ESPN을 비롯한 미국 스포츠 전문매체들도 일제히 "야구 역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자유계약선수(FA) 오타니가 다저스행을 직접 발표했다"며 "오타니는 10년 총액 7억 달러에 사인해 북미 스포츠 역사상 장 큰 규모의 계약을 해냈다"고 전했다.

2018년 LA 에인절스와 계약해 미국으로 건너간 오타니는 세계 최고의 리그인 MLB에서 투수와 타자로 모두 성공을 거두면서 '이도류(二刀流)' 열풍을 일으켰다. 만화보다 더 만화 같은 오타니의 활약에 "역대 최고의 야구선수", "야구 그 자체", "인간이 아닌 외계인"이라는 찬사도 따라다녔다.

FA를 앞둔 올 시즌에는 특히 타자로 눈부신 활약을 했다. 지명타자로 135경기에 나서 타율 0.304, 홈런 44개, 95타점, 출루율 0.412, 장타율 0.654을 기록했다. 홈런·출루율·장타율은 아메리칸리그(AL) 1위였고, OPS(출루율+장타율·1.066)는 MLB 전체 1위였다. 투수로도 23경기에 선발 등판해 10승 5패, 평균자책점 3.14의 성적을 남겼다. 그 결과 오타니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 만장일치의 지지를 얻어 AL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6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오타니의 거취는 올 시즌 내내 MLB 최고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오타니가 시즌 막바지 팔꿈치를 다쳐 내년엔 지명타자로만 뛸 수 있게 됐는데도 주가는 떨어질 줄 몰랐다.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는 거의 매일 그의 행선지와 계약 규모를 전망하거나 협상 상황을 전하는 기사가 쏟아졌다. "오타니의 소속팀이 결정돼야 다른 FA들의 계약도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미국 언론들은 줄곧 "오타니가 MLB 역사상 처음으로 5억 달러 벽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실제 계약 규모는 그 예상을 뛰어넘는 7억달러짜리 '잭팟'이었다.

이전까지 역대 북미 프로스포츠 최고액 계약은 2020년 미국프로풋볼(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간판 쿼터백 패트릭 마홈스가 소속팀과 10년 연장 계약을 하면서 받은 4억 5000만달러였다. 또 MLB 역대 최고액 계약은 오타니의 팀 동료였던 마이크 트라우트가 2019년 소속팀 에인절스와의 계약을 연장하면서 사인한 12년 4억2650만 달러였다. 오타니는 트라우트보다 계약기간이 2년 짧은데도 금액은 2억5000만 달러 넘게 추월하는 새 역사를 썼다.

이뿐만 아니다. 오타니는 지난 시즌 AL MVP 자리를 내줬던 뉴욕 양키스 간판타자 에런 저지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FA 계약을 해냈다. 저지는 지난해 말 원 소속팀 뉴욕 양키스와 9년 총액 3억6000만달러에 사인하면서 역대 MLB FA 최고액 기록을 세웠다. 오타니는 1년 만에 이 기록도 훌쩍 넘어 '역대 가장 비싼 야구선수'로 우뚝 섰다.

바이든, 젤렌스키 백악관 전격 초청

의회에 예산승인 압박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전쟁 지원 예산안 처리가 교착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금주에 백악관에 전격 초청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변함없는 지원 약속을 강조하기 위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12일 백악관에 초청했다"고 발표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두 정상은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 두 차례에 걸쳐 백악관을 찾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 지도부 등과 면담한 바 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모두 1천60억달러 규모의 긴급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송부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백악관과 행정부는 추가 지원예산을 의회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연말에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고갈될 것임을 경고하며 연내 예산안 처리를 압박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여기에 반기를 들어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의 지원 예산 처리를 막아서자 최근 "푸틴이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기꺼이 주려 한다"며 "역사는 자유와 대의에 등을 돌리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의회에 예산 처리를 압박한 바 있다.

상원은 지난 6일 관련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 투표를 진행했지만, 공화당의 조직적 반대에다가 민주당 일부 의원들까지 가세하면서 부결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며 미국의 지원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고 있고, 이런 경향은 특히 공화당 지지층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퓨리서치가 미국의 성인 5천2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1%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도를 넘었다고 답했다.

특히 민주당 및 민주당 성향 무당층 가운데는 16%만이 우크라이나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본 반면, 공화당 및 공화당 지지층에서는 같은 응답이 48%에 달했다.

멕시코서 무장한 주민과 갱단 충돌

전국구 카르텔 지역 수장도 사망

멕시코 중부 지방에서 카르텔의 갈취와 폭력에 맞서서 무장한 주민들과 갱단원간 총격전이 벌어져 최소 14명이 사망했다.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일간지 엘우니베르살과 레포르마 등에 따르면 멕시코주 경찰은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 떨어진 텍스칼티틀란 마을에서 일어난 유혈 사태로 주민 3명과 갱단원 11명이 숨졌다고 전날 발표했다.

지난 8일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이번 사건은 악명 높은 전국구 카르텔인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조직원들이 농가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일정액의 상납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주민들로 구성된 자경단이 자신들을 찾아온 갱단원들에 맞서면서 총격전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소셜미디어에는 챙넓은 전통 모자(솜브레로)를 쓴 멕시코 주민들이 소총과 낫 등을 들고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뒤를 쫓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공유되기도 했다.

경찰은 사망자 중에 '엘 파사요'(광대)라는 별명을 가진 파밀리아 미초아카나 지역 수장, 리고베르토 데라 산차 산티얀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또 갱단원이 기르던 것으로 추정되는 원숭이(거미원숭이) 한 마리도 죽은 채 발견됐다. 이 원숭이는 작은 검은색 방탄조끼를 입고 흰색 기저귀를 차고 있었다고 엘피난시에로는 전했다.

94년 만에 좌파 후보로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집권당(국가재건운동) 소속 델피나 고메스 멕시코주 주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주민께 말씀드린다"며 "이와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토톨라판 시청사 등에 대한 총기 난사로 당시 시장을 포함해 20여명이 숨진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매카시 '트럼프 집권시 독재 우려'에 "동의 안 해

공화당 소속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입장을 밝힌 케빈 매카시(사진) 전 하원의장은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서 해야 할 일은 재건, 복구, 쇄신이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날 방송된 CBS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운동에서 '내가 여러분의 복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것(선거운동)이 복수에 대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카시 전 의장은 많은 미국 국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독재나 파시스트 출현을 우려한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보복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질문에는 "그는 그것을 멈출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회자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는데 당신이 말한 것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후속 질문에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변할(adapt)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복수를 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사회자의 계속되는 질문에 "우리는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있다"라고 상기하며 그럴 경우 의회를 비롯해 다른 조직에서 견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미국은 복수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면서 "나는 나 자신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조언하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미국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시 자신이 최적임자라면 내각에 입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친(親)트럼프인 매카시 전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의회에서의 탄핵 방어에 앞장서는 등 한때 트럼프 전 대통령 '호위무사'로 역할을 했다.

그는 2021년 1·6 의사당 폭동 사태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으나 사태 발생 3주 뒤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방문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 사실상 화해했다.

매카시 전 의장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정치적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당신이 방문해서 생명줄을 줬다. 그런 상황이 되면 다시 그렇게 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당신 의견"이라면서도 "언젠가 나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쓸 것"이라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prosperlaws.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 고려대학교 Biotechnology 졸업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 대학원
- Internship for ProteinOne's Lab at UMCP and MedLink Hospital in Washington D.C.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Certified in Gonstead System
- Certified in Gonstead Extremity Adjusting
- Certified Chiropractic Extremity Practitioner (C.C.E.P.)
- Fellow of International Academy of Medical Acupuncture (F.I.A.M.A.)
- Worked for Gwinnett Medical Back & Neck Pain Clinic in GA
- Licensed in Maryland with Physical Therapy Privileges
- Licensed in Viginia Board of Medicine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삐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임산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려, 치료에만 전념하실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락빌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코너에서 3분, 실버스프링 롯데 위트 한아름(H-mart)에서 10분 거리

센터빌/챈틀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아름(H-mart)과 챈틀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기시다 '비자금 스캔들' 아베파 각료·당간부 손절나선다

일본 정계를 뒤흔들고 있는 비자금 스캔들이 내각과 자민당 당직자들의 도미노 퇴진으로 번질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비자금 조성 의혹에 휩싸인 자민당 내 최대 파벌 '아베파' 출신 장관과 당 간부들을 대거 교체할 예정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아베파 의원 수십 명은 파벌의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에서 얻은 수익을 보고서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도 파벌 파티를 통해 1000만엔(약 9100만원)이 넘는 비자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마쓰노 장관을 교체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제산업상,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다카기 쓰요시(高木毅)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뜻을 굳혔다. 또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자민당 참의원(상원) 간사장 교체도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아베파 의원들이다. 기시다 총리는 당초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할 계획이었으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개각과 당 간부 교체를 서두르기로 했다. 인사는 이르면 연내 이뤄진다.

이번 스캔들은 정치학자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고베학원대학 교수가 자민당 내 5개 파벌이 정치자금 파티 관련 보고서에 모금액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일본 관련법에 따르면 각 파벌은 파티에서 20만엔(약 182만원)이 넘는 '파티권'을 구입한 개인과 단체의 이름·금액을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에 적어야 한다.

도쿄지검 특수부의 수사 과정에서 특히 아베파가 조직적으로 자금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매한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자금을 돌려주면서 이를 회계 처리에 공식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숨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이끈 아베파는 소속 의원이 99명에 이른다. 이어 아소파(56명), 모테기파(53명), 기시다파(47명), 니카이파(42명) 등이 뒤를 잇는다. 아베 전 총리 사망 후 구심점을 잃은 아베파가 비자금 스캔들로 존립 위기에 처했다고 일본 언론은 분석했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파 각료 배제를 통해 불똥이 정권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일 "내각의 중심인 관방장관 교체로 정권 운영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며,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총리에게도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최저 수준인 28.9%까지 떨어졌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EU "안면인식 제한" 세계 첫 AI 규제 합의…미국 빅테크 겨냥

미국 빅테크(정보기술 산업의 지배적인 기업)의 인공지능(AI)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지난 8일(현지시간) AI 기술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생체 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자율주행차 기업의 AI 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정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인공지능(AI) 기술규제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대표들.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 X 캡처]

10일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8일 'AI법(AI Act)'으로 알려진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챗GPT 등 민간 서비스부터 정부의 생체인식 정보 수집까지 모든 AI를 포괄하는 규제법으로는 세계 최초다.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타결안은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민주주의에 잠재적 위협을 미칠 수 있는 AI를 엄격히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정치·종교·인종 등 특성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폐쇄회로TV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사법당국의 테러 위협 예방,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일부 예외를 뒀다. AI를 이용한 '소셜 스코어링'(개인의 특성, 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로 점수를 매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기로 했다. 범용 AI(GPAI·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AI 모델)를 개발하는 기업은 AI 모델의 학습 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델 학습 방법과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보고 등이 포함된다. EU 저작권법 준수, AI 학습에 이용된 콘텐트 명시 등의 투명성 요건도 지켜야 한다. GPT-4와 같이 영향력이 크고 시스템적 위험이 있는 AI 모델은 더 강력한 규제 대상이다. 모델 평가, 위험성 평가와 완화, 심각한 사고에 대한 EU 집행위원회 보고, 에너지 효율성 보고 등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특히 자율주행 자동차나 의료장비 같은 고위험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은 AI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500만 유로(약 497억원) 또는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김남영 기자

베네치아 운하에 녹색염료 푼 기후시위대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운하. 기후활동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며 운하에 녹색염료를 푸는 시위를 벌였다. [AFP=연합뉴스]

가자 곳곳서 이·하마스 교전 격화…남부 추가 대피령속 대혼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 지상공격을 확대하는 가운데 가자 북부에서도 이스라엘군과 하마스의 교전이 급증했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미국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남부 중심도시 칸 유니스 도심에도 대피 명령을 내리고 지상 작전을 이어갔다.

이스라엘군은 98사단이 공군의 지원을 받아 칸 유니스에서 하마스와 전투를 계속했으며 공습 과정에서 모스크(이슬람 사원) 인근의 폭발물이 터졌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또한 다른 부대들도 남부 곳곳에서 하마스 지휘소와 터널 등을 공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칸 유니스 공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추가로 대피령을 내렸다.

로턴에 위치한 워크하우스 아트 센터

이스라엘 정부는 소셜미디어 엑스(X)에 아랍어로 칸 유니스 내 6개 블록을 강조한 지도를 올리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긴급 대피하라"고 말했다.

지도에 표시된 지역 가운데 도심 일부는 이번에 새로 대피령이 내려졌다.

가자지구 북부의 전투도 한층 격렬해지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가 가자지구 북부 자이툰 지역의 건물을 점령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공격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군인들이 골목길에서 총을 쏘는 모습이 담겼으며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징을 확인했다고 CNN은 전했다.

군 당국은 하마스가 "해당 지역에서 우리 군이 중앙 도로를 지나기를 기다려 매복 공격을 준비했다. 우리 군은 다른 골목을 통해 적을 측면에서 기습공격해 혼란에 빠뜨렸다"고 설명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도 이날 가자지구 북부의 자발리아 난민촌 서쪽에서 이스라엘군과 초근접거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자이툰에서도 교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가자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이 진전을 보인다고 말했다.

차히 하네그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재까지 하마스 대원 최소 7천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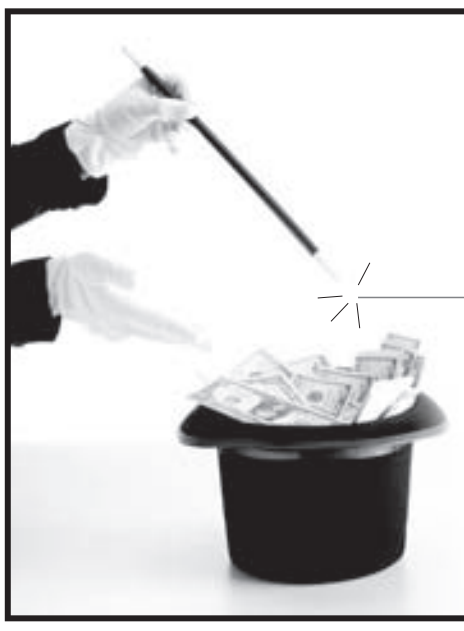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민간인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 교전이 격화하면서 병원과 구급차도 공격받고 있다고 현지 의료진들은 전했다.

알아우다 병원의 한 관리자는 이스라엘군이 전차로 병원을 포위하고 출입하려는 사람에 총격을 가해 거리에 있던 여성 한명과 건물 안 창가에 있던 병원 직원 한명이 숨졌다고 말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도 이날 카말 아드완 병원 안에서 의료진 2명이 이스라엘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다.

가자 중부 데이르알발라에서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모스크를 폭격하면서 근처에 있던 자파 병원도 피해를 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워싱턴중앙일보가 약속드립니다!
발행부수 · 광고효과 · 독자만족 1등 Tel. 703-281-9660

정관장 蔘 SINCE 1899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JUNG KWAN JANG

KGC 인삼공사

연말 최대

30%

할인

올 연말엔, 정관장으로
감사의 마음을 모두에게 전해보세요.
전하면 전할수록, 당신의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헐리웃 배우
아데인 조

정관장 연말 감사 프로모션

행사기간: ~ 12월 31일

홍삼100% 달임액 (지,양,절), 톤골드, 화애락 진

30% 할인

할인 행사와 중복 적용 불가

정관장 **전제품**

15% 할인

$250 구매 시, 일부 품목 제외

동인비 화장품 **전제품**

30% 할인

할인 행사와 중복 적용 불가

본 행사는정관장 멤버스 가입자 대상 한정 수량 진행되어 제품 소진시 조기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홍삼은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여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품 정관장 제품은 애난데일, 센터빌, 엘리콧시티 지점에서만 판매합니다.

애난데일 지점 703.642.1304 7326 Little River TPKE. #D,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지점 703.815.3434 13822 Braddock Road, #C,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지점 410.480.2304 9380 Baltimore Nat'l Pike, #109, Ellicott City, MD 21042

ups 무료배송

"전공의 1.4만명 증원" 미국선 의협이 요구

의대정원 늘린 국가

20년간 의대 정원 39% 늘렸지만
11년뒤 의사 최대 12만명 부족 예상
의회에 '전공의 지원법' 통과 촉구
외국 의사 비자 간소화도 요구

"미국에서는 모두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의과대학도, 의사협회도 전공의를 늘리는 것을 지지한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1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가는 가운데, 마이클 딜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인력연구 이사는 지난달 30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의사 부족 국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2023)에 따르면 미국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는 2.7명이다. 한국(2.6명)처럼 OECD 평균(3.7명)을 밑돈다. 미국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그동안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 왔다. 2002년 1만6488명이던 미국 의대 정원은 올해 2만2981명으로 39.4% 증가했고, 같은 기간 30여 개 의대가 신설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사는 부족하다. 고령화로 인한 수요 증가만큼 충분히 늘리지 못한 데다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현장을 떠나는 의사가 많아서다. AAMC는 2034년 최소 3만7800명, 최대 12만4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한다. AAMC가 앞장서 향후 7년간 1만4000명의 전공의 수련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공의 부족 해소법'의 의회 통과를 촉구하는 배경이다.

미국의사협회(AMA)도 같은 입장이다. 제시 에렌펠 AMA 회장은 지난 10월 대국민 연설문에서 "이미 수백만 명이 의사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 상황이 훨씬 더 악화할 것"이라며 "의사 부족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돌봐줄 의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에렌펠 회장은 전공의 수련 기회 확대, 외국 의사 비자 간소화 등을 요구했다. 둘 다 의사 증원의 핵심 대책이다. AMA는 다른 의사단체들과 함께 '전공의 1만4000명 증원 법안' 지지 성명도 발표한 바 있다.

마이클 딜 이사는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협 등 국내 의사단체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미국에서는 의사 부족에 모두가 동의한다"며 "의사 파업과 같은 강한 반대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선 "그런 주장은 대다수 의사가 비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둔 것인데, 그들은 정말 자신을 그렇게 과소평가하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마이클 딜 미 의대협회 이사 인터뷰

미국의과대학협회(AAMC)는 2000년대 중반 미국의 의대 정원 확대를 주도한 단체다. 마이클 딜(사진) AAMC 이사는 "지금은 전공의 확대가 급선무"라고 했다. 다음은 딜 이사와의 일문일답.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한 적이 있나.

"의사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AAMC는 지난 2006년 의대 입학 정원을 2002년 대비 30%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2018년 무렵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고, 그 이후로 요구한 적은 없다."

-지금은 무엇이 문제인가.

"의대 정원만큼 레지던트(전공의) 자리가 충분히 증가하지 않는다. 의대 정원과 졸업생이 아무리 늘어도 전공의가 늘지 않으면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는다. 전공의 숫자를 늘리는 게 시급한 문제다."

미국은 인건비 등 전공의 수련 비용(인당 연간 5만~7만 달러)의 70%가량을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메디케이드(한국식 의료급여)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연 150억 달러(약 20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이게 늘어야 전공의가 늘어나는 구조다. 하지만 미국은 균형예산법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투입할 수 있는 연방정부 예산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1997~2002년 전공의가 0.1% 증가하는 데 그쳤고, 이후에도 미미하게 늘면서 매년 수천 명의 전공의 지원자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대 정원은 누가 결정하나.

"대학이 자발적으로 결정한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노력으로 정해진다. 일부 주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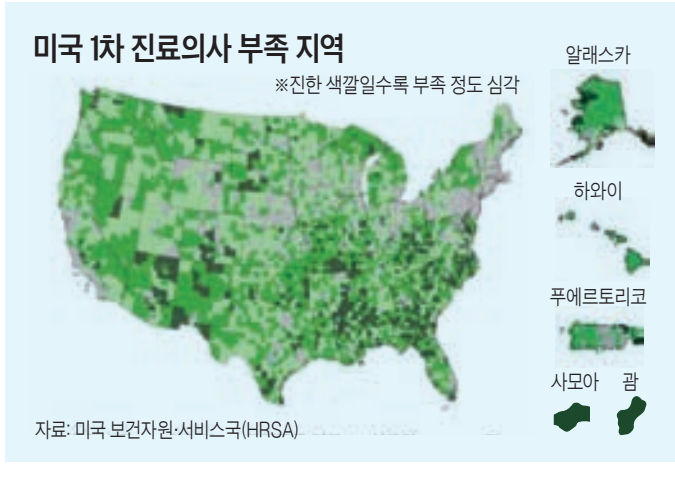
-의사들이 의사 확대에 집단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적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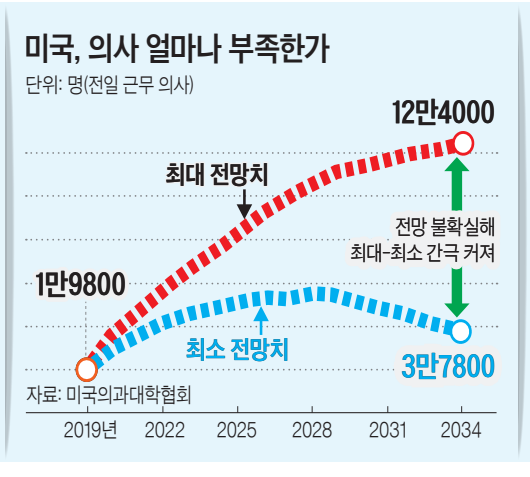
"과거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확실히 아니다. 의사단체를 포함해 모두가 진정으로 의사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한국 의사들은 의사 부족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수익 감소를 걱정해 공급을 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냉소적인 시각이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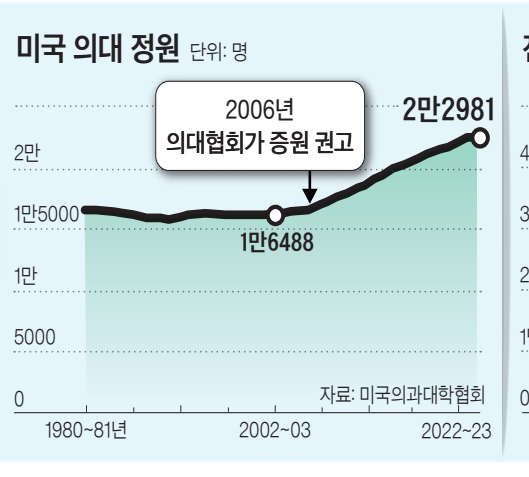
-한국 의사협회는 '의사가 늘면 의료비가 증가한다'고 우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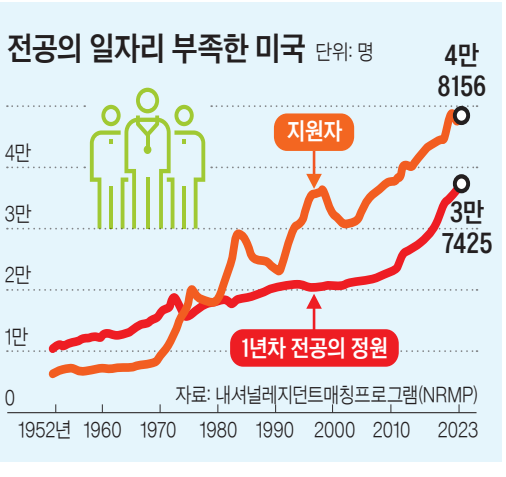
"미국에서도 비슷한 문제에 대해 우려한 적이 있지만, 큰 이슈가 아니었다. 어떤 치료가 진짜 필요한 치료인지, 과잉진료인지는 주관적인 영역이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결국 의사의 직업윤리에 달린 문제다. 한국 의협의 주장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불필요한 치료를 강요할 것이라는 뜻인지 궁금하다."

남수현 기자









미 의료취약지서 근무 땐, 장학금 주고 학자금 대출 갚아준다

미국의 지역의사 부족 해소법
취약지 근무한 외국인엔 영주권
"경제적 보상 등으로 의료인력 유인"

지역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한국만의 얘기는 아니다. 미국 역시 대도시에서 먼 시골 지역일수록 의사가 부족하다.

미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HRSA)에 따르면 미국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2000만 명이 '1차 진료의 부족 지역'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촌 지역의 약 65%가 1차 진료의 부족 지역으로 분류됐다.

그나마 미국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지역의료 공백을 메워왔다. 대표적인 게 1972년 도입된 '국가 보건의료 지원단(NHSC)' 프로그램이다. 의료취약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게 골자다. 최대 4년간 장학금을 받는 대신 장학금 수여 기간만큼 시골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식이다.

대출 상환 프로그램을 택하면 초기 2년간 근무 시 최대 5만 달러(약 66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며, 이후에도 근무를 지속하면 전체를 상환받을 수도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2011~2020년 총 4만8000여 명이 NHSC 프로그램을 통해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상환 혜택을 받았다. 이 제도 지원을 받은 의사에게 치료받은 환자는 2021년 기준 2360만 명에 달했다. 마이클 딜 미국의과대학협회(AAMC) 인력연구 이사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는 여러 의료 인력을 취약지에서 일하도록 하는 데 매우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2010년 도입된 '보건소 전공의 수련(THCGME)' 프로그램도 효과를 봤다. 병원이 아닌 지역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전공의 수련을 연방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HRSA는 2023~2024학년도에 81개소의 지역사회 기반 의료기관에 총 1억7500만 달러(약 2310억원)를 지급해 전공의 1096명의 수련을 지원한다. 지난해 기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공의에게 치료받은 환자는 79만2000명이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을 마친 전공의 60% 정도가 의료 소외 지역에 남아 미국 보험청(CMS) 예산을 최대 18억 달러(2조3760억원) 절감하는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가령 '콘래드 30' 법안은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등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3월엔 정부가 수련 비용을 지원해 향후 7년간 1만4000명의 전공의를 늘린다는 내용의 '전공의 부족 해소법'이 발의됐다.

남수현 기자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센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척추 디스크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ar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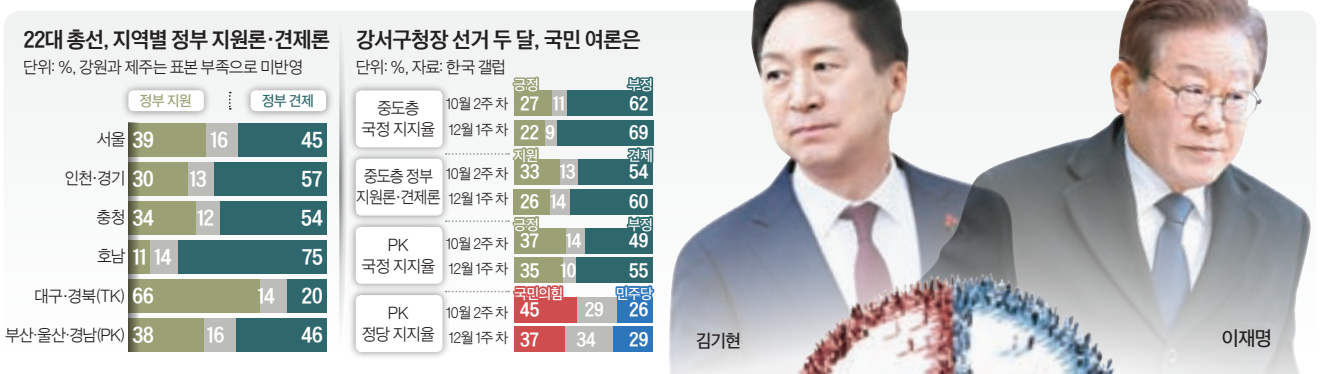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PK마저 흔들, 혁신위는 빈손엔딩 … 겹악재 여당 총체적 위기

» 1면 '총선'에서 계속



10·11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압승한 지 두 달 만에 더불어민주당은 '승자의 저주'를 우려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중도층을 향한 확장 노력에 힘쓰는 대신 총선 200석 압승론과 거듭된 막말까지 이재명 대표 중심의 강성 지지층에 갇혀 악수만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벌써 내년 4·10 총선 승리에 취한 듯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이 잇따른다. 당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6일 세종시당 행사에서 내년 총선 전망과 관련해 "민주당이 1당을 빼앗길 것 같지는 않다"며 "과반이냐 아니면 지난번 총선처럼 180석을 차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번에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는데 이 중 50~60개만 먹어도 (수도권 외에 84석을 합하면) 140석이 되고,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되는 것"이라고 계산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70개만 먹어도 제가 보기에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이 전 대표의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떠올리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무리 총선이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진다고 하지만 현재 168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으로선 '거야의 오만 프레임' 역시 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동영 상임고문도 지난달 1일 KBC 광주방송에 출연해 "수도권 120몇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다"고 했고, 이탄희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우리 당 최대 목표는 국민의힘을 100석 이하로 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막말 리스크'도 동시에 불거졌다. "동물농장에도 암컷들이 나와서 설치고 이러는 것은 잘 없다"는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당 지도부는 '당원 자격 6개월 정지'란 비상징계를 내렸지만 지난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발급한 허위 인턴확인서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피선거권이 2년 제한된 그에겐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을 받았다.

전국 시·도당에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란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지시해 '청년 비하' 논란을 벌인 것도 오만한 거야의 현주소였다. 민주당 일각에선 "말로는 민생을 외쳤지만, 남은 건 이 대표 독주 프레임과 설화뿐"이라고 자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노선을 수정하긴커녕 '이재명 사당화'의 가속 페달만 밟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일 중앙위원회에서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개딸' 권리당원의 투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대표 체제를 총선 이후에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명계에선 "전당대회 룰은 총선 뒤에 해도 된다. 마음 급한 이 대표의 체제 굳히기 시도"라고 반발했다.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욕설문자 폭탄, 막말 시위를 벌여 온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스스로 만든 '개딸' 용어를 폐기하고 "앞으로 '개딸' 명칭을 쓴 언론사에 정정보도 청구를 해 달라"고 당에 청원하기도 했다. 이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 '명튜브'라고 자신을 소개한 청원자는 지난 9일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상대 진영의 프레임 선동을 참지 못해 '개딸'이란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의원들에게도 '개딸' 명칭을 쓰지 말아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청원은 10일 오후까지 1600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으로 '개딸'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자 서둘러 용어 폐기에 나선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온다.

위문희 기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작지 않다. 최근의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서도 초선 의원은 "인사를 통해 변화를 보여야 하는데 국민이 '정부가 변했다'고 받아들일지 의문"이라며 "승진 인사가 대부분이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폭력 전과 논란까지 불거져 오히려 악수가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검사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것도 야권이 주장하는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할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다.

여기에 여권 안팎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이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표결 때 이탈표를 막기 위해 늦춰질 수 있다는 설까지 돌자 국민의힘이 진화에 나섰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0일 공지를 통해 "특검법 등 원내 상황 등으로 공관위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소문 자체가 도는 게 당에 좋지 않다"는 시선이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 당의 리더십이 취약해 이런저런 설이 도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준영·전민구 기자

이재명 사당화 가속 … "개딸로 부르지 말라" 청원도 등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인 '명튜브'가 지난 9일 당 국민응답센터에 "'개딸' 명칭을 파기한다. '민주당원'으로 정정보도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민주당 홈페이지]

문재인 전 대통령 "대화 중단해 북핵 발전" … 여당 "지독한 짝사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고도화가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10일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핵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저서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핵 발전을 촉진해 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마다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고도 했다. 서평 형식이었지만,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정부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한영혜 기자

정성웅 보험을 선택하는 이유

자동차 보험료 할인!!

"야외활동이 많이 줄어든 요즘
운행거리도 많지 않은데,
자동차 보험료는
너무 높아 속상하셨지요 ?"

"운행거리 만큼
보험료를 내세요~
자동차 보험료를
대폭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정성웅 보험

{ 나에게 꼭 맞는 알뜰한 자동차 보험료를
지금 확인하세요~! }

정성웅 보험 | T. 703.825.2945 Fax. 703.532.4750
14641 Lee Hwy., Unit 108, Centreville, VA 20121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

이낙연 "이준석, 때 되면 만날 것" 이준석 "준비돼 있다"

여야에서 각각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서로 "만나자"는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이 연대할 경우 총선 판도를 흔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뉴스1, 뉴시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며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과 관련해 여권 비주류인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 전 대표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능과 부패로 대한민국을 망가트리고 있는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거기에서 탈출할 것인가의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며 "만만치 않은 문제라 (여러 사람과) 뜻을 모으고 의지를 굳건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와의 지난 8일 인터뷰에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다.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대 가능성과 관련해 "함께하지 않을 대상을 먼저 정하는 식으로 생각하진 않고 있다"며 "세대나 출신이나 이런 것으로 편을 가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이준석 전 대표도 이날 디지털 타임스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두든 아니든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서 얘기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민주당 쪽 인사들은 잘 모르지만 같이할 분이 있다면 (같이할 수도 있다), 제가 요즘 인연이 없던 분을 많이 만나고 다닌다"고 화답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창당 시점에 관해 "언론이 관심 갖지 못할 정도의 세세한 실무적인 일들을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다"며 "늦지 않게"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9일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서도 "대한민국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불가피하다고 확신하게 됐고, 그것을 위한 준비는 막 시작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자 민주당 내 비명(이재명)계 의원들도 '세 과시'에 나섰다.

이원욱(3선), 김종민·조응천(재선), 윤영찬(초선) 의원 등 4명이 출범한 '원칙과 상식'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 측 추산 약 1500명의 지지자와 함께 '국민과 함께 토크쇼'를 열었다.

김종민 의원은 토크쇼에서 한 당원이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자 "내년엔 우리 '총선'이라는 경기장에 입장해야 한다"며 "그 전까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고 그때도 안 되면 우리 길을 가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영찬 의원도 "12월까진 민주당을 지키는 시간"이라면서도 "그 이후에 (지지자와 우리들의) 마음이 이어져서 만나는 순간이 생긴다면 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원욱 의원은 '당에서 공천을 보장해 준다면 지금처럼 혁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며 "아까 한 참가자분이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너(이 대표)다'라고 했다. 저는 너(이 대표) 밑에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도 이들의 발언에 "문제의식과 충정에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총선 실무를 담당하는 한 의원은 "의원 평가 하위 10%에 들어간 비명계 의원들이 이낙연 전 대표를 따라간다면 신당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사무총장이 먼저 나서 이들을 수시로 만나고 통합을 위해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정재 기자

GOP 근무 소위 연봉 5000만원 〈2027년까지 인상〉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른다

군 경계부대의 소위 연봉이 2027년까지 약 5000만원으로 인상되는 등 초급간부 보수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른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전체 초급간부의 20%인 군 경계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28~30%,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최전방 감시초소(GP)·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소위 연봉은 기본급, 수당, 당직 근무비를 포함해 현재 3856만원에서 4990만원으로 30% 오른다. 하사의 경우 3817만원에서 4904만원으로 29% 인상을 계획 중이다. 또 일반부대 소위와 하사는 각각 3393만원에서 3910만원으로 15%, 3296만원에서 3761만원으로 14% 인상된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월간 57시간으로 제한된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 시간과 특수지 수당 등을 늘릴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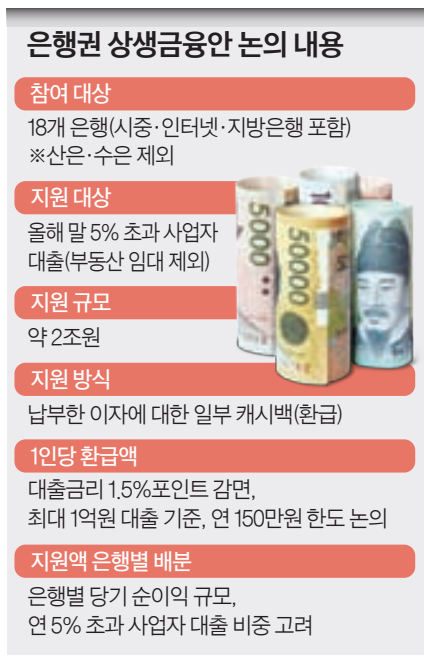
또 조종사와 사이버 전문인력, 군의관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간부의 경우 인력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급여를 보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26년까지 모든 간부 숙소를 1인 1실로 바꾸고 세탁기·인덕션 등 비품을 실별로 지원해 청년세대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을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또 간부 가족들이 거주하는 관사를 4인 기준 28평형에서 32평형으로 넓힐 방침이다. 2027년까지 군 어린이집 21개소를 신·증축하고 군 자녀 온라인 학습과 장학금 지원 대상도 각각 1500명에서 3200명, 4000명에서 4100명으로 확대한다. 이번 계획은 초급간부 확보와 이탈 방지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에서 나왔다.

이근평 기자

대출금리 5% 넘는 자영업자, 이자 150만원 〈최대〉 돌려받을 듯

은행권, 소상공인 등 지원안 논의
캐시백으로 납부 이자 환급 검토
2조 규모… 은행별 지원액 추후 결정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상생금융안)으로 연 5%가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총 이자 감면금액은 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은행권은 은행별 지원금액 배분에 대한 이견 조율을 거쳐 연내 상생금융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이자율이 연 5%를 넘는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1년 한시로 '이자 캐시백(납부한 이자를 다시 돌려주는 것)' 방식으로 상생금융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자는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금융 당국은 "코로나19 종료 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높아진 이자 부담을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은행권에 요청했다. 이자 부담 경감 방안으로는 대출 재약정을 통해 금리를 낮추거나 한시적으로 이자 캐시백을 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하지만 대출 재약정을 통해 역(逆)마진이 생길 때까지 이자를 낮출 경우 배임 등의 소지가 있어, 이자 캐시백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자 캐시백은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일정 기간 후 은행이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 이자를 돌려받는 것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면 이자의 지급 시점은 연말에 한 번에 돌려받는 방식이 있지만, 한 달이나 분기 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자 감면 규모는 1인당 평균 1.5%포인트 이상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금리가 높을수록 이자 감면율도 높이는 차등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연 6% 금리 대출보다 연 10% 대출에 대해 금리를 더 깎아주는 방식이다. 다만, 감면 규모에 상한은 두기로 했다. 상한이 없으면 대출 규모가 큰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1억원에 대해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돌려주는 방안을 여러 안 중에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럴 경우 이자 감면을 적용하는 대출액은 1인당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되고, 이자 캐시백 절대 규모도 최대 150만원을 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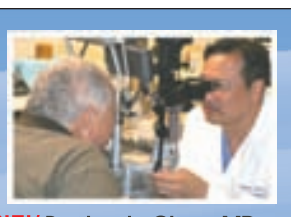
구체적인 1인당 지원 규모는 은행별로 얼마의 재원으로 이자 감면을 지원할지 배분한 뒤, 대출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계산을 해봐야 확정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이 없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시중은행·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이 모두 2조원 정도를 이자 감면에 지원하기로 하고 배분 방식을 논의 중이다.

김남준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져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반대 0표 … 김범수 '브러더 경영' 또 도마에

〈최근 5년 카카오 이사회〉

안팎서 시끄러운 카카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는데 만사가 브러더(brother, 형제)라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브러더 경영'은 카카오의 위기마다 등장하는 키워드다. 본사·자회사 가릴 것 없이 요직과 중책에 김 창업자 자신과 인연이 있는 서울대 산업공학과·삼성SDS·한게임·네이버 출신을 기용하는 일이 많다.

2021년 카카오페이 대표의 스톡옵션 먹튀부터 올해 SM엔터 시세조종 수사까지 그동안 IT 업계에선 김 창업자와 주요 계열사 대표들이 브러더십(brothership)으로 뭉쳐 서로의 문제점을 묵인하거나 간과하고, 김 창업자와의 관계에 기대는 사내 정치가 심하다는 평가들이 나왔다.

카카오는 최근 경영진의 잇따른 실책에 쇄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안으로는 경영쇄신위원회를, 밖으론 외부 감시기구(준법과 신뢰 위원회)를 꾸리며 변화 의지를 보였다. 김 창업자는 직접 경영쇄신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고, 김소영 전 대법관에게 감시기구 위원장을 맡겼다.

그런데 사태 수습을 위해 부른 해결사가 또 김 창업자의 30년 지기다. 그는 내부 비리 의혹 제기와 폭언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온 관계자는 "위기의 본질은 '김범수 창업자와 친구들'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내놓은 해법이 창업자의 30년 지기였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카카오 이사회는 무엇을 한 걸까. 상법 393조에 따라 주식회사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한다. 즉 회사의 주요 경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창업자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카카오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을 포함한 구성원 과반수가 사외이사다.

하지만 중앙일보가 최근 5년간(2018~2022년, 2023년은 상반기 기준) 카카오의 사업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카카오 이사회는 총 77차례에 걸쳐 237개 안건을 논의했는데 모두 100% 찬성(해당 없음, 불참, 의결권 제한 등 제외)으로 가결됐다. 검찰 수사를 야기한 올해 SM엔터 공개매수도 마찬가지였다.

핵심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모빌리티도 사정은 비슷했다. 카카오페이(2021~2022년, 2023년 상반기)의 경우 33차례에 걸쳐 87개 안건을 논의했는데 반대표는 0건. 2022년부터 사업보고서를 공개한 카카오모빌리티(2022년, 2023년 상반기)는 21차례 이사회에서 65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역시 반대표 없이 100% 가결이었다. 조명현(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원장)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와 특별한 인연이 없고, '정말 이 사람은 제대로 말할 수 있겠다'는 이사들로 채워야 이사회의 독립성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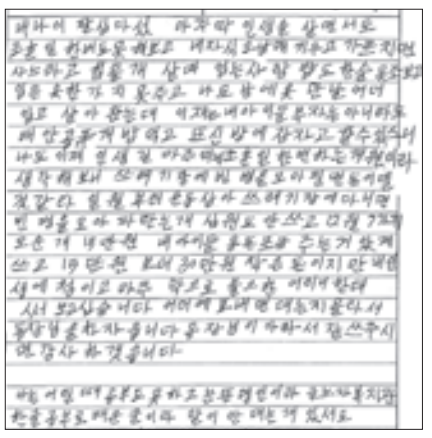
카카오가 대기업이 된 이후 합류한 직원들 사이에선 '카카오스러움'으로 통하는 의사결정 체계가 문제를 키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하는 기존 조직 문화의 장점을 체급에 맞게 진화시킬 경영 역량이 부족했단 의미다. 익명을 요청한 카카오 직원(재직 기간 3년)은 "스타트업 시절 '과잉 민주화'된 구조가 거대 대기업이 된 지금까지 우상처럼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의사결정 방식은 전직 대표와 창업자 간 대형 소송을 낳은 원인이 됐다.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의 성과급 소송이 그렇다. 올해 SM엔터 공개매수와 관련해 카카오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카카오의 '비공식 기구'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논의됐다는 사실을 (금감원이)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카오의 숙제는 의사결정의 거버넌스를 제대로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창업자는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본사에서 임직원과 간담회를 한다. 김 창업자가 직원들과 직접 대화에 나선 것은 2년여 만이다.

박민제·김인경·김남영 기자

"마주막에 조훈 일…" 85세 할머니 꾹꾹 눌러 쓴 기부편지



이필희 할머니가 지난 5일 경북 옥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달한 자필 편지. [사진 안동시청]

1년간 빈병 팔아 모은 30만원 기부

꼬박 1년간 쓰레기장에서 빈 병을 주워 팔아 모은 돈을 기부한 80대 할머니의 자필 편지가 화제다. 10일 경북 안동시에 따르면 이필희(85) 할머니는 지난 5일 서툰 글씨로 꾹꾹 눌러 쓴 편지 한 통과 30만원을 들고 옥동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할머니는 "자식 다섯 다 키웠으니 좋은 일 한 번 해보는 게 소원"이라며 30만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뜻을 전했다.

할머니는 편지에서 "입든 옷 한 가지 못주고 나도 남에 옷 만날 어더입고 살아완는대 이재는 내 아이들 부자는 아니라도 배 안곱푸개(안고프게) 밥 먹고 뜨신 방에 잠자고 할 수 있스니 인생길 마주막에 조훈 일 한번 하는 개 원이라 생각했다"고 적었다. 군데군데 맞춤법이 틀린 그러나 정성이 가득한 편지는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네티즌들은 "30억보다 귀한 할머니의 30만원"이라며 관심을 표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엄마와 다퉜다"…60대 친모 머리 때려 숨지게 한 30대 아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10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밤 경기도 안양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 B씨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방에 쓰러져 있던 B씨는 이튿날인 이날 오전 집에 온 남편 C씨에게 발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C씨와의 전화 통화에서 "엄마와 다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났던 A씨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 살해 고의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15년 미숙아 가정 도운 최은경 '재난구호' 수억 기부한 이제훈

2008년 가족기금을 조성해 15년간 미숙아(이른둥이) 가정에 2억원이 넘는 치료비를 기부한 방송인 최은경씨가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을 받는다. 재난 구호에 수억원을 쾌척한 배우 이제훈씨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 '제3회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 시상식을 열고 최씨와 이씨 등에게 표창을 수여한다고 10일 밝혔다.

대통령 표창에는 30년간 저소득 아동들을 후원한 ㈜디에스케이 황종석 대표와, 임직원이 에너지 취약계층을 도와온 ㈜GS칼텍스가 선정됐다.

국무총리 표창은 최씨를 비롯해 18년간 난치병 아동 소원 들어주기 등 소외계층 지원을 해온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어린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 활동을 벌여온 ㈜한화손해보험이 받는다.

행안부 장관 표창은 기부 공로를 인정받은 이씨와 스켈레톤 전 국가대표 윤성빈씨, ㈜대우건설 등이 선정됐다.

방송인 최은경씨(왼쪽), 배우 이제훈씨. [인스타그램, 뉴스1]

㈔희망의 러브하우스는 한국자선단체협의회 이사장상을 받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주최하고 한국자선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착한 기부자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 실천에 앞장선 개인과 단체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제정됐다.

정혜정 기자

신성재 변호사

교통사고 / 개인파산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지니스 관련 민사 소송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우리말 바루기

너무 멀음(?)

다음 중 '멀다'의 명사형은?

㉠멈 ㉡멀음 ㉢멂

문법적인 용어로 '명사형 어미'라는 것이 있다. 문장에서 용언의 어간에 붙어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어미를 가리킨다. 대표적으로 '-ㅁ' '-음' '-기'가 있다.

이 가운데 '먹기' '말하기' '잠자기' 등처럼 '-기'가 붙는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다. '-ㅁ'이나 '-음'이 붙는 경우에 헷갈리는 요소가 발생한다. 문제의 ㉠처럼 '멀다'의 명사형을 '멈'이라 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과 같이 '멀음'이라 표기하는 경우도 많다. 그럼 이 둘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을까? 둘 다 맞는 표기가 아니다.

정답은 '㉢멂'이다. '멈'이나 '멀음'에 익숙하다 보니 '멂'이란 표기가 어색해 보이는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무언가 복잡하고 거칠어 보인다. 그러나 어간의 마지막 받침이 'ㄹ'로 끝나면 'ㄹ'을 탈락시키지 않고 'ㅁ'을 붙이기 때문에 'ㅀ' 형태인 '멂'이 된다. '힘들다→힘듦' '만들다→만듦'도 마찬가지다.

'멂'과 같은 형태인 '앎'과 '삶' 역시 '암' '삼'이나 '알음' '살음'으로 표기하기 일쑤다. '멈' '암' '삼' 등은 정확한 표기보다 빠른 전달을 우선시하는 문자메시지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다. '멀음' '알음' '살음' 등은 두 글자로 더욱 리듬감이 있어 사용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추측되기도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 · 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재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잃어버린 겨울

이명렬

며칠 전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달리며 켜 놓은 한인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에 많은 눈이 내렸고, 기온도 영하 6도까지 내려가는 추운 날씨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뉴스를 접하며 머릿속에 '잃어버린 겨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50년 넘게 LA의 기후에 젖어 살다 보니 겨울은 조금 춥고, 가끔 비가 오는 계절로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뉴스를 통해 잊고 있던 한국의 추운 겨울을 기억할 수 있었다.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내년 4월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내용이 많다. 한국도 미국처럼 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연방)의원 공천과정과 의원 수를 정하는 방법은 양국이 서로 다르다.

미국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이 있으며, 상원과 하원 후보는 해당 주의 당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 결정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구에 민주당 후보가 3명이 나왔다면 당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구의 민주당 당원들이 투표를 통해 후보를 뽑는다. 물론 최종 선출은 상원은 각 주에서, 그리고 하원은 각 지역구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된다.

한국은 각 당에서 선거 공천 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결정한다. 현역 국회의원이라도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면 선거에 나서기가 어렵다. 즉,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공천을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은 탈당 후 무소속으로 나서거나 당을 만들어 출마하는 경우도 있다.

의원 수를 보면 미국의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총 100명으로 구성되고, 부통령이 의장을 맡는다. 임기는 6년으로 상원 선거는 2년마다 50개 주의 3분의 1씩 새로 선출한다.

하원 의원 숫자는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정해지며 워싱턴 DC의 3명을 합해 총 438명이다. 임기는 2년. 전체 연방의원 수는 상원과 하원을 합쳐 538명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현재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명과 정당 지지 투표에 따라 정해지는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이다. 한국은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이나 비례대표로 된 의원이나 업무의 구분이 없다. 미국과 비교하여 행정단위나 인구비례로 본다면 300명이라는 한국의 국회의원 숫자는 많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의 연방 상원과 하원은 각각 독립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각 주를 대표하는 상원은 법률 및 정책 결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대통령의 임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요 조약의 비준, 대법원 판사 임명 승인, 대통령 탄핵 심판 등 특별한 권한을 행사한다.

하원은 세제와 예산 등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정부의 예산안은 반드시 하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세금과 경제 정책 결정 등에서 국민을 대표한다.

입법 절차에는 두 의회의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에서 시작된다. 하원 재적의원 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상원으로 넘기고 상원에서는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 즉 67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통과된다.

미국은 출마를 원하는 주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야 연방의원 출마 자격이 있다. 그 기간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가주는 1년 이상, 플로리다주와 미시간주는 6개월 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에는 후보자가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 이로 인해 본인의 주거지도 아니고 연고도 없는 생면부지의 지역구에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 주민들은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생각할까?

'잃어버린 겨울'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국회(연방)의원 선거의 차이점까지 떠올랐다. 고속도로를 벗어나니 푸르름을 잃은 앙상한 가로수들이 길 양편에 서 있다. 올해 달력도 마지막 장만 남아 있다.

J네트워크

'피크 차이나' 다시 불거지나

유상철
한국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일본 노무라증권은 중국 가계의 초과 저축을 무려 7200억 달러로 추산한다. 눈여겨볼 건 중국 당국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말 중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등 6개국에 대해 1년 한시의 비자 면제 조치를 밝혔다. 그도 그럴 게 지난 상반기 중국을 찾은 외국인은 약 50만 명. 2019년 1400만 명보다 96%가 줄었다.

주중 미 대사관에 따르면 현재 중국 유학 중인 미국인은 350명. 2019년 1만1000명보다 97%가 감소했다. 중국 공항이 썰렁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이런 가운데 글로벌 투자사 록펠러 인터내셔널의 루치르 샤르마 회장이 중국의 세계 속 GDP 비중이 2021년 18.4%에서 올해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 화제다. 중국은 1990년 1.7%를 바닥으로 지난 30여 년간 그 비중을 계속 확대해 왔다.

2010년 일본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선 이후 미국 추월이 시간문제로 꼽혀왔다. 한데 이제 33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 속 중국 GDP 비중이 줄게 됐다. 연초 유행한 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피크 차이나' 논란이 다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우리는 0.15%포인트 동반 하락한다고 한다. 추운 겨울을 맞은 중국 경제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낙관도 비관도 금물이다. 중국 경제 상황에 대한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연말이다.

방법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신분 문제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문가만이 귀하의 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모르거나 잘못 해석하여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미국이민의 큰 꿈을 접어야 하는
기막힌 사연 또한 많습니다.

항상 저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그리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이민 문제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복잡한 이민법, 오직 이민법만을 고집하는
이재운 변호사가 함께 하겠습니다.

Jaewoon Lee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 소속 • Attorney At Law
J.D. (법학박사) • Jaewoon Lee & Associates, LLC

이민생활에서 궁금한 모든 사항을 다양한 시각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재운 이민 전문 변호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Text, myattorney to 703-916-1111
" Text 로 이민상담 신청하세요! "

주요업무

◆취업이민 영주권 (EB2/EB3)
◆취업 비자 (H1-B)
◆종교 비자 (R1)
◆종교 특별 영주권 (R1/I-360)
◆투자/교역 비자 (E1/E2)

◆학생 비자 (F1)
◆주재원 비자 (L1)
◆시민권 신청 (N-400)
◆가족 초청 이민
◆결혼 이민
◆추방유예 (DACA)

◆ 사면준비
◆ 이민국 인터뷰
◆ 세계 각국 미 대사관 업무
◆ 기각된 서류 항소 및 재심사 요청
◆ 이민국 노동청 감사 답변
◆ 비자 연장 및 신분 변경

www.jaewoonlaw.com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Jaewoon Lee & Associates, LLC
T. 703-916-1111 / 703-916-1215
Fax. 703-563-6028
E-mail : lee@jaelaw.com
770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502, Annandale, VA 22003 (예촌 길건너편)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최신형 X-Ray 완비/교정 및 물리치료/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ra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ASK미국 온·오프 정보센터

ASK미국 정보센터는 각 분야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온.오프라인 상담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민, 법률, 세금, 복지, 교육, 부동산, 보험 등 전문지식부터 자동차, 집수리, 컴퓨터, 여행 등의 미국생활까지 전문가와 상담 하세요. ▶온라인 상담 http://ask.koreadaily.com

지나 김
교육/대학입시 전문

Q 온라인 칼리지의 장단점

▶문= 온라인 칼리지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답= 미국에는 2만 3000개가 넘는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이 있다. 온라인 칼리지는 대면 수업을 받지 않고 100% 인터넷 수업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프로그램이다.

온라인 클래스라고 해도 수업 시간은 대면 수업과 같으며 커리큘럼과 교과 내용, 과제물도 대동소이하다. 공부하는 시간에도 차이가 없다. 일부 강좌의 경우 매주 정해진 시간에 학생들이 온라인에 접속해 라이브 강의를 듣도록 요구한다. 어떤 클래스는 라이브 강의를 제공하지 않고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해 녹화된 강의를 듣거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대면 수업 위주든 온라인이든 학비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전체적인 비용은 온라인 칼리지가 훨씬 적게 든다.

온라인 칼리지는 학생이 집에서 차를 타고 학교에 가거나 캠퍼스에 거주하며 룸&보드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또한 디지털 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교과서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아마도 온라인 칼리지의 가장 큰 매력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 학위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학위를 취득하게 도와준다. 스케줄이 문제가 된다면 정해진 시간에 라이브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되는 클래스 위주로 공부할 수도 있다. 여름방학이나 할러데이 기간에도 부담 없이 강의를 듣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전통적인 강의실에서 학생들은 교수의 가르침만 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학생들과 교류를 나누면서 활발한 토론도 할 수 있다. 온라인 칼리지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메시지 보드가 있어도 학생들이 얼굴도 모르는 다른 학생과 의견을 나누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혼자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다. 이런 학생은 온라인 칼리지가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요즘 많은 명문대들도 경쟁적으로 온라인 학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렇다고 모든 프로그램 수준이 똑같지는 않다. 온라인 칼리지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 과정이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프로그램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일부 고용주는 온라인 학위 취득자를 반기지 않는다. 훗날 학위 취득 후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구직활동 도중 고용주에게 온라인 학위 취득 배경을 설명해야 할지도 모른다.

데이비드 리
레몬법 변호사

Q 리콜 차량의 레몬법 보상

▶문= 소유하고 있는 차에 리콜이 많았다. 리콜이 많은 것도 레몬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나?

▶답=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리콜 문제가 있는 경우 자격이 된다.

예를 들어, 혼다는 몇 년 전에 오디세이의 도어 래치에 문제가 있어 리콜을 실시했다. 내 의뢰인은 리콜의 일부인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차량이 리콜된 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이 경우 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리콜 과정이 있어서 그의 주장은 더 강력해졌다. 다만, 리콜 통지만 받고 차에 문제가 없었다면 승소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리콜을 받았지만 차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차를 운전할 때 평소와 다른 것을 보고, 느끼거나, 들을 수 있는지 각별히 살펴보아야 한다.

JD 파워와 컨수머 리포트에 따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새 차량에 대한 불만 중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다. 자동차는 좋아지고 있지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엄청난 신뢰성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 마커의 전체 점수를 끌어내리고 있다고 자동차 전문가들은 말한다.

인터넷에 연결하고, 전화를 걸고, 차 안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첨단 기능들을 위해 많은 운전자들은 수천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장치들이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가 크다. 대표적인 문제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느리고 반응이 없는 터치스크린, 정지되거나 꺼지는 화면, 음성 명령이 작동하지 않음, 블루투스 연결 문제, 긴 로딩 시간, 블루투스 스트리밍으로 음질이 좋지 않음, 춥거나 더운 날씨에 발생하는 성능 저하, 잘못된 목적지로 이동, 시스템이 다운될 때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음.

소비자들은 고장이 생겼을 경우 대리점을 방문하게 된다. 하지만 시스템을 다시 프로그래밍하고 교체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캘리포니아 레몬법은 소비자가 이러한 유형의 문제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법률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체가 변호사 비용을 책임지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은 없다.

이동찬
이민/비자 변호사

Q 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멕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멕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3년 현재 29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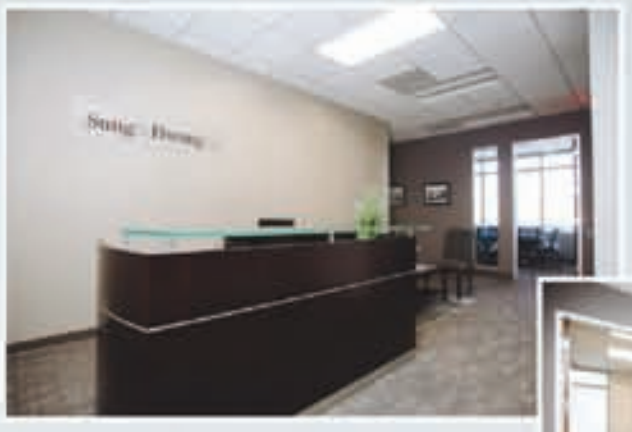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Sung Hwang&Kim

합동 법률 사무소 MD, DC, VA



VIRGINIA OFFICE

7353 McWhorter Place, Suite 202
Annandale, VA 22003

MARYLAND OFFICE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한인들의 모든 법률문제를 해결해 드리는것이 저희 로펌의 목표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후회없는 선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month
고문 변호사
membership program

- **완벽한 영어**와 **풍부한 재판 경험**으로 법정에서 자신있게 여러분을 변호합니다.
-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할 경우 변호사 비용 무료**
- **첫상담 무료** (특정분야 제외)

주요 업무 분야

- 교통사고 보험청구/의료비/수리비 /휴직 보상
- 민사소송
- 비지니스 설립/매매/분쟁
- 사업체 고문변호사 제도
- 보험
- 손해배상
- 의료사고
- 부동산 매매/Lease/분쟁
- Liquor License

한국 비지니스 오너들을 대표해서 FOX NEWS, CNN 인터뷰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킴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Kim LLP
www.shkfirm.com

RISING STARS Peter K. Hwang SuperLawyers.com
Super Lawyers Peter K. Hwang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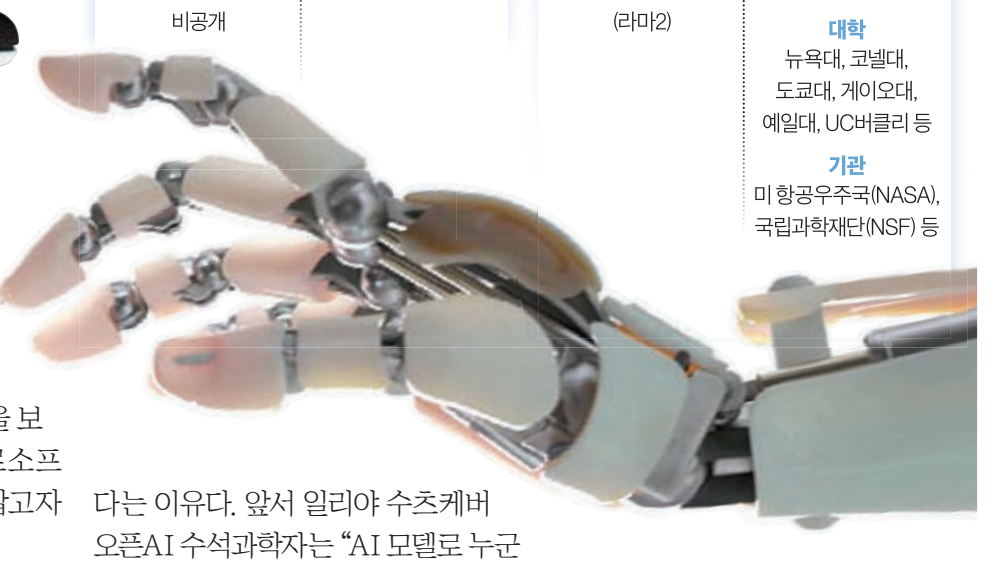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 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 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 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읍니다.
t.(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구글 '제미나이' 전격 공개 … 챗GPT에 반격



폐쇄 vs 개방으로 나뉜 AI 업계

폐쇄 진영 대표주자

오픈AI	구글
GPT-3까지 파라미터(매개변수)·학습 데이터 등 공개했으나 챗GPT 발표 이후 비공개	PaLM2·제미나이 세부 기술정보 비공개

개방 진영 대표주자

메타	AI 동맹
대형언어모델(LLM) '라마(LLaMA)' '라마2' 공개 오픈소스로 상업적 이용 가능 (라마2)	**기업** 메타 외 IBM·AMD·델·인텔·오라클·허깅페이스·레드햇·스태빌리티AI·소니 등 **대학** 뉴욕대, 코넬대, 도쿄대, 게이오대, 예일대, UC버클리 등 **기관** 미 항공우주국(NASA), 국립과학재단(NSF) 등

초거대AI 개발 경쟁 본격화

오픈AI·구글 등 인공지능(AI) 선발주자가 기술 빗장을 걸어 잠그자, 업계 후발주자가 한데 뭉쳤다. 서로 동맹을 맺고 기술을 개방해 선발주자를 맹추격한다는 전략이다.

5일(현지시간) 메타·IBM을 비롯해 50개 이상의 AI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AI 동맹(AI Alliance)'이 출범했다. 이들은 기술을 무료로 공유하는 오픈소스(open-source)에 뿌리를 두고 '개방형 혁신'에 나설 계획이다. 다리오 길 IBM 수석부사장은 "지난 1년간 AI에 대한 논의는 생태계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해 불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8월부터 '오픈AI' 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기업을 모아 동맹을 결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동맹은 AI 소프트웨어(SW)·모델·도구 전반에 걸쳐 개방형 기술을 구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동맹에는 산학연이 고루 이름을 올렸다. 우선 인텔·AMD·오라클 등 미국의 반도체·IT 대기업을 비롯해 스태빌리티AI·허깅페이스 등 생성 AI 스타트업도 참여한다. 예일대·코넬대·도쿄대 등 유수의 대학과 항공우주국(NASA)·국립과학재단(NSF) 등 미국 정부기관도 동참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참여 기업에 대해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에 쏠리는 관심을 따라잡고자 고군분투 중인 기업"이라고 했다.

AI 생태계는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다. 챗GPT 열풍을 주도한 오픈AI가 압도적인 선두에 있지만, 이를 따라잡기 위한 주도권 경쟁도 치열하다. 특히 기술 연구·개발을 두고는 '폐쇄 대(對) 개방' 두 개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 동맹으로 개방 진영의 전선이 크게 확대되면 오픈소스의 '메기 효과'가 시장 구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CEO 축출' 사태로 혼란을 겪은 오픈AI로선 새로운 변수가 생긴 셈이다.

오픈AI는 GPT-4 등 최신 거대언어모델(LLM)의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폐쇄 진영은 비영리 연구 목적인 경우 외에는 기반 기술을 공개하지 않는다. AI 기술을 함부로 공유·개방하면 악용될 수 있어 인류가 위험해진다는 이유다. 앞서 일리야 수츠케버 오픈AI 수석과학자는 "AI 모델로 누군가 (악용하면)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오픈소스는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기술·시장 주도권을 지키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이기도 하다. LLM 개발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노하우를 외부에 공짜로 알려주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AI 개방 진영은 "공유해야 더 안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진영의 대표주자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이다. 지난 2월 자체 개발한 LLM '라마(LLaMA)'의 소스코드를 연구 목적에 한해 무료 개방하면서, 틈새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후 라마를 활용해 만든 새 LLM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만든 '알파카', 이미지 생성 AI로 유명한 스태빌리티AI의 '스테이블LM'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7월 공개한 '라마2'는 상업적 활용도 전면 허용했다.

한편 6일 구글은 차세대 LLM '제미나이(Gemini)'를 전격 공개했다. 당초 비(非)영어권 언어에 대한 제미나이의 답변이 미흡해 출시를 내년으로 미뤘다는 보도들이 나왔으나, 예상을 뒤엎고 깜짝 공개에 나선 것이다. 구글은 지난 4월 구글브레인·딥마인드를 합병해 구글 딥마인드로 통합하고, GPT-4 대항마 격인 제미나이를 개발해왔다. 바둑AI '알파고'의 아버지로 유명한 데미스 하사비스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 구글의 자체 챗봇 '바드(Bard)'에는 내년 초 울트라 모델이 적용될 전망이다.

김인경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310-B
Annandale, 22003

정성웅 보험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703.825.2945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contractor.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무료 지붕 수리 및 교체 보험 처리 전문)
Storm Damage ← Free Inspection
703-835-0945

대형교통사고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 와이스틴 & 손 로펌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 나셨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후 구속되는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ABC 채널 NEWS 방영
노승훈 변호사가 법정서 변론한다.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로버트 케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전직 검사 노승훈 Robinson S. Rown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병호사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알릭스 부시 Alexander Buch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abush@rowepllc.com
[보상금을 받지 못할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VA 703-887-1037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888-340-758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703-887-1037

미 고용 냉각 신호에 국채금리 뚝 … "시장 김칫국" 경고도

10월 구인건수 31개월 만에 최저
물가압박 낮아져 긴축 종료 기대감
10년물 금리 즉각 반응, 4.2% 아래로
"물가 아직 높아…시장 낙관론 과도"

미국 노동시장의 구인 규모가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힘을 더 보탰지만, 낙관론이 지나치다는 경계도 나온다.

미국 노동통계국이 지난 5일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지난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는 873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61만7000건 줄면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940만 건)에도 크게 못 미쳤다.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다. 노동자 1인당 빈 일자리 수도 지난해 2개에서 1.3개 수준으로 내려왔다. 구인 건수는 고용 지표의 선행 지표 격으로 여겨진다.

직장을 그만두는 자발적 퇴직자 수는 360만 명으로 전월과 크게 차이가 없었다. 자발적 퇴직률(전체 고용 대비 퇴직)은 2.3% 수준을 유지했다. 이직과 취업에 관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채용 사이트 인디드의 닉 벙커 분석가는 "노동시장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재균형(re-balancing)'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시장은 Fed가 통화 긴축을 종료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노동시장의 냉각은 Fed가 피벗(Pivot·통화정책 전환)을 택할 공간을 만든다. 스튜어트 폴 블룸버그이코노믹스 분석가는 "노동시장과 경제활동이 둔화하고,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이 당분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봤다.

이날 채권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4.2% 밑으로 떨어졌다.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5%대를 오갔던 지난 10월과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금리 인하 전망뿐만 아니라, 미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안전자산인 미 국채의 투자 수요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의 관심은 오는 8일 나올 11월 고용보고서에 있다. 여기서 노동시장 둔화가 확인되면 긴축 종료 전망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된다. 시장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5.25~5.5%)에 동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낙관론이 과도하다는 경고도 적지 않다.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그룹 수석 경제고문은 "투자자들이 Fed의 포워드 가이던스(사전 예고)를 무시하고, 금리 인하에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웨이리와 엘렉스 브레이저 전략가도 "금리 인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 지금 시장은 고금리와 큰 변동성이 특징"이라고 진단했다.

블룸버그는 "시장의 기대가 너무 멀리, 너무 빨리 갔는지에 대한 논쟁이 12월을 지배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이 잘못된 기대로 '베팅'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뉴욕증시는 최근 단기간에 빠르게 주가가 오르면서 고점 부담이 생긴 데다, 고용보고서를 확인하려는 숨 고르기를 했다.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하더라도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매파(통화 긴축 선호)적 발언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Fed의 목표치인 2%까지 낮아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지표가 다시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로이터는 지난 10월 이후 미 장기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내려온 점도 변수라고 봤다. 국채 금리가 낮아지면 Fed가 금융 여건을 조이기 위해 고금리 기조를 더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서지원 기자

미국 빼고 침체 경고등…유가 70달러 붕괴, 금값 역대 최고

중국 경기 둔화, 성장률 4% 전망
유로존 3분기 GDP 0.1% 역성장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국제유가가 급락하고, 안전자산인 금값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미국 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경기 전망이 나오면서 오히려 연착륙 기대감을 키웠다.

지난 6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4.1% 하락하며, 배럴 당 69.3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WTI 선물 가격이 배럴 당 70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7월 3일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날 내년 1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배럴 당 74.3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70달러 중반까지 가격이 내려갔다.

한때 배럴 당 90달러를 넘어섰던 국제유가가 하락한 표면적인 이유는 추가 감산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다. 최근 주요 산유국 협의체 OPEC 플러스(+)는 예상보다 약한 추가 감산안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의구심을 키웠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소비국인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국제유가를 끌어내렸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9.4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떨어졌다. PMI가 50 이하면 해당 분야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지난 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는 중국 연평균 국내총생산(GDP) 변화율이 2024~2025년 4%, 2026~2030년간 3.8%로 점차 떨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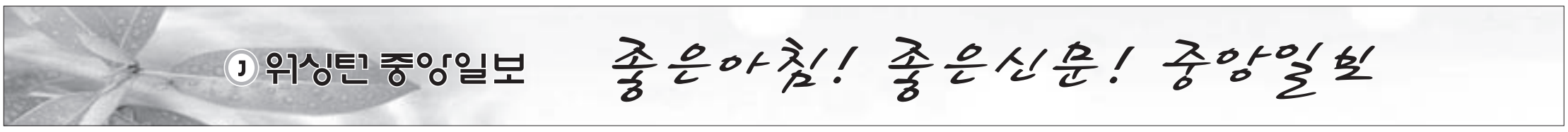
유럽도 침체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올해 3분기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1% 역성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달 유로존 종합 PMI가 47.6을 기록했다며 "서비스 산업이 수요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도 유로존 경제가 다시 위축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침체 우려에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시장은 유럽중앙은행(ECB)이 내년 3월 4%로 처음 금리를 낮추고, 그해 연말까지 6번(0.25%포인트씩)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미국 경제도 냉각되는 분위기다. 6일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 고용보고서는 지난달 민간고용이 10만3000건 늘었다고 밝혔다. 10월 증가 폭(10만6000건)보다 줄어든 데다 시장 전망치(13만 건)도 밑돌았다. 전날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구인·이직보고서에서도 10월 민간기업 구인 건수(873만3000건)는 2021년 3월 이후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다.

노동시장이 주춤하면서 미국 경기도 둔화할 거란 예상이 나오지만 연착륙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지표가 여전히 탄탄한 것으로 보여 미국 경제는 연착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최근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도 "실업문제가 다소 안정되고, 성장이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둔화하면서 연착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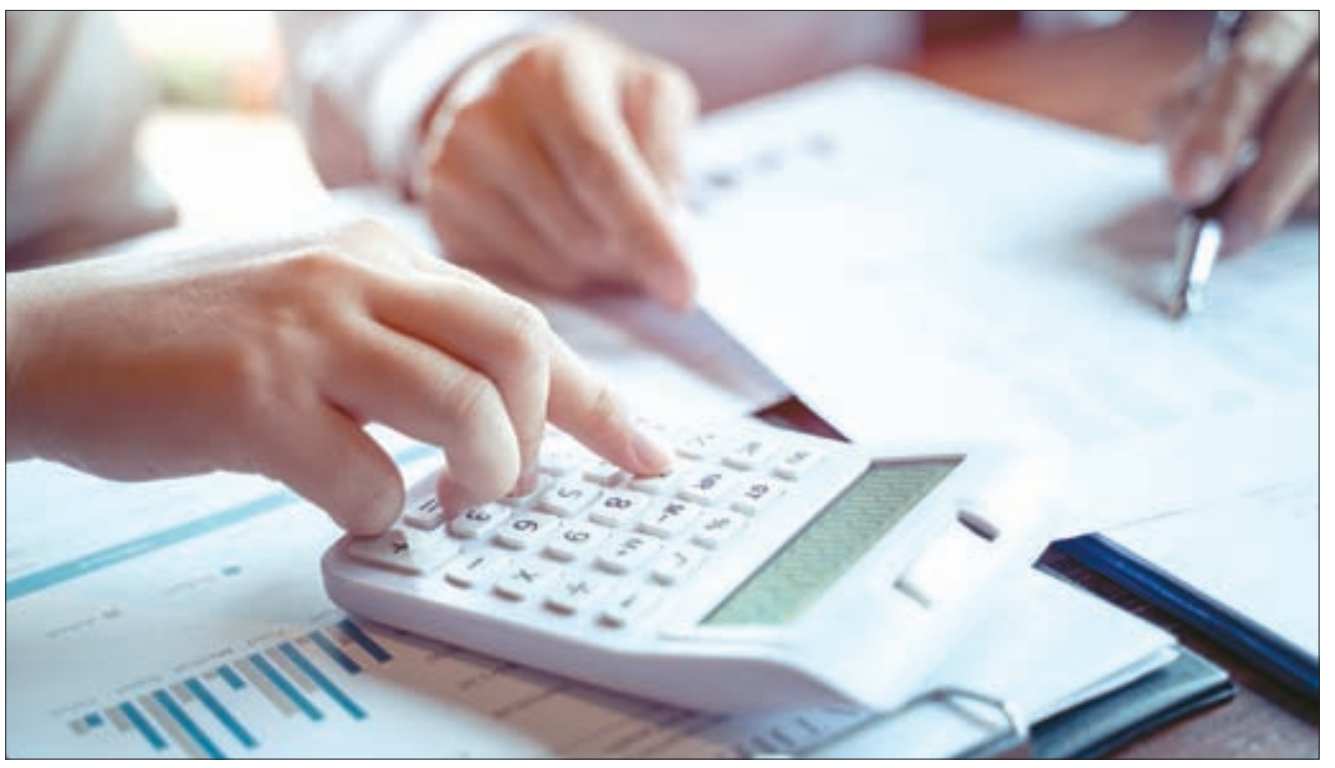
미국 경제로 쏠림이 가속화하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7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는 전날(1313.1원)보다 12.2원 떨어진 1325.3원이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인 미국 달러화로 자금이 쏠린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도 6일(현지시간) 104.15를 기록하면서 약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 금값도 지난 4일(현지시간)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인 온스당 2135달러로 올랐다.

김남준 기자



상속세율 고려해 Roth 변경·인출 플랜 계획

개인은퇴계좌(IRA) 상속



바뀐 규정이 확정되면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상속 계획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배우자는 자기 계좌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
배우자 아닌 경우는 10년래 인출 규정 적용
내년 바뀐 규정 확정 전 유예기한 활용해야

몇 년전만 해도 은퇴계좌를 상속받았을 때의 규칙은 비교적 간단했다. 상속받은 사람의 기대수명에 근거해 무기한 인출플랜이 가능했다. 소위 말하는 '스트레치(stretch)'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인출에 따른 세금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계속 자금증식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상속자에 대한 인출 옵션은 복잡해졌다. 규정 자체도 계속 수정되는 중이라 혼선도 많다.

▶배경

2020년부터 IRA를 상속받은 대부분의 수혜자들은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처음 이 규정이 나왔을 때 많은 이들이 상속 IRA에 대한 의무인출규정(RMD)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다. 대신 10년래 전액을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다시 2022년초 IRS는 일부 상속자들은 RMD도 하고 10년내 잔액 모두를 인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애초에 2023년초 최종적인 규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당국은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RMD를 안했을 경우에 대한 벌금을 일단 면제키로 했다. 아직까지 상속 IRA에 대한 인출 및 관리계획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유예기한이 있을 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무인출규정(RMD)과 의무인출시기(RBD)

IRS는 개인은퇴계좌인 IRA 자금을 73세가 되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인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022년에 72세가 된 이들은 이미 RMD 적용을 받는다. 2022년에 아직 72세가 되지 않은 이들의 경우는 73세가 된 바로 다음해 4월1일까지 RMD 의무인출을 해야 한다. 이렇게 RMD가 시작되도록 정한 시기를 RBD라고 부른다.

정부가 RMD를 강제하는 이유는 은퇴계좌내 자금이 마냥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하는 데, 그것을 RBD와 RMD로 강제하는 것이다. 이 규정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를 상속받은 이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일단 이해하는 것이 안전하다.

▶IRA 상속 시기에 따른 RMD 적용 규정

2019년 12월31일 이후에 상속받은 IRA의 경우 일반적으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다시 말해 원 소유주가 2019년 12월31일 이후, 즉 2020년부터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다. RMD를 원 소유주가 이미 받고 있던 중이라면 첫 9년은 계속 최소한 RMD 만큼 인출해야 할 수 있고 10년째는 잔액을 다 인출해야 한다.

이 경우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10년이상 어리지 않은 상속자 등이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처음엔 '10년 규정' 적용에서 면제되지만 성인이 되는 시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된다. 예외 자격을 가진 상속자는 2020년 이전에 있었던 규정에 따라 평생에 걸친 인출권을 사용할 수 있다. 상속자가 단체 등 자연인이 아닐 경우는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IRA에 대한 기본적 이해

일단 배우자는 가장 편하다. 배우자는 상속받은 IRA를 자기 것으로 할 수 있다. RMD도 자기 것처럼 계산하고 적용하면 된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수 있는 옵션도 있지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운용할 수 있는 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상속 IRA로 그대로 둘 경우 자기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RMD를 계산할 수 있지만 RBD에서 불리할 수 있다. 원 소유주의 사망 다음해 말까지나 원 소유주가 RMD 적용을 받았을 당해 연도부터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기 소유의 IRA로 바꿀 경우는 원 소유주가 사망한 해의 다음해 연말 전이나 본인이 RMD를 해야할 때 중 나중에 오는 시기를 RBD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내 것으로 하고, 내 RBD에 내 기대수명에 기반한 의무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은 위에 언급한 몇 가지 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10년 규정'을 따른다고 보면 된다. 배우자 아닌 다른 상속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상속 IRA에 대해서는 어떤 투자회사에 계정이 있는가에 따라 RMD에 대해 공지를 해줄 수도 있고 안해줄 수도 있다. 그래서 각자가 RMD 시기와 금액에 대해 알고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채권자로부터 보호 여부다. 상속 IRA는 일반 IRA처럼 채권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 파산하거나 소송 등에 따라 채무가 발생할 경우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거나 걱정된다면 배우자 이외 다른 이에게 IRA를 직접 상속받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는 트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oth IRA와 401(k) 상속

401(k)도 상속 IRA로 수령할 수 있다. 배우자 이외 다른 상속자들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언급한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Roth IRA는 원래 의무인출이 없지만, 상속받을 경우 RMD가 아닌 역시 '10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 경우 상속자 Roth IRA 계좌를 열고, 여기로 자금을 수령한 후 10년에 걸쳐 인출하게 된다. 물론, Roth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다. 일반 IRA를 상속할 경우 모든 인출금은 일반소득세 적용 대상이다.

▶상속 IRA, 기타 은퇴계좌를 위한 설계

바뀐 규정들이 지금 직접 해당되지 않더라도 세금 부담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선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다. IRA, 401(k), 403(b) 등 세금공제를 받은 모든 은퇴계좌는 상속받아 인출할 경우 모두 일반소득세를 내야 하는 자산이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인출할 경우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은 상속자의 세율을 생각해야 한다. 지금 세율이 낮다면 세율이 낮을 때 가능한 많이 인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401(k)를 상속했다면 이를 상속자 IRA로 변경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변경할 때 세금을 내야 하지만 어차피 10년래 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속 초기에 Roth로 변경하면서 필요한 세금만큼 인출하는 것이다.

이후 10년동안은 자금이 계속 세금없이 자라게 하고, 다 인출할 때 추가로 증식된 자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소득 수준이 영향을 줄 수 있는 학자금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등이 걸려 있다면 이를 염두한 인출계획이 필요할 수도 있다. 소득세는 연방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에도 내야 한다. 거주지를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면 주정부 세금이 없는 주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켄 최 아메리츠 에셋 대표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2024 메디케어 보험 변경기간 및 신청
(10월 15일 ~ 12월 7일)
무료상담과 신청
더 좋아진 "추가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65세 되실 분 상담 환영"
어드벤테지(C플랜) 서플리먼트 갭 플랜 약 보험
치과 안과 보청기 혜택 비처방약 혜택 운동시설 혜택
◆ 보험변경 하실분 ◆ 1959년생 ◆ 약커버가 안된는 분
◆ 메디케이드 소지자 ◆ 파트 B 보험료 보조옵션
자유롭게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는 플랜에 대해 전화 주세요!
☎ 703-591-0009 / 703-537-9899
조은혜 종합보험
571-232-0702 | 703-591-0009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법원 건너편/모스비 타워)
Partner 보험회사
앤텀 / 에트나 / 유나이티드
휴메나 / 케어웰스트 / 웰케어

투자의 경제학

김세주
Kadence Advisors, LLC

미래를 보는 안목

매그니피센트7, 올해 주가 선도 종목
경제 상황 주가지수로 판단 주의해야

한때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주 종목의 대명사였던 팽(FAANG)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로 구성돼있다. 요즘 증권가엔 '팽'이 매그니피센트 7(Magnificient 7)으로 대체돼 2023년도 주가를 이끄는 종목으로 불린다.

'팽' 주식은 2013년도에 증권방송 CNBC의 짐 크레이머가 4개 종목을 거론하며 이름이 굳어지다 2017년에 애플사가 추가되며 5개 종목이 됐다. 매그니피센트 7은 60년대 서부영화 '황야의 7인'을 뱅크오브아메리카 분석가 마이클 하트넷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알파벳(구글),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를 영화 제목을 인용하며 유행어가 됐다.

이들은 회사명 알파벳의 첫 글자만 인용해 마마앤트(MAMA ANT)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7개의 주식이 중요한 이유는 블룸버그 자료에 따른 3000개의 전 세계 대형, 중형주로 이루어진 MSCI World Index가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을 제외하면 지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미 500대 기업으로 이루어진 S&P500 지수도 마찬가지다. 일곱개의 주식이 S&P 500지수에 차지하는 비율은 약 28%에 이른다.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 상 7개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 전체적인 증시의 등락이 왜곡되기 쉽기 때문에 상승세나 하락세가 전반적인 증시의 움직임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S&P500지수는 19%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지수에 포함된 500개 주식을 같은 비율로 계산(Equal Weight)하면 5% 정도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수를 구성하는 비율이 시가총액이 높을 수록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투자자가 주의할 점은 지수가 전체적인 기업들의 상황이나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면 지수가 경제 상황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소수의 주식이 주가지수를 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현재 경제 상황을 주가지수를 지표로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일 수가 있다.

대부분의 주식이 수익개선이 되지 않아 지지부진 하는 가운데 일부 종목이 인공지능과 같은 특성 요인에 따라 급등하며 지수를 올리고 있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경기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투자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 미래를 판단하는 기준이 편협된 자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재정설계

클라우디아 송
아메리츠 파이낸셜 Field Manager

2024년 은퇴연금 한도액

직장 연금 1인당 불입액 500불 증가
IRA 6500불에서 7000불로 상향 조정

지난 11월 연방국세청(IRS)은 2024년 상향조정되는 은퇴연금플랜의 저축 한도액을 새롭게 발표했다. IRS가 매년 은퇴저축 플랜의 한도액을 조정하는 이유는 가파르게 오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경제 변화나 성장에 따라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해 미래 은퇴자들이 재정적으로 안전하게 은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다.

다가오는 2024년에는 개인이 직장에서 저축할 수 있는 401(k), 403(b), 457플랜,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Thrift Savings Plan) 및 IRA 등은 기존 저축 한도 금액보다 조금씩 높아진 금액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에서 제공하는 연금플랜인 401(k), 403(b), 457 플랜,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TSA를 통해 연금 플랜에 저축하는 경우에는 2023년의 불입 한도액 2만2500달러에서 2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1인당 불입한도액이 500달러나 늘어난 셈이다.

50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추가 한도액은 2023년과 동일하게 75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의 직원들이 직장은퇴연금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저축금액은 3만500달러다.

개인이 저축할 수 있는 IRA의 불입 가능한 한도액은 6500달러에서 7000달러로 상향조정됐다.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4년에 캐치업으로 여전히 1000달러로 유지된다. 따라서 50세 이상이라면 8000달러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만약 개인은퇴계좌 IRA와 직장에서 주는 401(k), 4013(b), 457 등에 가입된 경우, 두 곳 모두 저축할 경우 어떤 규제들이 있을까.

IRS는 이 둘을 함께 납입할 경우의 한도액을 단계별 소득 범위로 규정하고 있다. 2024년에 다소 증가한 소득 범위를 함께 알아보자.

먼저 싱글로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직장연금플랜에 가입된 싱글 세금 보고자라면 기존 7만3000~8만3000달러에서 2024년 7만7000~8만7000달러로 증가했다. 7만7000달러 미만의 소득자일 경우에는 IRA에 불입하는 모든 금액이 세금공제가 가능하지만 8만7000달러 이상이라면 하나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를 보자.

부부가 둘 다 직장연금 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기존 11만6000~13만6000달러에서 12만3000~14만3000달러로 증가했다. 따라서 부부가 합쳐 소득 12만3000달러 미만을 보고할 경우라면 부부 모두 IRA에 최대 금액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14만3000달러 이상이라면 둘 다 모두 불입이 가능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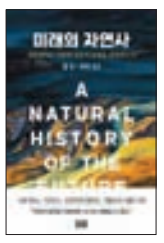
부부 중 한 사람만 직장은퇴연금플랜에 가입된 경우라면 23만~24만 달러로 증가했다. 이전 범위는 21만8000~22만8000달러였다. 따라서 부부합산 소득이 23만 달러 미만이라면 IRA 저축이 가능하고 공제도 가능하지만, 부부합산 소득이 24만 달러 이상이라면 IRA 저축은 가능하지 않고 세금공제도 가능하지 않다.

저소득층 그리고 중산층에게 주어지는 세이버스 크레딧(Saver's Credit) 혜택 기준도 기존보다 다소 증가했다.

싱글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3만6500달러에서 3만8250달러로 증가했다. 연 소득이 3만8250달러 미만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는 기존 7만3000달러에서 7만6500달러로 증가했고, 연 소득 7만6500 달러 미만인 경우에만 크레딧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은퇴플랜과 절세법은 매해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발맞춰 내 은퇴플랜에 대한 다양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공인재정상담가나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에게 상담받을 것을 추천한다.

지구 지배자도 기생충에겐 숙주



미래의 자연사
롭 던 지음
장혜인 옮김
까치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이 벌채되고 불에 탄 모습. 지난해 촬영된 사진이다. [AFP=연합뉴스]

80억 명을 넘어선 인류의 몸무게를 다 더하면 육상 척추동물 전체 무게의 32%를 차지한다. 여기에 가축 무게까지 더하면 90%가 넘는다. 인간 활동이 지구 생태계를 좌지우지해 '인류세'라는 지질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어색하지 않다.

하지만 인류도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수많은 종 가운데 하나일 뿐이란 시각도 있다. 인류는 그저 단세포 종의 세계에 얹혀사는 다세포 종의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를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어윈(Erwin)의 법칙'이다.

곤충학자 테리 어윈이 1970년대 파나마 열대우림의 나무 한 그루에 살충제를 뿌렸더니, 한 그루에서 떨어진 딱정벌레가 무려 950종이 넘었다. 어윈은 열대 절지동물이 3000만 종이 넘는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의 연구는 우리의 시각이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게 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받는다.

생태학자인 지은이가 인류의 과거·현재·미래를 다양한 생물 법칙에 빗대 서술한 이 책(원제 A Natural History of the Future)은 호모 사피엔스라는 종을 추적한 생태 연구 보고서와도 같다. 지은이는 먼저 인류 서식지 범위가 과거 수렵채집 시대보다 줄었다고 지적한다. 농사를 지으며 작물 재배 조건에 맞춘 결과다. 인류의 대표적 서식지인 농장에는 작물과 가축이 살고, 작물·가축에는 병원균·기생충 등 기생생물, 기생종(種)이 붙어산다. 도시에서는 집쥐·집비둘기·모기·바퀴벌레가 사람과 공생한다. 집쥐나 집비둘기는 도시의 모양에 따라 그 안에서만 서로 교배한다.

사람 자체도 실은 큰 숙주다. 흰개미가 목재 셀룰로스를 소화하기 위해 장(腸) 미생물에 의존하는 것처럼, 사람도 미생물에 의존한다. 기생종은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서로 뒤섞이는데, 남북한이 단절되면서 북한에서는 독특한 기생종으로 진화했을 수도 있단다. 오래전 얼어붙은 바다 위를 건너 아시아에서 아메리카로 간 인류는 기생종의 위협에서도 벗어났는데, 유럽인들이 기생종을 끌고 오는 바람에 남미 원주민들이 대재앙을 맞기도 했다.

종 다양성 법칙은 인류의 농사에도 적용된다. 다양한 생물종으로 구성된 생태계가 가뭄 등 재앙에 잘 견디는 것처럼,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해야 식량 위기를 피할 수 있다.

지은이는 미시시피 강의 대홍수를 겪은 할아버지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스스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능력이 '양날의 칼'과 같다고 지적한다. 제방이 터진 것은 자연의 영역에 있던 강을 사람이 억지로 흐름을 바꾸고 통제하려다 실패한 결과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류의 자만심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상수원을 맑게 지키는 대신 염소 소독으로 수돗물을 생산하려 하지만, 내성을 지닌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움(세균)만 좋아진다. 항생제를 남용하면 대장균 등이 내성을 갖는다. 우리가 가진 무기를 함부로 사용하면 '불멸의 적'이 탄생할 수도 있다.

벌이 사라지면 꽃가루받이용 미니 로봇을 도입해 해결하겠다지만 그게 옳은 일일까. 자연을 망가뜨린 다음 고치려 하면 예상하지 못한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지은이는 기후 위기를 걱정한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2080년 아시아 열대지역이나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인류가 살기 어려운 조건이 될 수 있다. 다른 동·식물처럼 그곳 주민도 적당한 '서식지'로 이동해야만 한다. 수많은 사람이 '환경 난민'이 돼 떠돌 수 있다.

인류도 언젠가 멸망할 수 있단 경고도 잊지 않는다. 인류가 사라지면 가축도 사라지고, 곤충도 멸종하고, 마지막에는 미생물만 남을 수도 있다. 인류는 지구 없이 살 수 없지만, 지구는 인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22일은 '지구의 날'이다. 1년에 하루라도 지구와 인류의 공존을 생각해보자.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책꽂이

프린키피아(아이작 뉴턴 지음, 박병철 옮김, 휴머니스트)=맞다. 1686년 처음 나온 그 유명한 책이다. 뉴턴역학을 집대성한 총 3권을 우리말로 옮겨 960쪽 한 권에 담았다. 번역의 저본은 1846년 나온 앤드루 모트의 영역본. 이론물리학자이자 여러 과학서를 번역해온 옮긴이가 3년에 걸친 번역 작업을 끝에 펴냈다.

전사들의 노래(홍은전 지음, 비마이너 기획, 훗한나 그림, 오월의봄)=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등 장애인의 권리를 위한 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박길연, 박김영희, 박명애, 이규식, 박경석, 노금호 등 다섯 사람의 삶과 생각과 말을 인터뷰에 바탕한 이야기로 담았다. 살아온 내력과 스스로 변화한 계기 등이 흡입력 있게 전해진다.

형태의 기원(크리스토퍼 윌리엄스 지음, 고현석 옮김, 이데아)=SF영화처럼 개미가 빌딩 크기로 커지면, 그 다리는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부서진다. 현재의 크기에 맞게 구조가 설계됐기 때문. 자연과 인공을 비교하며 형태와 물질, 구조, 크기, 기능 등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펼친다. 부제 '자연 그리고 인간이 만든 모양의 탄생과 진화'.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최인아 지음, 해냄출판사)=광고회사 임원에서 책방 주인이 된 저자가 30여년의 경험을 토대로 일과 삶과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왜 일하는가' '태도가 경쟁력이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을 건너는 법' 등의 제목으로 장을 나눴다. 그의 저서 출간은 『프로의 남녀는 차별되지 않는다』 이후 처음.

차별과도 싸웠던 한국전쟁 종군기자

한국에 가혹했던 전쟁과 휴전
마거리트 히긴스 지음
이현표 옮김
코러스

지은이 마거리트 히긴스(1920~1966)는 한국전쟁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종군기자다. 미국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도쿄지국장이었던 그는 전쟁이 나자 이틀 뒤 서울로 날아왔다. 미국의 참전 결정 이전이다. 서울에 머문 건 잠시뿐. 한강 인도교 폭파 직후 어렵사리 강을 건넌 그는 미군의 거듭된 후퇴 속에 곳곳을 이동하며 전쟁 초반 6개월을 취재했다.

이듬해 그가 'War in Korea'(한국에서의 전쟁)란 제목으로 출간한 책은 전세의 흐름, 그리고 직접 보고 겪은 전쟁의 급박한 순간과 참상을 생생하고도 담담하게 전한다. 여성이란 이유로 그는 취재를 막거나 아예 한국을 떠나게 하려는 안팎의 방해와 압력을 수시로 겪었는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는 분투는 인천상륙작전 취재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목숨이 오가는 전장에서 이동 수단을 구하고, 기사 송고 방법을 찾는 것도 엄청난 분투였다. 전쟁 초반에는 일본에 날아가 기사를 보내고 돌아왔는가 하면, 차량 이동 중에 타사 기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그는 어느새 총을 들었다. 이듬해 퓰리처상 국제보도부문 수상자는 전례 없이 6명 모두 한국전 종군기자였다. 히긴스는 이 부문의 사상 첫 여성 수상자였다.

유럽에서도 1944년부터 종군 취재를 했던 그는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을 간과하고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에 대비하지 못한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전 초기의 미군에 대해서도 비판을 감추지 않는다. 맥아더에 대해선 초반부터 높이 평가하는데, 미국 언론의 도쿄특파원들은 그에 대한 시각이 대부분 부정적이었다는 점도 전한다.

히긴스의 책은 2009년 한국판이 처음 나왔고, 이듬해 한국정부는 히긴스에게 수교훈장을 추서했다. 절판됐다가 휴전·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다시 나온 이 책은 히긴스가 1955년 펴낸 또 다른 저서의 일부 내용도 실었다. 맥아더, 트루먼, 밴 플리트, 아이젠하워 등에 관한 내용이다. 옮긴이는 1999년 독일에서 히긴스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역자 후기에 그 과정을 소개했다.

이후남 기자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Diane Mun Lee)
대표 / Principal Broker
워싱턴 한인 부동산 협회 초대 회장
703.534.4989
megarealty@gmail.com
VA, MD, DC
Mega Realty & Investment, Inc.
4600 John Marr Dr, #201, Annandale, VA 22003 (본사 사옥/한강식당 옆)

"최고"
모두가 최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택 융자는 그린웨이 펀딩 그룹 배준원 융자에 맡겨 주세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길을 갑니다"
이자율이 높다구요? 그럴수록 비교해보세요.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직접 경험해 보세요!
WWW.JUNBAEMORTGAGE.COM
배준원 (Jun W. Bae)
Vice President / MBA / Sr. Mortgage Banker
703.868.7147
jun@greenwayhomeloans.com
(NMLS# 178471)
Greenway FUNDING GROUP, INC.
VA, MD, DC, NC, DE, TX, PA, WV, GA, SC, FL
미팅 모임 장소가 필요하세요?
센터빌 오피스 미팅룸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월-토)
13890 Braddock Road, Suite 207,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H마트 건너편 위치)
Greenway Funding Group, Inc. is licensed by the District of Columbia Government DISB, Maryland State DLLR, Virginia State Corporation, North Carolina Commissioner of Banks, Delaware Office of the State Bank Commissioner, Texas Department of Savings and Mortgage Lending, Pennsylvania Department of Banking & Securities: West Virginia Divis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Georgia Department of Banking & Finance; South Carolin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Florida Bureau of Regulatory Review – Finance License Numbers: DC MLB 1108695; MD 06-20828: NC L-161472: VA MC-5777: DE 030649: TX : PA 101075; WV ML-1108695; MB-1108695; GA 1108695; SC 1108695; FL MLD2368 Greenway Funding Group Inc. NMLS# 1108695
www.nmlsconsumeraccess.org

열일한 당신 떠나라, 작곡가 로시니 37세에 펜 놓은 이유

'탄크레디' '세비야 이발사' 히트 후 1820년대 베토벤급 명성 얻었지만 대작 '기욤 텔' 만든 뒤 돌연 은퇴

"약간의 재주가 전부" 겸손한 태도 요리 몰두하고 책 펴내며 제2 인생 살롱 열어 문화계 셀럽들과 교류

1

1 로시니의 초상. **2** 오페라 '세비야의 이발사' ⓒ Miomir Polzović. **3** 이탈리아 페자로의 로시니 극장. [사진 사회평론·페자로시]

누구나 언젠가는 은퇴를 한다. 예술가도 마찬가지다. 가장 좋은 것은 인기의 절정에서 박수를 받으며 떠나는 것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성공은 없으니까. 그러나 어디에나 예외는 있는 법. 유독 작곡가들에게는 은퇴가 없다. 육체는 쇠약해져도 창작욕은 줄어들지 않는 모양이다. 그래서 작곡가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펜을 놓지 않는다. 유독 이들에게 미완성 작품이나 유작이 많은 이유이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오페라 작곡가로서 절정의 인기를 누리던 조아키노 로시니가 37세의 나이를 끝으로 오페라 작곡을 그만둔 것은 당시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는 여전히 너무 젊었고 그가 발표하는 작품마다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 연금 덕에 안정적인 삶

음악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로시니는 어려서부터 음악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으며, 12세에 이미 6개의 현악 4중주를 작곡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18세에 베네치아에서 그의 첫 오페라 '결혼 보증서'를 세상에 선보였다. 단막 짜리 코믹 익살극인 이 오페라로 베네치아의 산 모이제 극장에서 성공적인 데뷔를 한 이후, 그는 연속해서 코믹 오페라들을 성공시키면서 단숨에 베네치아를 넘어 볼로냐, 페라라, 로마 그리고 밀라노의 라 스칼라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그가 20세가 되었을 때 라 스칼라에서 상연된 '시금석'은 51회나 연속 상연되는 기록까지 세웠다.

그 이듬해에 로시니는 처음으로 진지한 장르인 오페라 세리아에 도전했고 비극적인 결말을 갖는 '탄크레디'를 만들어 보란 듯이 성공시켰다. 탄탄하고 진지한 작품 속에서도 그의 독창성은 유감없이 빛났다. 그는 희극과 비극의 특징들을 하나의 작품 속에 완벽하게 녹여냄으로써 오페라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다양하고 흥미로운 인물들을 만들어 냈다. 그가 만든 인물들은 누구나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현실적인 캐릭터라 더욱 호소력이 있었다. 로시니의 명성은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 유럽 대륙과 미국에까지 퍼져 나갔으며, 불과 23살의 나이에 그는 나폴리의 산 카를로 극장의 음악 감독이 되었다.

2

3

운도 실력이라고 했던가. 그는 운도 좋았다. 로시니의 최고 인기 오페라인 '세비야의 이발사'는 초연할 당시만 해도 곧 사장될 운명에 놓였었다. 이 오페라는 프랑스 극작가 피에르 보마르셰의 3부작 희곡을 바탕으로 하는데, 모차르트가 희곡의 첫 번째 부분을 사용해서 '피가로의 결혼'을 작곡했을 뿐 아니라, 나폴레옹이 가장 사랑한 작곡가 파이시엘로가 두 번째 부분을 기초로 만든 '세비야의 이발사'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이다. 결국 로시니의 오페라는 주인공의 이름인 '알마비바'라는 이름으로 무대에 올려졌고, 설상가상으로 파이시엘로 추종자들의 야유로 초연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공교롭게 파이시엘로가 바로 사망하는 바람에 로시니 오페라가 '세비야의 이발사'라는 제목으로 다시 무대에 올라갈 수 있었고, 그 이후 '세비야의 이발사'는 오롯이 로시니의 것이 되었다.

'세비야의 이발사'는 가난한 군인으로 변장한 백작, 마을의 이발사, 돈 많고 아름다운 아가씨, 그의 못된 후견인 등이 등장해 좌충우돌하는 상황을 다룬 오페라 부파이다. 로시니는 음악에 활기찬 리듬을 도입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이끌면서 떠들썩하고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을 유쾌한 희극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벨칸토 전통을 절묘하게 결합함으로써 광대극은 매력적인 오페라로 승화된다. 여주인공 로지나가 부르는 '방금 들린 그대 음성'은 서정적인 벨칸토 선율, 고도의 성악적 기교, 캐릭터의 복합적인 표현을 모두 담아낸 최고의 아리아다. 화려하고 아름다운 노래 속에 익살스러운 위트를 이처럼 능숙하게 섞어내는 솜씨는 그야말로 천재적이다.

그의 전성기였던 1820년대 유럽인들에게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가가 누구냐고 물었다면 대부분 베토벤이 아니라 로시니라고 답했을 것이다. 당시 50이 넘었던 베토벤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22년 로시니가 자기가 사는 빈을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 군중들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로시니 열병'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빈과 런던에서 화려한 시즌을 보낸 이후 로시니는 파리에 정착했고, 처음에는 이탈리아어 코믹 오페라를 쓰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 코믹 오페라를 쓰더니, 급기야 최초의 프랑스어로 된 진지한 오페라 '기욤 텔'을 내놓아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다. 일부 가수들이 연주를 피할 정도로 어려운 데다 상연 시간만 3시간 45분이나 되는 대작이었다. 이 새로운 오페라는 엄청난 인기를 얻어 그의 생전에만 500회가 넘게 상연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기욤 텔'이 그의 마지막 오페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저작권이 없던 시절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 올려야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곡가들에게 죽기 전까지 은퇴란 없었으니까.

말년에 레종도뇌르 기사 훈장 받아

그러나 그는 정말로 펜을 놓았고 남은 인생을 여한 없이 즐기기 시작했다. 이전에 벌어놓은 돈도 많았고 루이 18세 치하의 프랑스 정부와 후한 연금 계약을 맺고 파리로 온 로시니는 먹고살 걱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젊어서 명예와 부를 다 얻은 로시니는 그 후 40년 여생을 맘껏 즐기며 살았다. 유명한 식도락가였던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저택에 유명 셰프들을 불러 고급스러운 음식과 새로운 조리법을 즐겼다. 연애에도 열심이어서 파리 최고의 모델이었던 올림프 펠리시에와 연애를 즐기다가 별거 중인 부인이 사망하자 그녀와 결혼도 했다.

몇 년간 이탈리아로 가서 볼로냐 음악원의 교장으로 지내는 동안 로시니가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았으며 임질에 걸렸고 이후 그 후유증으로 고생했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다시 파리로 돌아온 후 그의 건강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평소 좋아하던 요리 연구에 몰두하여 요리책을 출판하는 등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유쾌한 만년을 보냈다. 로시니는 파리 중심지에 아파트를, 그리고 파리 외곽에 고풍스러운 빌라를 갖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빌라에서 겨울에는 파리의 아파트에서 '토요일 저녁'이라는 살롱을 10년 이상 개최했다.

프랑스를 넘어 해외에서도 유명했던 그의 살롱에는 당대 최고 성악가들은 물론 사라사테와 요아힘 같은 비루투오소 바이올리니스트가 단골 ↗

단기연금
개런티 이자
/개런티 이자
/단기 (3년, 5년, 7년)
/복리 이자

이제는 원금보장과 함께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때입니다.

원 금	3년	5년	7년
$100,000	4.95% $115,597	5.30% $129,461	5.30% $143,548
$300,000	4.95% $346,791	5.30% $388,3853	5.30% $430,645

*이자율은변경될 수 있습니다. **Virginia 기준

앤디 김
VA Lic# 639047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703-200-1412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내용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 • 메디케어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센터빌, 첸틀리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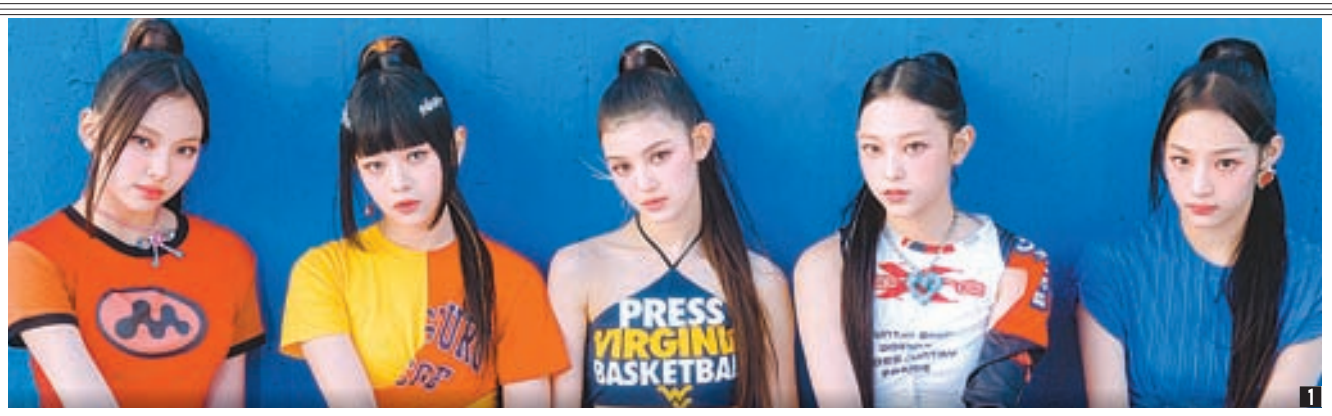
내달 제38회 골든디스크 시상식

BTS 6년 연속 음반 대상 차지

군 입대로 올 트로피 주인 바뀌어

멤버 정국·지민·슈가 본상 후보로

세븐틴·스키즈·아이브 등과 경쟁



방탄 없는 골든디스크

〈방탄소년단〉

대상 트로피 누구에게?

다음 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의 후보에 오른 ❶ 뉴진스 ❷ BTS 지민 ❸ 정국 ❹ 슈가 ❺ 세븐틴 [사진 어도어, 빅히트뮤직,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 뉴시스, 물고기뮤직]

골든디스크 어워즈 관전 포인트, 그 핵심은 바로 음반 대상이다. 군 입대로 완전체 활동을 하지 않은 방탄소년단(BTS)이 후보에 없어, 음반 대상의 주인 교체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 위드(with) 만디리'가 다음달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그동안 음반 대상은 방탄소년단이 독식해 왔다. 2018년 미니앨범 5집 '러브 유어셀프 승 -허'(LOVE YOURSELF 承 'Her')로 골든디스크 첫 음반 대상을 안은 후 올해까지 6년 연속, 7개의 대상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엔 미니앨범 6집 '맵 오브 더 솔 : 페르소나'(MAP OF THE SOUL : PERSONA)로 음반 대상을 수상했고, 타이틀곡 '작은 것들을 위한 시(Boy With Luv)'로 음원 대상 트로피까지 싹쓸이했다. 골든디스크 역사상 음원·음반 대상을 동시에 수상한 것은 방탄소년단이 처음이었다.

이번 시상식에서 방탄소년단은 그룹이 아닌 멤버 각각 따로 후보로 올라 경쟁한다. 음원 본상 후보엔 정국이 부른 섹시한 분위기의 '세븐', 지민의 애절한 음색이 돋보이는 '라이크 크레이지'가 올랐다. 음반 본상에선 슈가가 래퍼 예명 어거스트디(Agust D)로 발매한 정규앨범 1집 '디-데이', 정국의 첫 솔로 앨범이자 수록된 11곡 모두 영어 가사로 구성된 '골든'이 경쟁한다.

다른 후보들도 쟁쟁하다. 써클차트 상반기 음반 차트 기준으로 세븐틴의 미니앨범 10집 'FML'이 545만장 가량 팔려 1위에 올랐다. 이 뒤를 스트레이 키즈가 정규 3집 '★★★★★'(5-STAR·파이브스타·약 524만장 판매)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발매 첫 주에 365만장의 판매고를 올린 NCT드림의 정규 3집 'ISTJ'도 유력 후보다.

음원 부문 경쟁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2023년 음원 대상에 빛나는 아이브, 지난달 20일 열린 '2023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상을 받은 뉴진스, 음원만 내면 1위하는 남매 악뮤, 데뷔 130일 만에 빌보드 '핫100'에 진입했던 피프티피프티 등이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여기에 청순과 강렬함을 오가는 에스파와 르세라핌이 가세했고, 솔로로 돌아온 태양과 지수도 음원 본상 트로피를 노린다.

당대 최고 스타에게 주어지는 인기상의 향방도 관심사다. 인기상은 5년 연속 BTS가 받아갔다. 인기상 후보는 본상과 같기 때문에, 올해 인기상 수상자 역시 바뀔 예정이다. 2018년 인기상 수상자인 엑소,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해 많은 팬을 보유한 제로베이스원, 내년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예고한 임영웅 등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벅스 앱 '페이버릿'서 인기상 투표= 팬이 직접 참여하는 인기상 투표는 6일부터 NHN벅스 투표 서비스 '페이버릿' (Favorite)에서 진행한다. '페이버릿'은 중앙그룹과 협력해 선보인 신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각 테마별 투표에서 '최애'를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골든디스크 어워즈 인기상 투표 외에도 '2023년 나를 웃게 해준 아티스트' '올해 나에게 찾아온 최고의 라이징 스타' 등 6가지 테마로 투표할 수 있다.

NHN벅스 관계자는 "'페이버릿'은 사업 다각화의 일환이다. 앞으로도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반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8회 골든디스크 어워즈'는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까지 발매된 음원과 음반을 대상으로 한다. 음원과 음반에서 각 20팀(명)의 후보를 추렸다. 생애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신인상 후보는 음원 이용량과 음반 판매량을 합산해 뽑는다. 보이넥스트도어·이븐·피프티피프티·플레이브·라이즈·싸이커스·제로베이스원·루네이트·엔싸인·황영웅 등이 올라와 있다. 본 시상식은 다음 달 6일 오후 9시 JTBC2·JTBC4에서 생중계되고, 추후 JTBC에서도 지연 중계한다.

황지영 기자

↘ 로 초청되었을 뿐 아니라 구노, 리스트, 루빈스타인, 마이어베어, 베르디가 초대되어 연주를 했다. 로시니는 자신을 겸허하게 4급 피아니스트라고 말하곤 했으나 살롱에서 직접 연주하는 것을 좋아했으며 그의 연주 실력은 실제로는 유명 피아니스트들조차 매료시킬 정도로 훌륭했다고 한다. 로시니는 이 살롱을 위해서 필요한 가곡, 피아노 독주곡, 실내악 등의 소품들을 직접 작곡하기도 했다.

그에게 은퇴 후의 인생은 축복이었고 그래서 여생이 즐거울수록 더욱 겸손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살롱에서 연주하기 위해 150개도 넘는 곡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들을 스스로 '노년의 죄'라고 낮추어 불렀다. 1864년에 작곡한 '작은 장엄미사'에 그가 직접 적어 넣은 기도는 더욱 겸손하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 이 보잘것없는 작은 미사를 끝냈습니다. 제가 쓴 이것은 성스러운 음악인가요, 아니면 저주받은 음악인가요. 당신도 잘 아시듯 저는 광대 오페라를 위해 태어났습니다. 약간의 재주, 약간의 진심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부디 저를 축복해주시고, 제게 천국을 내리소서." 은퇴 이후 수십 년간 이렇다 할 업적이 없었지만 말년의 로시니는 나폴레옹 3세로부터 프랑스 최고 영예인 레종도뇌르 기사 훈장을 받았다. 그리고 1868년 짧은 투병 기간 이후 76세의 나이로 삶을 마감했는데, 성 삼위일체 교회에서 열린 장례식에는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그의 빠른 은퇴는 로시니의 음악을 사랑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은퇴하지 않았다면 이전보다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내지 않았을까. 은퇴 후에도 40년을 더 살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좋아하는 요리에 전념해서 책도 썼고 새로운 여성과 결혼도 했고 문화계 셀럽들이 모이는 살롱의 주인이 되었으니까. 은퇴 후에 하고 싶은 일을 맘껏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 인생을 겸손하게 낙천적으로 살았던 로시니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으리라. 민은기 서울대 음악학과 교수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55세이상 커뮤니티 싱글홈

장점 리조트처럼 주변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살기 편하다.
장점 관리가 편하다.
장점 안전하다.
단점 55세이상 주거지역이라 연령제한이 있다.
단점 55세이상 연령제한이 있어 젊은사람에게 매매가 불가능하다.

애쉬번 블램블톤

55세이상 커뮤니티 싱글홈 스털링 $66만5천

게인스빌 싱글홈 방3+화장실2 $65만5천

55세이상 커뮤니티 싱글홈 우드브릿지 $63만

55세이상 커뮤니티 싱글홈 헤이마켓 $65만

임대주택관리/Top Property Management

세입자와 분쟁 이제 골치아픈 주택관리는 전문 매니지먼트회사에 맡겨주세요! 귀한 자산을 확실히 관리해 드립니다!!

꼭, 악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요!!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 리 브로커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DC, 메릴랜드 / 301-399-0140 | 버지니아 / 703-863-0321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와 오래가는 임플란트"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왜?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 경기 즐기기보다 미쳐야

구본길(34)은 '어펜저스(펜싱+어벤저스)'의 에이스다. 어펜저스는 세계 최강인 대한민국 남자 펜싱 사브르 대표팀의 별칭이다. 구본길과 김정환·오상욱·김준호로 구성된 어펜저스는 2020 도쿄 올림픽 단체전 금메달을 따냈고, 올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도 석권했다. 항저우 개인전 결승에서는 구본길이 오상욱에 7-15로 져 아시안게임 통산 최다 금메달(7개) 기록을 세우지는 못했다.

사브르는 펜싱에서 유일하게 찌르기와 베기를 모두 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만큼 빠르고 격렬하다. 두 개의 올림픽 금메달(2012 런던, 2020 도쿄)을 갖고 있는 구본길은 탤런트 같은 외모와 빼어난 패션 감각으로도 유명하다. 또한 네이버에 연재하는 칼럼을 통해 깊이 있는 통찰과 울림을 선사하고 있다. 이 '핫 피플'을 '핫 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성수동에서 만났다. 그의 매니지먼트사인 브리온컴퍼니 사옥에서다. 그는 까다로운 질문에 연륜 담긴 대답을 내놨다. '검을 든 철학자'라고 불러도 될 것 같다.

세계 최강 사브르 '어펜저스' 에이스

지며 배우는 건 사치, 절박함이 동력

연습할 때도 이기는 습관 들여야

펜싱은 수싸움 바둑·카드게임 같아

몸은 정직, 자신과 타협하면 무리수

-'광저우 대회를 통해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했는데요.

"아시안게임 가기 전에 최다 금메달, 아시안게임 4연패 등에 대한 압박이 심했어요. 긴장감 때문에 도망가고 싶고, 차라리 개인전을 안 뛰었으면 싶었죠. 8강에서 거의 진 경기를 이겼고, 맞은편에서 (오)상욱이가 올라왔어요. 결승이 끝나는 순간 정말 후련하더라고요. 딱 끝나고 나서 느낀 게 '난 정말 펜싱을 좋아하는구나'였어요. 펜싱에 대한 초심, 첫사랑, 간절함을 다시 찾은 대회였습니다."

올림픽 금 2, 아시안게임 6개 따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한 게 오늘의 구본길을 만들었다고 했는데요.

"제가 말하는 '왜'는 무조건 '긍정적인 왜'입니다. 코치나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저는 더 디테일하게 이 동작을 내가 왜 해왔는지 어느 상황에서 해야 되는지 저한테 계속 질문해요. 부정적으로 '아니 이걸 왜 해야 돼?'가 아니죠.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고 하는데, 누가 주입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남이 주입하느냐, 내가 주입하느냐. 대부분 남이 주입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저는 제 방식으로 필터링을 한 거죠."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타협하면 요행수·무리수가 나오고 부상으로 이어진다고 하셨죠.

"펜싱을 25년 했는데 몸의 감각은 정직해서 훈련을 안 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운동이 하기 싫으면 '이 정도면 돼' 라며 타협을 하죠. 그러면 감각이 떨어지면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내 전술로 하는 게 아니라 '통밥'을 굴리거나 상대 실수를 기대하죠. 상대가 실수를 해도 그걸 받아먹는 과정에서 동작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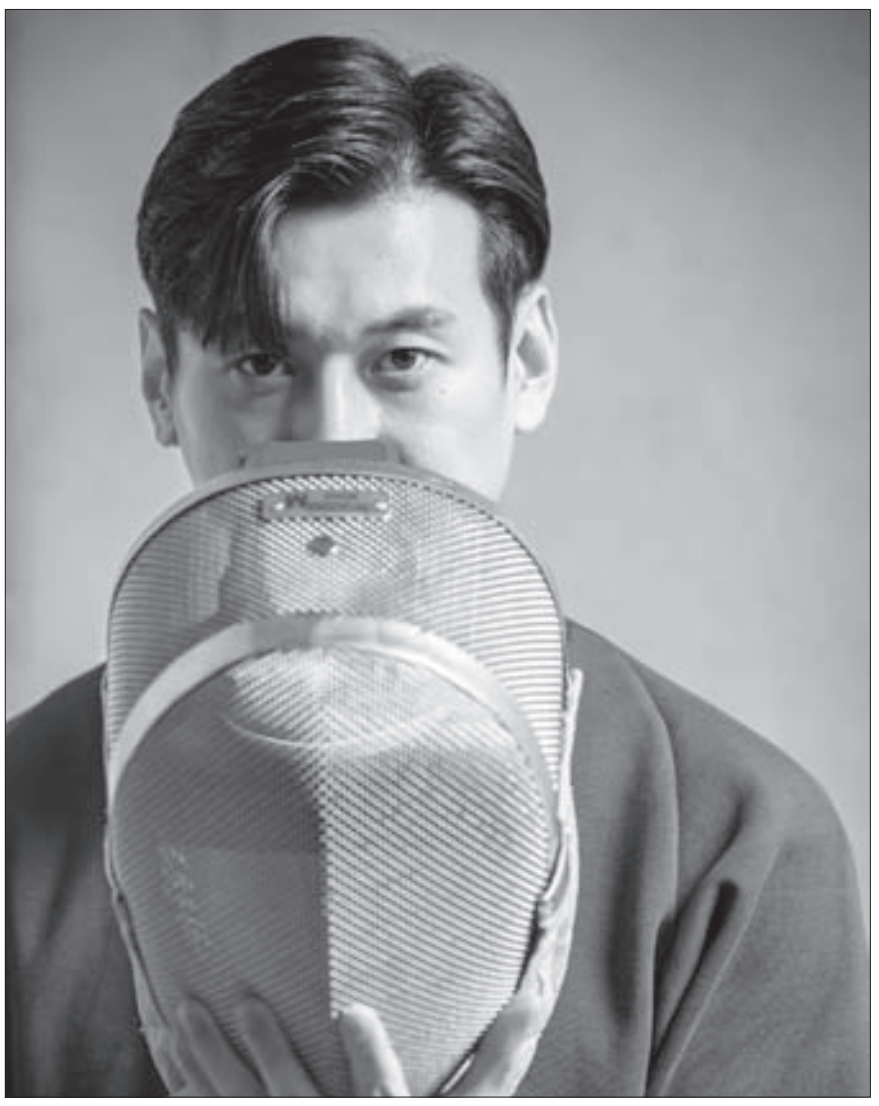
-'나의 마르셰는 끝나지 않았다'는 칼럼의 표현이 아주 멋진데요.

"마르셰(marche)는 펜싱의 가장 기본적인 전진 스텝을 말합니다. 펜싱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르셰를 몇 번 했을까요? 100만 번도 더 했겠죠. 후배들이 '형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마르셰 몇 번 더 하겠노' 농담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선수로서 마르셰는 끝나겠지만 저는 지도자든, 행정가든 대한민국 펜싱의 발전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겁니다. 방향만 다를 뿐이지 제 인생의 마르셰는 죽을 때까지 계속 간다는 거죠."

-은퇴할 때가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후배 눈치를 좀 보게 되죠?

"톱에 있는 선수들의 공통적인 고민이 은퇴 시기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박수 칠 때 떠납니까. 더 해야죠. 문제는 후배에게 뭘 물려줄 거냐 하는 거죠. 펜싱의 기술이나 동작은 사람마다 몸도 타이밍도 달라서 물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운동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여주고 싶어요. 연습 시작 30분 전에 미리 와서 신발끈을 묶는 모습, 이런 솔선수범을 보여주는 게 선배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본길은 귀공자 같은 외모와 달리 극한 가난의 가시밭길을 걸어 왔다.



펜싱 마스크를 들고 포즈를 취한 구본길. 그는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지만, 박수 칠 때는 더 하는 게 맞고, 떠나면서 뭘 남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영재 기자

어머니 선태복씨는 식당 허드렛일을 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다. 그는 '내 펜싱 인생의 팔할은 어머니'라고 칼럼에 썼다.

-어머님의 큰 가르침은 무엇이었나요.

"어머니는 티를 잘 안 내세요. 힘든 것 아픈 걸 꿋꿋이 버티고 있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저도 '난 이걸 해내야 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지면서 배우는 게 있다는 말은 저한테는 사치였어요. 지면 끝나는 거였으니까. 그 절박함이 제 성장의 동력이었죠."

-'경기를 즐겨라'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저는 후배들한테 '연습게임에서도 이기는 습관을 들이라'고 합니다. 동작을 익히는 연습에서도 자꾸 찔리면 습관이 돼 버려요. 상대 칼에 찔리는 감각에 익숙해지면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멘탈을 놓아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기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즐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쉽지 않은 주문 같은데요.

"저는 '즐겨라'보다는 '미쳐라'가 맞는 것 같아요. 미치면 힘든 것도 몰라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거기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게 진짜 즐기는 거죠. '훈련 많이 했잖아. 하던 대로 하면서 즐겨' 이건 아니죠. 그러면 고비를 못 넘겨요. 미치다 보면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겼지?' 할 정도로 게임 내용이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지면? 한 포인트 한 포인트 다 생각이 납니다."

-자식의 큰 경기 앞두고 어머님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108배를 하셨는데요. 힘들 때 의지하는 대상이 있나요.

"저희 집안은 불교인데, 운동 하면서 기독교에 빠져 있는 형들도 많이 봤어요. 물론 힘들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다 도움을 받고 싶죠. 하지만 저는 제 몸을 믿습니다. '가족들 건강하게 해 주세요' 같은 소원은 빌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을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 경기에선 누구도 날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칫 잘못하면 신앙이 '핑계'가 될 수 있습니다."

펜싱의 매력이 뭔지 물었다. 그는 "몸으로 두는 장기나 바둑, 또는 가위바위보 같은 것"이라고 했다. "1대 1로 붙으면 이 안에 무한한 수(手)들이 있죠. 몸으로 수싸움을 하니까 몸도 준비돼야 하고, 머리도 써야 합니다. 이게 맞아떨어져서 상대를 찔렀을 때 쾌감은 정말 짜릿하죠. 펜싱은 '칼을 들고 하는 카드 게임'이라고 정의하고 싶네요."

이긴 경기는 점수 딴 기억도 안 나

-취미로 펜싱을 하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펜싱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함께 할 수 있고, 운동량이 정말 많아요. 칼을 써서 위험해 보이지만 보호장구가 있어서 투기 종목 중 가장 안전합니다. 펜싱은 '내가 졌다'고 먼저 인정하기 때문에 승복하는 자세와 품격을 수련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기도 하고요."

-해외 대학 입학 스펙 쌓기로 자녀를 고액 펜싱 클럽에 넣는 경우가 많다던데요.

"펜싱 클럽 하시는 분들이 싫어하실지 모르겠는데요(웃음), 솔직히 펜싱이 아이비리그 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공부를 잘해야 하고, 실력이 비슷하다면 펜싱 대회 입상한 게 어드밴티지가 될 수는 있겠죠."

-펜싱 레전드 출신 남현희씨가 얽힌 대형 스캔들이 터졌는데요.

"펜싱이 올림픽·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인기도 올라가는 중에 터진 일이라 안타까워요. 더 속상한 건 모든 국민이 스포츠인을 다 그렇게 보지 않을까 하는 점이죠. 절대 다수의 스포츠 선수들이 운동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멋지고 모범적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거든요."

-말씀도 잘하시고 스타일도 좋아서 은퇴하면 방송 쪽에서 끌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은퇴 후에도 펜싱 쪽 일은 계속 할 겁니다. 방송을 한다면 펜싱을 알리는 차원 정도겠죠. 펜싱 동호인대회 우승자가 갑자기 선수촌에 와서 게임을 뛰었다고 합시다. 우리는 신기해서 '와, 잘하시네요' 했더니 '저는 국가대표가 될 겁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방송 잘한다' 소리 들으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건 내 자리가 아니구나. 하하."

정영재 문화스포츠 에디터

교통사고 치료 전문

MERCY CHIROPRACTIC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n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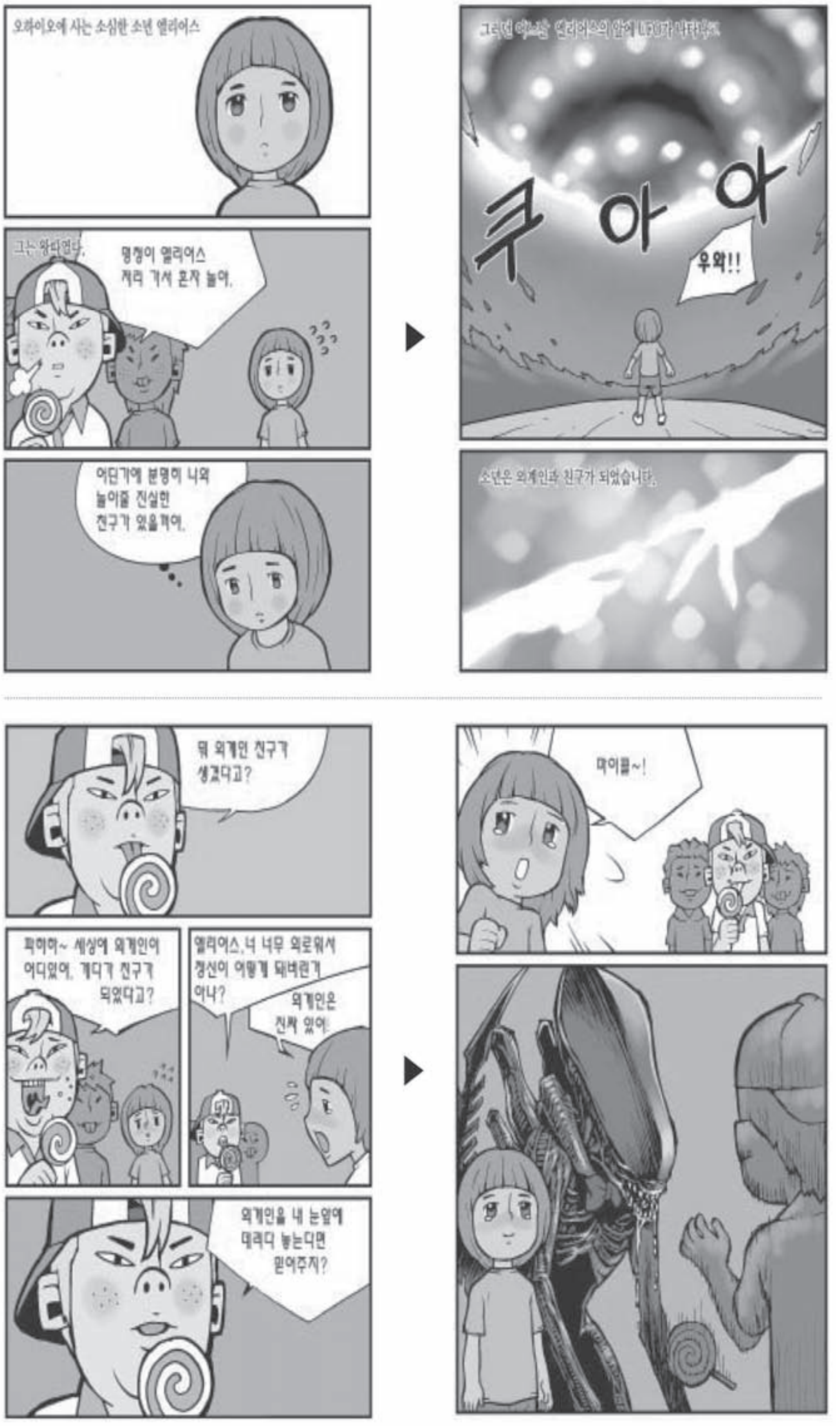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사업보험 •생명보험
•화재보험
703.825.2945

카툰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외계인**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양영순 · 손준혁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OO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셜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HOT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AIR CLEANER AND HUMIDIFIER

INDOOR AIR QUALITY PROBLEMS

FURNACES & AIR HANDLERS

NEW FURNACE INSTALLATION

FURNACE REPAIR SERVICE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AC INSTALLATION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Porch HomeAdvisor BBB

LENNOX Carrier TRANE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Carrier ,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12월 구인광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워싱턴 중앙일보
직원 모집

워싱턴 중앙일보에서는
진취적인 마인드로 성실히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 분야 : 광고 영업 0명
사무직 0명
- 기본 MS 오피스 프로그램 사용
▶ 자격 : 신입 및 경력 (풀/파트 타임)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근무 혜택 : 회사 내규에 따름

이력서 보내실 곳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3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O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털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팩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풀/파트타임 가능
▶ 영어 가능하신 분
▶ 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환영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FOR SALE

Air Compressor
20 HP (22 volt)
$1,800

Air Compressor
5 HP (22 volt)
$1,000

* Air Compressor는
현재 작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202-258-6384

코웨이 DC 지점
직원 모집

- 코웨이 코디/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MD,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센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염가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 마케팅〉

보험 사무실 직원모집
페어펙스에 있는 보험 사무실에서
오래동안 같이 일하실 직원을 찾습니다.
- 풀/파트타임 가능
- 영어 가능하신 분
- 보험 라이센스 소지자 환영
- 401k, 건강보험, PTO

www.uniwfm.com
▶이메일: vaoffice.uni@gmail.com

CarePeople Home Health (센터빌)
회계담당 경력직 채용(Full Time)
회계전반 업무 및 급여관리
자격조건: 이중언어 필수
CPA/ EA 자격우대
MS office/ Quickbooks/ ADP
취업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문의: 571-297-4747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 풀타임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스마트보험에서 역량있는
P&C Specialist 인재를 모십니다.
*신입 환영/경력자 우대
*401K / 그룹건강보험 / PTO
*H1B/영주권 스폰가능
HR 담당자 : 703-639-0882
▶smartacct@solomonus.com

페어팩스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여행사 오퍼레이션 담당 및 매니저 급구
703-543-2322
▶이메일: ceo@toptravelusa.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매릴랜드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 ceo@toptravelusa.com

▶ 703-256-0606

코웨이 DC 지점 정규직 직원 모집
코웨이 코디 / 코닥
- 정기적인 고객 제품 관리 서비스
- 렌탈 멤버십 회원 관리
- 4대 보험 전액 지원
- 자율적인 근무시간
- DMV 지역 (DC,MD,VA)

hongyoonsin@coway-usa.com
▶703-992-0835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아난데일 부동산회사 -리셉셔니스트 구함.
Megarealty@gmail.com
▶703-534-4989

ASL Division Manager:
에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메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
-정부계약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 Quickbook/excel경험필수
- 3년이상 회계업무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제품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클 임)

VA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풀타임 직원모집
- 학생및 유/무 경험자 환영
- 컴퓨터/영어 가능자
- 취업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타이슨스 코너 멀에 위치한 시계및 쥬얼리
리페어 샵에서 영어 능통한 세일즈 하실 분
구합니다. 파타임 & 풀 타임
571-633-0766 / fastfixusa@gmail.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Annandale에 위치한 덴탈랩.
*오피스, 사무직 구함.
703-946-8557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패니쉬) 가능한 유,무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 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luvacct1986@gmail.com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 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펀서 가능
Email: employeehire13@gmail.com

JTBC 워싱턴 총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총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CUSTOMER SERVICE, 전산부 직원을
모집합니다. 유경험자 우대합니다.
703-712-7089

Personal Injury firm in Fairfax City is
seeking a full-time legal assistant.
Please email resume to:
Cyoon@davidmarkslaw.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희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
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MD 게이더스버그 달라스토어구인
매장 스탁, 매장 관리 풀타임
파트타임 시간 조절 가능
buyandsave9661@gmail.com
443-812-1087(텍스트)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naturadent@gmail.com

MD 베데스다 한방병원
바디 /페이셜 마사지사
월도프 지역 도넛가게에서
낮 시간대 함께 일 할 여자분 구합니다.
▶301-609-0432

급구, 센터빌/챈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닥터오피스 프론트 직원 구함
풀타임, 한국어/영어, 컴퓨터 스킬
703-642-0900

Fairfax Medical Center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에서 마사지 테라피스트 구인
파트타임/풀타임 가능 (월-토).
시간당 $50-60 가능합니다.
이력서 : gofcrc@gmail.com

병원에서 일하실분
Catonsville/ Silver Springs
(영어/한국어가능) 경력자우대
Manager /Receptionist (Full time)
*Vacation/Sick/Holidays
*Medical Insurance
*401(k) match *Bonuses
Career@nanoommedicalgroup.com
213-378-0144

패어팩스에 위치한 척추신경 병원
월목 오후 2:00 PM-8:30 PM / 화금 오후
11 AM-5 PM / 수요일은 옵션 (10 AM-
4PM) 한국어/영어 이중언어 요구됨
일 할 수 있는 신분/ 무경험, 학생도 환영
전화: 703-539-8822

페어팩스 성형외과 리셉션니스트 구함
이중언어, 풀/파트타임 월-금.
베네핏:건강보험, 401k. 유급휴가
초보 추레이닝,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제출: anyosupa@yahoo.com
703-981-6491 문자요망

페어팩스에 있는 내과에서 영어, 한국어,
컴퓨터 가능하신 리셉셔니스트구함.
파타임, 풀타임
703-505-0204

메릴랜드 세라믹 빌드업 기사 구함
240-477-5683

치과 직원 구함 경력직 풀/파트
어씨스턴드 1명 , 경력직 리셉션 1명
Resume email: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식당/제과/델리/식품〉

센터빌 Honest Grill
Host / Hostess (한국어 / 영어)
14215-H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703-517-6439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 분
연봉 5만(현지 이주,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식당 동업자 구함
한식 주방경험과 약간의 운영자금 가능하며
전적으로 맡아 운영해 주실 분!!!
▶202-553-8551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 -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구인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설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 구인
전산부 및 RECEIVING 직원을 모집.
경험자 우대.
accounting@kmarketusa.com
▶703-712-7089

챈틀리 Cafe Moment 에서
금/토/일 오후 파트타임 구합니다.
Chantilly Cafe Moment looking for
Fri, Sat, Sun afternoon part time.
703-376-8090
thecafemoment@gmail.com

스프링필드 버지니아에있는
막창도둑 코린안bbq 에서
서버,매니저 구합니다
443-953 1127

능력있는 직원을 모십니다.
College Park Area, MD지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본사
-사무보조:능숙한 영어
PT 20~35HR:$17~20/h.
이력서는 Email: jobsmd@outlook.com
301-333-2209

캐시어 구함. 볼티모어 지역. 높은페이 델리.
443-621-4951

(구직) 히바치쉐프 파트타임 가능
443-620-4420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함께일할 분
영주권 스폰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703-473-6022

메릴랜드 락빌, 베이커리&버블티
같이 일하실분.파타임, 풀타임
703-717-2596

Elkridge Deli 풀/파트타임 여자분 구함
410-979-9211

〈이·미용실/네일/마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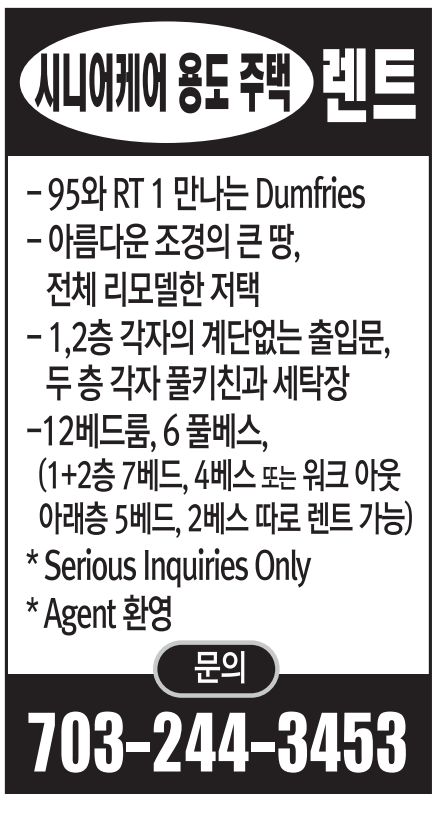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 301-926-3638 / 301-538-4246

첸틀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랜트,
커미션을 원하시는 미용사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경락, 지압 마사지 하시는 분 찾습니다
571-237-3411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리스트(풀,파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Stafford에 있는 이발소
경력있는 이발사 매니저를 구합니다
571-278-3701

〈세탁/얼터레이션〉

스테포드 지역 픽업스토아에서
수선 및 캐쉬어 하실 분
Tel. 703-628-9100

픽업스토어에서 바느질 하실분(파타임)
엘리콧시티 지역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토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트·루트원 선상
703-501-3335

카운터보면서 바느질 하실 분
파타임, 풀타임. 엘리콧시티.
410-750-048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스톨에서
파트타임하실 분
연락처: 703-300-4959

Alteration 하실분 Lorton VA
703-599-5331

버지니아 패어팩스지역 세탁소
올터레이션 & 캐쉬어, 재킷 프레서 구함
301-404-0701

〈정비/바디샵〉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자동차정비소에서 메케닉 일하실 분
폴스쳐지 지역
703-577-5866

자동차 정비 / 헬퍼 경험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703-887-5355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 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건축/전기/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클린)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전화문의: 703-678-1749

리모델링 목수 구합니다.
목수일 직접 전체공사 맡아서 하실분도
모집합니다.
443-542-1200

EV Electric Co.
차,베네펫, 전기기술자, 무경험 가능
973-997 3012

성장하고 있는 유통회사에서 IT(전산),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테리어 디자이너 구함
이력서 접수 sunddor@gmail.com

〈기타 구인/구직〉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맥클린한국학교 교사모집
(유치부, 초등부) 토요일 / 9:30~12:30
autumn379@gmail.com
▶571-235-8997 /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 라이센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밤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간병하실 분
cash 시간당 20불 안아서 간이변기에
옮겨야함. 환자가 불편하지 않게 잘 돌보실 분
703-568-8024

베이비씨터 구함 Vienna , 주5일 , 1-6pm ,
아기 픽업가능한 분 , 성실한 분
213- 839- 3735

밤에 4시간정도 청소 하실분
버지니아 센터빌, 볼티모어 케튼스빌
410-825-7941

Fairfax 입주 간병인 구함
87세 여성 모실분. 요리, 목욕, 밤 간병인
응급상황시 투입, 운동, 마사지
6일 근무, 낮시간. $5000 cash 매달
703-568-8024

에버그린 헬스 메니지먼트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세일즈(Marketer) 직원
한국어/영어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4115 Annandale Road, suite 105,
Annandale, VA 22003

VA첸틸리에 새로 오픈하는 shoe repair,
alteration 기술자 각각 구합니다.
703-340-4777 Lee

밤청소 하실분. 페어팩스, 스프링필드 지역
703-980-1917

빌딩청소하실분 파타임 남여1명
장소칼레지팍 MD 경험자우대
703-725-1233

고고투유에서 책임감 강한
딜리버리하실 분을 모십니다. 고정급 있음
연락처 : 703-505-5211

부동산 렌트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매나사스 타운홈, 방3, 화3½, 리모델 부엌,
화장실, 3개층 모두 나무마루, Costco와
Walmart 가까운 동네. $2,300
▶703-477-3114

우드브릿지 타운홈, 방3, 화2½, 1 Car
Gagage, Hardwood Floors, 4 Levels,
Updated Kitchen, Large Deck, Walkout
Basement. $2,500
▶703-477-3114

시니어케어 용도주택 렌트
- 95와 RT 1 만나는 Dumfries
- 아름다운 조경의 큰 땅,
전체 리모델한 저택
- 1,2층 각자의 계단없는 출입문
두 층 각자 풀키친과 세탁장
-12베드룸, 6 풀베스,
(1+2층 7베드, 4베스 또는 워크 아웃
아래층 5베드, 2베스 따로 렌트 가능)
*Serious Inquiries Only *Agent 환영
▶703-244-3453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형콘도 $2,000
방2, 욕실 1.5, 아주 깨끗함.
301-466-1646

클리프톤, H마트 3분, 싱글홈 렌트.
방4, 화4, 전층 리모델. $3,900
(12/10 이사가능)
571-215-3070(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전체 렌트
세입자 구합니다. 즉시 입주 가능.
연락처: 571-277-7758 (문자 요망)

1.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 된 집 $3,700
2.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1. 센터빌 싱글홈 $2,600/mo
가라지 방 4 화 3. 쇼핑몰, 교통 편리
2. 페어펙스 타운홈 $3,000. 방3 화 3
차고. 페어레이크 쇼핑몰에서 1분 거리
202-743-8886

Maryland Clarksburg 즉시 입주가능
End unit 벽돌집 Townhouse rent
월 $3,000 방3,화장실 2, 반화장실 2
차고 2 넓은 Deck, 부엌 updated
Hardwood floor, 걸어서 Harris Teeter
연락처 Mrs. Cha 301-775-9215

에쉬번 방 4개 화 3개 벽돌 타운홈
학군 좋음 2015년 집. 쇼핑몰에서 1분거리.
267 에서 1분거리
202-743-8886

벤돈 메트로 옆 타운 홈 $2,850
방3, 화 2 1/2, 차고 2, 새 부엌,
새 냉장고, 전체 새 페인트
703-489-6926

게인스빌 타운홈, 방 3, 화4, 1952sqft,
2 차고, 2018년, 엔드유닛 창 많은 타운홈
703-762-6759

〈콘도 렌트〉

Alexandria 다운타운근처, Amenities 좋음.
▶703-477-3114

즉시입주, 애난데일 H-mart 근처 콘도,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편리한 동네,
독신남녀환영. 완전 취사가능. 가구완비.
이름 & 이사날짜, 문자로만
571-251-0354

애난데일 H 마트입구 콘도렌트
방1.욕실1. 발코니. 파킹2
11월초 입주가능, $1,500
703-268-8669(처음은 문자문의 요함)

〈방렌트〉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애난데일 한강식당 뒤 타운하우스 ,
지하전체 워크아웃, and separate
entrance. NO smokers.
703-354-3476

엘리컷시티 롯데에서 5분거리 타운홈
이층방 세놓음. 인터넷, 가구, 욕실 있음.
남자분에 환영
443-631-7866

애난데일 H 마트 뒷 콘도
화장실 딸린 큰 방
703-300-8669

애난데일 H 마트 옆, 방 1개 렌트
인터넷 및 가구 일체, 유포 $800
직장 다니는 분 환영, 12월 중순 입주
703-350-1986

MD 저먼타운 싱글홈 2층 방1개 렌트
뉴그랜드마트 옆, 인터넷(유포),
침대, 가구 완비
301-538-1438

센터빌 H마트옆 조용한 반지하, 주차 사용
571-332-4559(문자 주세요)

조용한 로턴(페어팩스) 주택가
- 워크아웃 지하전체 방3개
- 넓은 리빙룸, 유포(인터넷)
- 냉장고, 세탁기, 주방시설, 출입문 별도
- 깨끗하게 리모델링 되었음
571-488-5860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 타운홈 지하
간단취사 가능, 남자분 환영, 금연자
929-424-2221

훼어옥스몰근처 싱글홈 방 Rent
1층 출입문 별도, 방2, 큰거실, 큰부엌, 화장실
571-525-4220(Mr. 권)

페어팩스 쾌적한 숲속 환경 타운하우스,
밝은 채광, 2층, 노바 7분, 조지메이슨 7분
남학생 환영.
571-554-4224(문자 요망)

방1개, 전기포함 $600
Elkridge, MD
631-834-2679 / 410-245-2702

애난데일 예촌앞 방 2개 렌트
직장인, 학생 취사 가능
703-622-2033

애난데일 노바근처 방렌트(유포)
모든 것이 갖추어진 조용하고 깨끗한 집.
방3개 또는 방2개, 방1개 등 선택 가능.
문의 : 703-336-3283

페어옥스 병원 옆 단독주택 지하방 1
세탁기 완비, 침구 및 탁상
Rt. 50, 29, 286 (Fairfax Pkwy) 가까운 곳
남자, 금연, 11월 21일 입주 가능
T. 571-236-0834 (Mrs. Jin)

애난데일 홈디포뒤 방1렌트
출입문 별도, 주차장 있음
571-237-3411

버크 위층방 세놓음, 학생환영, 금연자,
화장실 별도, 간단취사 가능, 인터넷 포함
703-919-7660

스프링필드 타운홈 지하 전체
방, 풀베쓰, 주방, 밝은 거실, 출입문 별도
조용하고 교통 매우 좋음.
여자분 환영
571-246-7988

애난데일 H 마트옆 싱글하우스
출입문 별도, 아래층 전체 방2,
거실, 주방, 화장실 1, 세탁실
703-350-2690 / 문자:703- 350-2853

싱글홈 방1렌트, 조용/교통 편리한 위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 근처,
가구완비/인터넷(유포)
301-655-3248

설악가든 근처, 잠만 주무실 분
방1, 화장실1, 금연자
571-243-6295

실버스프링, 넓고 조용한 싱글홈 아래층
원룸스타일 취사가능. 인터넷 출입문 별도
240-543-6427

지하방 깨끗한 집 즉시 입주가능
볼티모어 UMBC 가까운 곳
443-240-7606

페어펙스 비엔나 전철역 걸어서 5분거리
방1개 렌트, 직장인 남자 환영
703-419-0337

Fairfax NOVA, GM n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방 1개 $600
방 2개 $1000, 여자분 환영
571-214-0188(문자 바람)

Burke H-Mart 10분거리
유포, 취사,인터넷, $600 여자분 환영
703-678-7833(문자 바람)

타운홈 지하 방. 화장실, 샤워룸, 리빙룸,
키친 세탁룸, 단독 아파트 처럼 사용가능
페어랙 Walmart 근처
문의 : 571 217-2224(Mr Kim)

원룸 스타일 . 욕실 , 키친, 침대, 책상, 옷장.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571-232-6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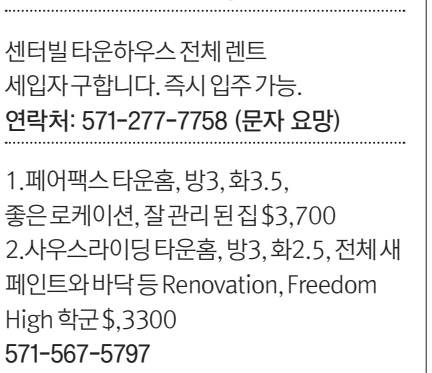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고춧가루 팝니다!
직접 농사지은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보통맛 • 매운맛
703-470-5238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촌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애난데일 예촌 앞 2층 방 2개, 워크아웃 1개
772-529-8675

495,395 5분 거리 교통 편리한
스프링힐드 지하방 세 놓습니다
703-898-2696 메시지 부탁합니다

애난데일 싱글 아래층. 노바,GMU,495,6분
침대 가구 취사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 조용한 윗층방,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private bathroom)
여자분 환영. 문자보내주세요.
문의: 571-345-8879

센터빌 싱글지하 방2,거실, 조용, 주방, 세탁,
출입별도, 주차, 즉시입주, 남학생,직장인 환영
703-336-7631

단독주택 2층방/주차가능/인터넷/
가구완비/냉장고별도/여자분 환영/
MD Burtonsville, 29번과198번 만나는지점
240-413-2728

BURKE Townhouse. 깨끗하고 환한 1층.
방1, 욕실1, 간단한 취사, 주차가능
냉장고, 전자렌지, 인덕션, 옷장, 식탁
(학생환영), 도보로 Walmart 5분 거리
202-505-0678

버크 베이스먼트 전체, 워크아웃 별도출입
방2, 욕실 ,주방, 거실 , GMU, NOVA 10분,
2인사용 가능
703-887-8968(문자)

지하전체 간단취사 가능. 주차, 인터넷, 유포.
GMU근처. 타운하우스
408-691-4775

애난데일 조용한 싱글홈 워크아웃 지하 큰방.
풀 배스, 세탁실, 간편취사. 출입문 별도.
주차편리. 문자 연락 요망.
703-853-9955

메릴랜드 그린벨트 나사근처
조용하며 교통편리, 작은방 $ 350
301-379-9660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한강뒤쪽 고급콘도의
사무실렌트, Wifi 제공
703-835-7404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침대 2개와 티테이블 놓을 수 있는 사이즈)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헬퍼 구합니다.
301-852-9298 (문자)

페어팩스 지역 오피스 룸
방 1, $500 , $900, 와이파이,
화장실, 부엌 있고 충분한 주차장.
703-966-9937

부동산 매매

〈싱글/타운/콘도 매매〉

매나사스 콘도 $295,000
매나사스 Costco 건너편 예쁜 End Unit 콘도
방2, 화2, 주인이 꼼꼼하게 리모델링한
밝고 넓은 콘도. 저렴한 콘도비($315)
▶703-477-3114

센터빌 타운하우스 $749,900
타운하우스, 2 차고, End Unit, 1,896 s.f.,
방 4, 화3½, Gorgeous! 3 Level Bump Out,
pdate 완벽하게 된 타운하우스, 나무마루,
Update된 주방& 욕실, 넓은 Desk,
탁트인구조,Walkout Basement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220,000
방1, 화장실1, 완전 수리된 Updated Condo,
세탁기&건조기 , 700 s.f., Remodeled
Kitchen, Granite Counter Tops,
SS Appliances, 나무마루, 밝고 환한 집
▶703-477-3114

찾기 힘든 독점 리스팅
오픈 하우스 10/28-29(토,일) 오후 1-3 교
통 좋고 예쁘게 잘 관리된 3레벨 싱글하우스.
비엔나, 옥튼 고등. 방 5, 화 4.5 (1,225 M)
문의: 703-850-3638
(성함과 텍스트 남겨 주세요)

〈부동산/상업용 매매〉

성업중인 미국 당구 스포츠 바 매매/리스
메릴랜드 로럴 포트미드 베이스 앞
13,000 SF, 28 당구대 완비
경험 많은 Serious Inquiry Only
▶ 703-244-3453

Vienna VA / Diamond Nails Spa 매매
. 주소: 108 church st NE Vienna VA 22180
. Sale Price: $290,000
. Weekly's sales: $6300. (평균)
. 단독건물 단독사용, (약 3000SQF
. 원하시면 건물 매매도 가능합니다.
. Potential: Head Spa, Hair salon,
Upgrade Massage, Upgraded Facial
. 파트너십 / 여러다양성을 키울수 있습니다
. Rent: $7880 (모든것 포함)
(10년간 랜트 인상 없습니다)
. 노던 버지니아에 최고의 심장부에 위치한
최고에 장소 입니다
▶ 571-421-0863

For Sale (사업체 판매) Woo Tire Co.
- 트럭 중고품 타이어 Shop
- DC 노스이스트 공장 지역
- 30년 동안 운영한 점포
- 단골 손님 500여 명
- 타이어 1본 판매 65% 마진
- 장비 10여 만불 보유
* 영업시간: 오전 9시 - 오후 4시 (5 ½ day)
* Rent/월: $2,000 (면적 3,000 sf.)
▶ 문의 전화: 202-258-6384

Pick up 매매 주인은퇴 Good location.
얼터레이션 가능한 분, 세탁소 오너에 최적
Woodbridge 지역
571-224-7777

DC. Liquor Store 매매 : $260,000
연매상 :$780,000. 6일. 융자.부부운영굿
571-242-3736

볼티모어 델리 매매
시간 오전 7시 - 오후 3시 / 주 매상 4천
렌트 $525(전기료 포함)
443-766-4813 (오후 3시 이후 전화 바람)

페어팩스 픽업 세탁소 매매
주매상 $4,000, 렌트$2,700(캠포함)
좋은 지역&매상 해마다 오르는 중
571-314-1433

애난데일 마트안 한중식 8만불 메세지주세요.
703-424-6451

버지니아에있는 미용실 찾는 분 연락주세요.
(오후 6시후 문자주세요)
571-277-7758

상업용 건물/정비소, 중고딜러차 등등
할 수 있는 곳 건물 팝니다. 문자요망
703-946-9901

센터빌 지역 크라운 브릿지 덴탈랩 매매
Serious buyer분들 연락 바람.
703-582-8689

세탁소 매매 Upper marlboro, 좋은장소
703-850-3714

마켓내 성업중인 한식·중식 식당하실 분!
703-638-8876

랜도버에 있는 깨끗한 델리, 장비포함 7만 주
인이 나이가 있어 이젠 정리하려고 합니다
충분히 비젼이 있는 곳입니다
(샨킴) 240-381-1615

기타

치과 임플란트 : $1,000
임플란트 크라운 , 별도 :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버크레이크에서 멀써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장소: 일요일 아침 9시 버크레이크 쉘터 C에서.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포시즌워킹클럽
▶703-939-5223

명인택시
공항 픽업 & 라이드 장거리 환영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703-470-5238 / 571-246-1942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단/ 장기 기간도 주인이 직접 한국식으로
돌봐 드림.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 (예촌 2분거
리), MD 타주 분들도 환영! 직접 방문 확인!
▶571-278-8811

고춧가루 팝니다. 보통맛 / 매운맛
직접 농사지은 태양초 고춧가루
맛있고 건강에 좋은 무공해 100%
빛깔 좋은 태양초 , 좋은 가격 / 신용 품질 보장
▶703-470-5238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 703-678-6639

Math Tutoring (수학 지도)
Algebra/ Calculus/ Geometry
703-945-2991 (Text) Mr. Lee

통역 서비스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밋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Falls Church VA 파크안 최고 명당자리 매매
443-355-7700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inyeolchoi@hotmail.com

풍경이 있는 바다에서 주말마다 배위에서
낚시 즐기실 분 환영합니다. (Mr Kim)
301 -919- 1788

유화, 아크릴 개인 레슨
아동, 성인, 취미, 초보자 환영
유화 전공, 오래된 경력 / 개인 레슨시간 조율.
703-489-6567

〈중고품/기타 매매〉

Car for Sale
2014 Chevrolet Sonic LT Auto
75,000 Miles, $4,500
▶연락처: 703-489-6926

쥬키 미싱 dll 8700 세탁소용
햄 미싱 USA , 4인용식탁 매매
240-475-4166

혼마 남성용 골프채
- 2 스타(02) 아이언 7pec
- 3 스타(03) 드라이버 9.5° 우드, 유틸리티
- 4 스타(08) 드라이버 /3번 우드
- 4 스타(07) 5번 우드
- 4 스타(07) 아이언 8pec
410-913-8215(문자 주세요)

닛산 로그 2011년 Good
블랙, 191k, As is 판매가 900불
443-956-9105 (문자 먼저)

골프채 싸게 팝니다. 남성용 혼마 LB 280
703-300-8669

여자3스타 혼마세트 2여행용가방 1카트
가격조정가능 문자요망
240 500 0035

2012 Hyundai Santa Fe SUV Silver
(현대 산타페 은색) 82,000 mile
Good condition $10,500
703-350-1986

남성골프채 DRIVE
1)일제 KAMUI ASIRI 고반발 Gold
10도 /R $ 600
2) PXG 0811x+PROTO
10.5 도 /R $ 170
301-717-7960

물만 필요한 저렴한 낚시대 세트 $10
연한 베이지바탕 디자인 그라나이트 2' x 2'
$45 / 2개 $80
703-268-8669

은퇴로 덴탈랩 장비와 재료 총$500
240-423-9968

집안에 모아 둔 남녀 금, 다이아반지,
시계, 목걸이 및 팔찌 등 사실분. 문자요망
240-718-8050

〈건축/페인트〉

My Roofers 영업직 직원 구함. Roofing,
Siding, Gutters, Windows, 무료 견적,/
Roof Inspection. 주거용 상업용 모두 취급함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703-760-3161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페인팅(In,Out), 덱 메인터넌스와
클리닝,샌딩,파워워시,핸디맨서비스
▶문의:Mr.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모든공사,주정부 라이센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아이디:wani6811
▶571-331-6811

〈융자〉

제인 최 융자
25년 경력 매입/재융자/특수융자
▶703-244-3453

마이클 장 융자
주택/ 상업융자 / 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융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독〉

JD STAR 소독(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냉동 & 히팅〉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힛펌프,Carrier, Trane딜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가정용/상업용
▶ 문의:703-380-2282

L&B UNIVERSAL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큰규모의 냉난방 회사,덕트 클리닝
▶703-678-1749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 냉장, 워크인
ELECTRIC CONTROLS SPECIALIST
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히팅,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워킹쿨러,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에어컨,히팅,냉동,냉장,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Mr. Chung)

〈보 석〉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
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에어덕트 크리닝〉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럭파워 스팀샴푸,살균,소독,냄새및
얼룩제거 , 브러쉬 ,파워 풀청소. 응급 수해복
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키친 리모델링,온수,히터
디쉬워셔,Disposals,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변기,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GAS공사,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지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 /사업체에 안 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을
처리해 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귀국 이
삿짐 포장이사,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귀국,
해외,타주, 시내 이사,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안전,신용,저렴 ,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타주,시내 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시공 - 타일, 창문, 화장실, 지하실,
마루,부엌
▶571-338-0977

H.P.C 집수리 센터
집 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등
▶571-594-4080

JIP Electrician&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센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유리〉

중앙유리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703-894-7200

JK유리 &Window
상점,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Door 설치 ,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무료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 하지 않습니다.)

중앙업소안내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보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AWARDED Porch yelp HomeAdviso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Since 1988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마루,타일,부엌,화장실,덱,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덱, 마루, 캐비넷 샌딩 보수
▶플로밍. 핸디맨 써비스

703)965-3011

유리

샤워도어/자동문/식탁유리/거울장식
특수 유리 교체 및 특별 주문제작

중앙유리

T. 703-894-7200
8002-A Haute Ct, Springfield, VA 22150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93-209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해외 이사
타주,시내 이사
귀국,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20년 전문!!

신속 안전 신용 저렴

▶귀국 이사 전문
▶자체 창고 보관
▶타주, 시내 이사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100%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팩션 도와드림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림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Nest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 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 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돌 반지 팔지
- 남양 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융 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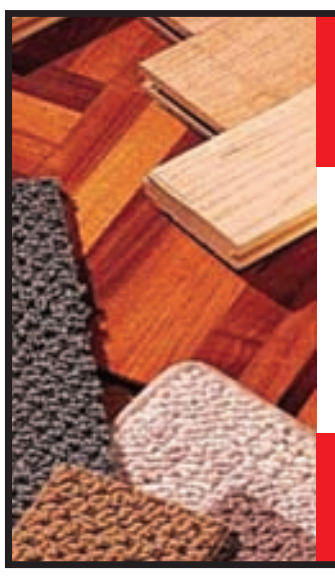
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703.909.0988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힛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죠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큼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풀청소 (덱,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 스톤

♦플러밍 ♦페인트
♦목수 ♦전기 ♦수도

직접 시공 | 타일 | 창문 | 화장실 | 지하실 | 마루 |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사이딩,거터,루핑,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 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VA/MD/DC

- 전제품 한국산 블라인드
- 친환경 원단, 하이 퀄리티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줄없는 블라인드
- 한국산 버티컬 블라인드
- 한국산 오동나무 블라인드

무료 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지붕 / 사이딩

루핑,사이딩이 필요하십니까?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 견적 & 인스펙션

영업직 직원 구함 경험자 우대

주거용 및 상업용 모든 유형의 지붕을 설치합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MY ROOFERS 마이 루퍼스

전화번호. 703-760-3161, Cell. 703-944-9200
E-mail. Contact@myroofersusa.com
www.myroofersusa.com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the best of my knowledge: 내가 아는 바로는

(It's late morning and Terry and Sidney are at work …)
(늦은 아침 테리와 시드니가 직장에서 …)

Terry: I've got to take an extra hour for lunch today.
테리: 오늘은 점심 시간이 한 시간 더 필요해.
Sidney: What's the deal?
시드니: 왜?
Terry: I'd rather not say now. Can you cover for me until 2 o'clock?
테리: 지금은 말 안하는 편이 낫겠어. 두 시까지만 나좀 커버해줄 수 있어?
Sidney: Sure but I don't know anyone who will know you're not here.
시드니: 그래 하지만 자네가 없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 말야.
Terry: Just in case the boss is looking for me.
테리: 사장이 날 찾을 경우에 대비해서니까.
Sidney: You know you can depend on me.
시드니: 날 믿으라고.
Terry: Thanks. I'll tell you all the details later.
테리: 고마워. 나중에 자세한 얘기 해줄께.
Sidney: Are you sure you'll be back in two hours?
시드니: 두 시간 후에 돌아온다는 건 확실해?
Terry: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at's all it will take.
테리: 내가 아는 한 그거면 충분해.
Sidney: Hurry back. I want to know what this is about.
시드니: 서둘러. 나도 뭔지 알고 싶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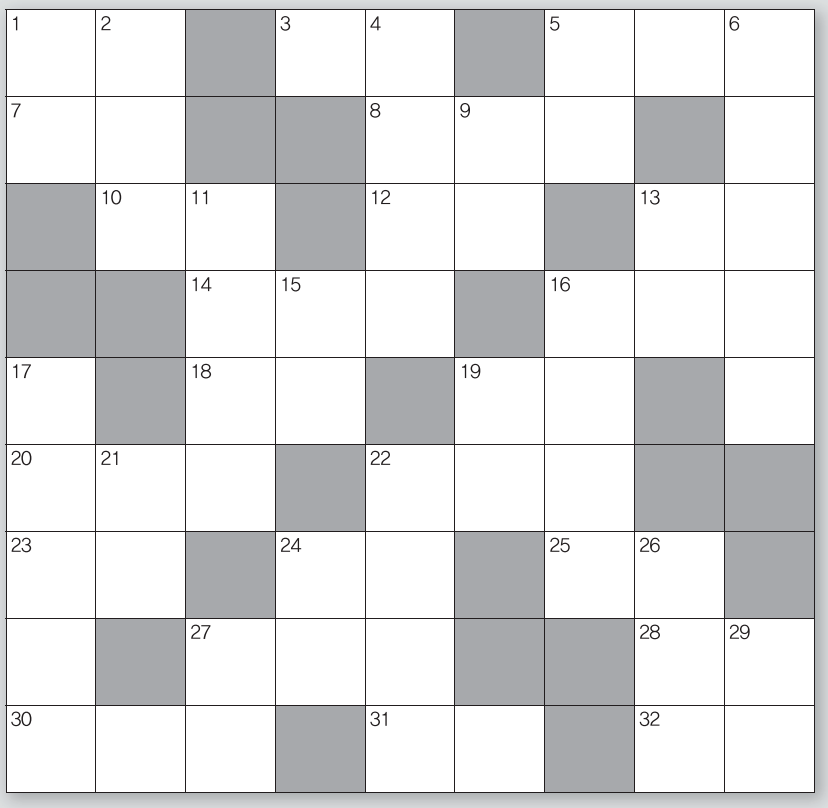
기억할만한 표현

▶ what's the deal (with)?: 무슨 연유죠?
"What's the deal with your purple hair?"
(자네 보라색 머리카락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 cover for (somebody): ~를 위해 거짓말해주다 보호해주다
"I can't cover for you because I don't want to tell a lie."
(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네를 보호할 수가 없겠어.)

▶ (just) in case: ~할 경우를 대비해서
"There are spare batteries in there you need them."
(필요할 때 쓸 건전지 여유분이 있습니다.)

낱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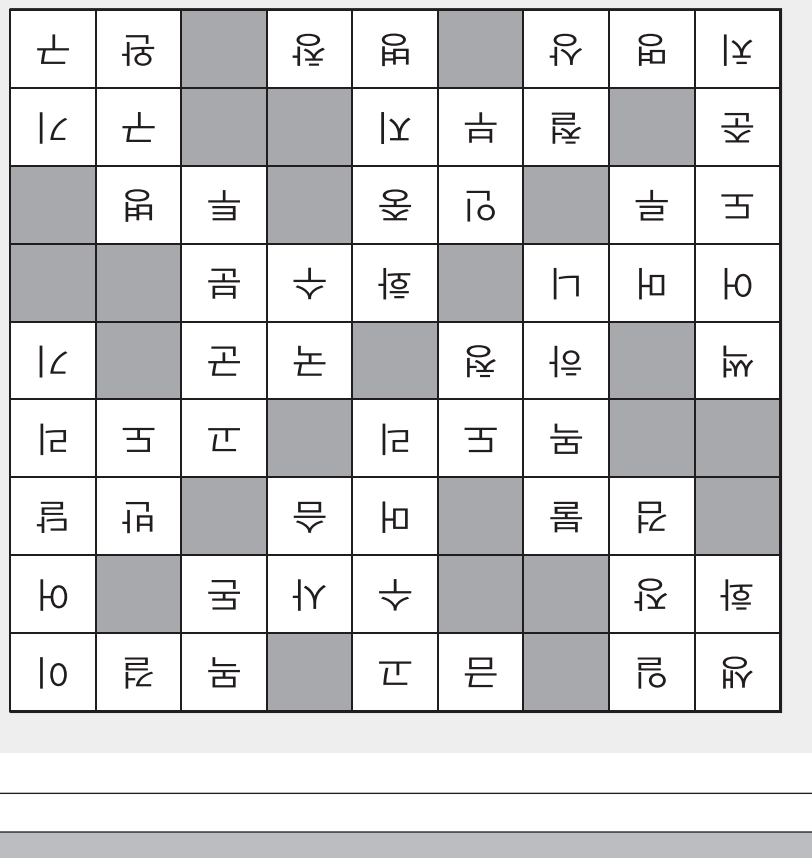


가로열쇠

(1)태어난 날 (3)돈, 귀중한 서류, 귀중품을 보관하는 데 쓰는 궤 (5)목에 거는 장신구 (7)얼굴을 곱게 꾸밈 (8)사위 쪽의 사돈 (10)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 따위 (12)농가에 고용되어 그 집의 농사일과 잡일을 해 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 (13)반원형의 달. 낮에 나온 ~은 하얀 ~은 해님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 (윤석중) (14)추위를 막기 위해 또는 모양을 내기 위하여 목에 두르죠 (16)고등어의 새끼 (18)수급인이 맡은 일을 다시 제삼자가 하수급인으로서 맡는 것 (19)우리나라의 군대와 군인 (20)나를 낳아 주신 분. ~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만 생각하면 바보가 돼요, 바보같이 눈물만 나(이홍렬) (22)재물이 계속 나오는 보물단지 (23)몰래 다음 누로 가죠 (24)코와 윗입술 사이에 오목하게 골이 진 곳. ~이 길면 자식복도 많고 가정도 화평하며 장수한다고 하죠 (25)병을 고치려고 병과 싸움 (27)철없는 어린아이 (28)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30)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큰 상처 (31)가야금 따위의 악기를 타면서 노래를 부름 (32)장난감

세로열쇠

(1)살아 있는 화초에서 꺾은 진짜 꽃 (2)하나의 길고 큰 칼. 만리 변성에 ~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김종서) (4)고불고불하게 말려 있는 머리털 (5)한몫의 비교적 많은 돈 (6)네 명의 선수가 차례로 배턴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육상 경기. 릴레이 (9)녹용을 생산하는 동물.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관(冠)이 향기로운 너는/무척 높은 족속이었나보다(노천명) (11)절에서 밥을 짓고 물을 긷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13)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땅 (15)몰래 엿들음 (16)외로운 군대가 떨쳐 싸움 (17)본래 좋고 훌륭한 것은 썩거나 헐어도 본디의 훌륭함을 지니고 있음 (19)장기, 바둑 따위에서 그 실력이 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사람 (21)포도보다 작으나 포도와 비슷한 것으로 산에서 나는 열매. ~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22)그림의 떡 (24)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 (26)앓는 사람을 돌보아 주는 일 (27)음식상이나 제사상을 거두어 치움 (29)수소나 헬륨 따위의 가벼운 기체를 넣어서 공중에 띄우는 물건



스도쿠

3	5	4		7				6
6		7			5		1	
					2			3
	9			2		7		8
2				5	1			9
	6		4	9	8			1
1		5		6	7		8	2
4		2				6	9	7
9	7			8				5

자료제공=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 워싱턴 중앙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 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 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 The Korea Daily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CVS : 카드 뒷면 3자리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하숙·렌트

고급 노인아파트(62세+)
싱글 $1,153, 1Br $1,228
2Br. $1.471 A/C, 냉장고완비
Income Limit (섹션8)
주소: 1221 W. 7th St.
(213)623-2010 (영어로)

매매

O.C 물가게 $5만5천
귀국급매, 넷$3천5백
싼렌트 (562)409-4707

한남체인내 돈가스집
마켓 방문인원 어마어마함
현주인은퇴, 아주 심플한 메뉴
주6일 10:30~7:30
전기,물,가스 Free, $20만불
(213)434-0001 KIM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기타 지역

구인

한식 주방쿡
숙식제공,죠지아주지역
(646)229-2708

하숙·렌트

시니어 아파트 신청
1Br APT (소득 기반)
62세이상, 평등한 주거기회
119 West 2nd Street, Xenia, OH
(937)372-4143
JohnSaleManor.com

매매

40년간 잘 운영된
리테일 보석가게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
주인 은퇴관계
플로리다주, Tampa
(727)501-1881 Andy

법무사가 되세요

가장 확실한 직업 평생 은퇴가 없습니다.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총장 법학박사 하워드리

비즈니스 상용 융자

- 2008부터 A+ 비즈니스 융자 전문 미국 금융 회사
- 은행(Bank) & 비은행(Non-Bank) 프로그램들
- 동종업 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
- 크레딧 손상 안되는 무료 승인
- 자세한 내용은 한글 웹사이트 또는 전화 문의

Bank Line of Credit
Rate: Prime+2-5%, 월 최소 이자만 지불, up to $250,000 per Bank

운영자금 융자
간단하고 빠른 융자

Line of credit
사용한 금액과 기간만 이자

기계장비론
새것 & 중고 구입

SBA 부동산 융자
25년 상환, 적은 다운

SBA 7(a) 융자
10년 상환

기계장비 담보 융자
LTV 80%까지

한국어 (516)972-7760 웹사이트: funding1234.com

한 편의 소설보다 더 강렬한 당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남기세요

나만의 이민사 여정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나부랭이와 찌끄레기의 합창] 저자: 김세환 목사

[보석상의 보석 이야기] 저자: Harry Kim

[My Way] 저자: 김원보 회장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소년병사] 저자: 변덕인

[여든, 다시 꿈을 꾸다] 저자: 김영덕

[팬찮아? 잘될까?] 저자: 방영자

자서전을 통해 이곳 미국 땅의 후손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그 뿌리를 알려주는 중요한 유산을
남겨 주십시오.

중앙A&D Joongang Advertising & Design | T. 213-368-2661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포세린 피니쉬

풀타임
N.캐롤라이나주 샬롯 지역
704.806.3068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풀림·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뼛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 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의학박사 서영수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 ~~$5500~~ ➡ $170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슨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수있는 기적의 영양제

유태인 특수영양제 M3세트
정직한 마음으로 권합니다. SELLA CARE®
본사 대표 번호 (213) 435-9600

본사(LA): 213.435.9600
다운타운 산페드로: 213.765.9677
LA코리아타운플라자: 213.739.8874
국제건강가족동호회: 213.382.9714
시온약국: 213.344.9730
LA 한국마켓 약국: 323.464.3925
우리약국(우리종합병원내): 213.384.6323
LA벌몬 갤러리아마켓 약국: 213.388.4100
현대약국(웨스턴+5가): 213.480.3322
LA시온마켓 엄마손 약국: 213.739.3030
올림픽 갤러리아마켓 약국: 323.733.7200
LA 에스약국: 323.733.7788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밸리 소망약국: 818.832.2757
플러튼 내쳐양양센터: 714.690.0120
부에나팍 지구촌약국(H마트내): 714.228.9212
세리토스 파이오니아 약국: 562.402.6972
웰빙건강 하와이언가든: 562.631.4264
세리토스 패밀리 약국: 562.402.0500
부에나팍 플러튼 약국: 714.992.4935
가든그로브 주영아울렛: 714.944.8993
시온헬스: 949.350.5023

패밀리케어: 714.521.3535
비치약국: 714.739.8811
D.B 제이제이약국: 909.595.4003
텍사스: 214.998.8861
유타: 801.888.6775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뉴욕/뉴저지: 201.310.8391
시카고(알바니약국): 847.699.1511
시카고 서울마켓(헬렌): 224.406.0337
조지아(발아건강식품): 770.457.1717
텍사스 한아름: 214.998.8861
플로리다/NC/SC: 770.457.1717
씨애틀(건강마을): 206.229.5466
하와이 홍삼나라: 808.952.9966
하와이 생약촌: 808.381.1909
캐나다(밴쿠버 롯데건강 백화점): 604.872.1669

한국: 010.4399.6247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본원내:02.2072.1579
서울혜화동 서울대병원 암센터내:02.2072.7565
서울고대 안암병원내 2층: 02.928.9580
경기 분당 서울대병원내: 031.719.9589

본사 대표번호 (213) 435-9600

www.92chickenusa.com

창업주 모집!!!

대한민국 치킨은 이제 전 세계인이 즐기는 문화입니다!!!
가맹비 없음!!!!!! 로열티 3년 없음!!!!!!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문의 : 770-769-7575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오픈!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92Chicken
KOREAN STYLE CHICKEN

92K-corn dog

[월드뱅크카드서비스]
WBS PO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www.worldbankcard.com
최신
POS 시스템
최저
가격 보장
◆ 간편하고 쉬운 POS
◆ 재고 관리 기능
◆ Warehouse와 Multi-Location 관리 가능
◆ 고객 멤버십과 기프트 카드 가능
◆ CUSTOMIZE 맞춤형 POS 가능
※ POS / ATM / 크레딧 카드 터미널 문의 환영(Apple Pay 됩니다.)
Pay
WBS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보다 높은 이익성과 안정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고객맞춤서비스
동종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로컬 담당자
고객님들의 요청에 언제나 응대할 수 있도록 지역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비용
고객 중심의 서비스와 경쟁력있는 제품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지원
모든 고객분들을 위해 연중무휴 언제 어디서나 기술 지원을 제공합니다.
WBS
WORLD BANKCARD SERVICES
24시간 365일 친절한 한국어 서비스
상담/문의 환영 703-225-5500
1-800-WBS(927)-5675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ww.worldbankcard.com